

# 日蘇關係의 새局面과 그展望

—戰略, 領土, 經濟問題를 中心으로

金 英 鎮

(美國 George Washington大學校 政治學科 教授)

## <目 次>

- |              |         |
|--------------|---------|
| 1. 序 文       | 4. 經濟關係 |
| 2. 日本戰略上의 蘇聯 | 5. 結 論  |
| 3. 領土紛爭      |         |

## I. 序 文

앞으로 日蘇關係가 어떤 방향으로 進展되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世界的인 含蓄性을 갖는다고 하여도 별로 誇長은 아닐 것이다. 日蘇兩國間의 關係는 兩國의 美國, 中國과의 關係에 대하여도 關聯性을 지닐 뿐 아니라, 아시아에 局限시켜 생각해 보아도 四强大國間의 힘의 均衡과 아시아 全體의 政治版圖, 平和, 安定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第二次 世界大戰 以後 日蘇兩國은 1956年 共同宣言을 통하여 外交關係를樹立하였고 1960年代 中葉 以後로 시베리아 開發에 있어서의 日本의 經濟協力도 활발해졌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平和條約의 締結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바 이것은 兩國間의 政治的 關係를 어느 정도 象徵하고 있다.

日本과 中國 사이에는 1972年 日中正常化가 이루어졌고 그 후 經濟的側面은 물론 政治的側面에 있어서도 현저한 進展을 보아 1978年에는 日中平和友好條約을 締結하기에 이르렀다. 소련측은 이 平和條約의 內容에 反霸權條項을 插入하는 것에 반대하여 同條約締結의 泞止를 위하여 상당한 努力を傾注하였으나 결국 成功하지 못하였다.

1979年에는 美中國交正常化가 성립되어 日本, 美國, 中國 三國間의 關係促進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에 소련은 三國間의 協力關係가 深化되어감에 따라 예민한 反應을 보여왔다.

이러한 國際政治狀況下에서, 日本과 소련 兩國이 國際政治, 經濟에 있어서 차지하는 比重으로 보아 兩國間의 關係가 앞으로 어떻게 展開되어 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다른 國家들의 커다란 關心事が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本研究는 이러한 認識을 바탕으로 하여 日蘇關係의 性格을 理解하려는 노력의 하나이다. 그러나 本研究는 日蘇關係 全般을 檢討한 것이 아니고 그 焦點을 戰略安保側面과 領土紛爭 및 經濟關係에 局限하였다.

第一部에서는 日本과 소련 兩側의 國家利益概念과 威脅에 대한 認識 및 戰略觀을 다루려 하는데 특히 日本의 戰略思想에 있어서 차지하는 蘇聯의 比重에 重點을 둘 것이다.

第二部에서는 兩國間 關係 全般에 걸쳐 重大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領土紛爭을 살펴보자 한다. 이를 위하여 北海道 北部에 위치하고 있는 四個島嶼(하보마이, 시끄단, 에또로후, 구나시리)에 대한 日本과 蘇聯 兩國의 領土權主張을 檢討하며 1956年 日蘇共同宣言 以後의 領土問題를 囲繞한 兩國의 外交關係를 살펴보고 兩國이 領土權主張을 하는 真意를 分析할 것이다.

第三部는 시베리아開發에 대한 日本의 參與問題와 日蘇間의 通商關係를 다루려 한다. 이를 위하여 兩國間의 貿易關係를 먼저 고찰한 후 소련의 시베리아開發 프로젝트를 檢討하고 日蘇 兩側이 그러한 開發事業에 임하는 姿勢와 그 真意를 分析할 것이다.

本研究는 日蘇關係를 戰略觀, 領土問題, 經濟關係의 順序로 각각 分離하여 다루고 있으나, 이 세가지 側面이 密接한 關聯性을 지니고 있으며 相互間に 큰 影響力を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단지 分析上의 便宜를 위하여 이를 個別的으로 取扱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本研究는 日蘇 兩國關係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 온 몇가지 主要案件을 分析하는 것이 主要目的이다. 筆者は 이러한 分析이 日蘇關係의 將來를 展望하는 데 하나의 根據를 提供할 수 있기를 希望한다.

本研究를 위하여 두가지 種類의 資料를 사용하였다. 첫째는 筆者が 東京과 모스크바에서 兩國 政府內外의 專門家들과 面接한 內容이다. 問題의 性格과 面接內容의 微妙性으로 인하여 直接的인 引用은 삼가하려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의 面接에서 솔직하게 質疑에 응하여 준 수많은 政府官吏 및 專門家들에게 깊은 謝意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두번째 種類의 資料로서는 日語 및 露語로 쓰여진 各種刊行物, 즉 公文書,

書籍, 雜誌, 新聞등을 이용하였다.

本研究는 1974年에 出版된 筆者의 著書 *Japanese-Soviet Relations: Interactions of Politics, Economics and National Security*를大幅修正, 加筆한 것이다. 특히 第一部에서 취급한 戰略問題는 거의 새로이 執筆한 것이다. 第二部와 第三部는 1974年 以後의 狀況進展을 加筆하였고 第三部에서는 시베리아開發에 대한 經濟協力關係 뿐 아니라 日蘇間의 通商關係등을 새로이 追加하였다.

## II. 日本戰略上의 蘇聯

### A. 모스크바側에서 본 소련의 對日戰略的 價值<sup>(1)</sup>

소련의 입장에서 보면 極東에서 두개의 主要한 軍事的 威脅이 存在한다. 하나는 아시아에 주둔하는 美軍, 또 하나는 中國軍이다. 日美安保條約을 소련이 염려하는 理由는 그 條約을 기초로 美國이基地를 획득하여 소련의 軍事活動을 偵察, 監視할 수 있고, 또한 소련을 攻擊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外에도 美軍이 日本의 基地를 아시아에서의 美軍作戰을 為한 補給基地로 過去에 使用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日本은 소련의 太平洋으로의 出口에 位置하고 있어 宗谷, 津輕 및 對馬 三海峽을 통과하는 소련 해군선박을 防害 내지 沮止할 수 있는 立場에 있다.

소련의 日本 및 美國과의 關係가 良好해짐에 따라 日美安保條約에 對한 소련의 우려가 減少해진 때도 있었다. 소련의 文獻을 보면 1950年代 및 1960年代 初期에 比해 그 後 1970年代 中葉까지는 소련의 日美安保體制에 대한 비난의 頻度나 強度가 減少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 그러나 그 時期에도 日美安保體制가 日美兩國의 긴밀한 政治, 經濟, 軍事的 同盟관계를 法的으

(1) 英文으로 된 소련측 見解로는 다음을 參照할 것. V. Pavlovsky, "Collective Security," *International Affairs*, July 1972, pp. 23-27; V. Pavlovsky, "Problems of Regionalism in Asia," *International Affairs*, April 1969; D. Petrov, "Japan and the War in Vietnam," *International Affairs*, November 1965, pp. 36-41; D. Petrov, "Japan in U.S. Strategy," *International Affairs*, June 1968, pp. 22-28; V. Dalnov, "Japan's Role in the U.S. Aggression," *New Times*, July 13, 1966; L. Latyshev, "Okinawa," *International Affairs*, March 1972, pp. 63-67; M. Sladkovsky, "Some Lessons of the Second World War in the Far East," *International Affairs*, October 1970, pp. 39-43.

日本의 國防政策에 대한 소련의 見解 및 戰略에 대한 分析으로는 다음을 參照할 것. W. Spahr, "The Soviet Views of Japan," *Japan's Defense Policy* (by Young C. Kim et al., 1973), pp. 170-192.

로 뒷받침하고 있고 소련에 대한 軍事的 威脅이 되고 있다는 認識에는 變化 가 없었다. 그 後 美蘇關係의 긴장, 特히 日中平和友好條約締結 및 美中國 交正常化등, 國際情勢의 變遷과 더불어 소련이 日美安保體制에 대해 느끼는 威脅도 增加하고 있다.

蘇聯이 戰後 一貫하여 갖고 있는 對日 中期的 目標는 日美軍事紐帶를 차 단하여 可能하다면 日本의 中立化를 이룩하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平和條約 및 1956年의 日蘇共同宣言에 이르는 交渉過程을 檢討해 보면 그러한 소련의 立場이 明白히 나타나고 있다.

戰後 소련의 對日觀에 若干의 變遷을 볼 수 있는데 1950年代 및 1960年代 後半期에 이르기까지는 日本과의 關係에서 야기되는 難問題를 (北方領土問題를 포함하여) 美國의 干涉, 美國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時期에는 日本이 事實上 美國의 支配下에 있고, 美國戰略上 맡은 바 一端의 役割을 忠實히 履行하고 있다고 소련측은 判斷하고 있었다.

그 후 1970年代 特히 後半期에 들어서서 소련은 日本이 獨自의으로 소련에 위협을 줄 수 있는 存在가 될 수 있다고 評價하고 있다. 즉, 첫째로 日本이 소련을 敵對視하는 事實上의 軍事同盟을 形成할 수 있고, 할 지도 모른다는 점, 둘째는 日本의 韓國防衛를 為한 軍事的 役割에 대한 고려이다. 韓半島는 日本과 아시아 대륙을 連結하는 橋梁이라고 소련은 인식하고 있고, 日本의 韓半島에의 進出 및 活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소련側은 닉슨 Doctrine을 해석, 日本이 極東에서 對美義務의 面에서 뿐만 아니라 自身의 利益 옹호의側面에서도 보다 큰 防衛부담을 떠맡을 用意와 能力이 있다고 보고 있다.

소련 文獻에 表明된 見解가 소련 政府當局의 생각을 정확히反映하느냐는 問題가 있지만, 하여튼 日本의 軍事力增加에 대하여 上記한 面 外에도 豪慮를 하고 있다. 그것은 日本이 核武器開發을 위하여 技術的, 經濟的인 能力を 保有하고 있다는 점과 아시아의 병참으로서 日本의 兵器產業이 擴大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련文獻에는 機動力, 火力 및 兵器의 現代化등의 面에서 日本自衛隊가 높이 評價되고 있다. 그리고 소련 評論家들은 日本 軍用航空機의 攻擊能力과 ロケット, 미사일등의 高性能에 대해 言及한 바 있으며, 自衛隊의 北海道配置에 대해 우려를 表示하고, 또한 自衛隊의 航空訓鍛을 '자극적'이라고 論評한 바 있다.

一般公開文獻에 나타난 見解가 반드시 政府의 見解를 언제나 正確히反映

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日本의 軍國主義非難이라든가 日本의 現在 軍事力에 대한 評價등에는 誇長된 點이 있다. 그러나 個人的인 面談을 通해 느끼는 것은 소련 專門家들이 事情을 보다 實現的이고 正確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여간 소련側에서 볼 때 日本 自體의 軍事力보다도 소련의 利益을 해칠 수 있는 아시아에서의 日本의 諸般行動이 더 문제가 된다.

이와 더불어 大陸中國이 소련의 戰略에 차지하는 比重은 대단히 크며 소련의 對日政策에 있어서도 中國에 對한 考慮가 크게 作用한다. 日本과 中國間의 軍事的 協力關係는 소련에게 커다란 威脅이며 더구나 日·美·中三國間에 法的은 아니더라도 實際上 反蘇의인 政治·軍事的 協力關係가 成立된다면 소련은 그것을 가장 深刻하고 重大한 威脅이라고 看做할 것이다.

### B. 日本側에서 본 소련의 對日 戰略的 價值

日本側의 解釋에 의하면 아시아에서의 소련의 政治的 目的是 그 地域에서 특히 美國·中國·日本과 對決하여 支配的 地位를 차지하려는 것이다. 그들의 見解에 의하면 소련軍의 主要焦點은 中國이며 中國이 힘을 強化시키는 어떠한 事態에 대해서도 至極히 敏感하다고 한다. 日本에 대하여는 소련이 다음과 같은 諸目的을 追求하고 있는 것으로 日本側은 判断하고 있다.<sup>(2)</sup>

① 日中間의 密接한 關係의 進展을沮止하며 中國包圍에 있어서 日本의 支持를 獲得한다.

② 日美間의 긴밀한 紐帶를 弱化, 斷絕시키고,

③ 日本의 中國 및 美國과의 關係를 代置할 만한 日蘇間의 密接한 關係를構築하도록 努力하여 적어도 日本으로 하여금 中立的인 立場을 취하도록 한다.

또한 日本은 소련의 對日政策에 시베리아 開發을 위해 日本의 資本, 技術을 切實히 必要로 하는 經濟的 要因도 作用한다고 보고 있다. 소련이 日本에게 커다란 戰略的 가치를 附與하는 理由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日本側은 解釋하고 있다.

① 敵對國이 日本을 소련, 特히 沿海州 및 東部시베리아에 대한 攻擊基地로 使用할 수 있다.

(2) 소련外交政策에 대하여 다음을 參照할 것. M. Kosaka, "Soren no Azia Seisaku," *Azia Kuotari*, Jan.-March 1973, pp. 98-104; T. Yano, "Soren no Gaiko to Azia," *Azia Kuotari*, Jan.-March 1973, pp. 105-133; J. Shishikura, "Soren no Senryaku," *Azia Kuotari*, July 1972, pp. 82-93; Asahi Shimbun Anzen Hoshyo Mondai Chosa Kai, *Soren Gaiko to Azia*, 1967.

② 소련에 대하여 友好的인 政權이 日本에 樹立되면 아시아 및 太平洋에 서의 소련의 作戰에 있어서 日本은 貴重한 基地가 될 수 있다.

③ 地理的으로 보아 日本은 소련의 海洋으로의 東部出入口에 位置하고 있다.

④ 對馬, 津輕, 宗谷의 三海峽은 소련 海軍의 死活의인 通路이며 津輕과 宗谷海峽은 沿海州로부터 캄차카와 츄클에 이르는 主要補給路이다.

소련의 立場에서 보면 日蘇間의 軍事協力이 不可能하다면 日本의 軍事力이 약하고 美國이나 中國과 同盟關係가 없는 狀況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한다고 있다고 日本側은 判斷한다. 또한 日本은 소련이 主唱해 온 集團安保體制를 소련이 中國을 포위하고 아시아에서 소련의 頑權樹立을 促進하기 위한 手段이라고 보고 있다.<sup>(3)</sup>

### C. 日本의 對蘇利益의 概念

그러면 日本側이 소련에 對하여 자신의 利益을 어떻게 定義하고 있는가? 日本은 美·蘇·中 三國間에 反日의인 同盟關係가 樹立되는 것을 沮止하는 것이 日本의 國家利益이라고 본다. 특히 中國과 소련 간의 親密한 관계가 成立되는 것은 日本利益에 背馳된다고 생각하고 있다(中蘇紛爭이 長期間 계속 하리라고 日本側은 判斷하고 있다). 同時に 中蘇 兩國間의 大規模의 軍事的인 衝突도 日本利益에 背馳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日蘇關係의 和解가 美中間의 結託을 擬제하는 作用을 하리라고 보고 있다.

美蘇關係는 基本的으로 平和共存이며 核軍事力의 均衡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하여 닉슨 大統領, 브레즈네프 書記長의 會談에서 象徵된 것과 같은 兩國間의 關係改善은 日本에게 有利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理由로서 日本自身의 소련과의 接觸을 促進시킨다는 것과 日本이 소련으로부터 느끼는 威脅感을 減少시킨다고 지적한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美蘇 관계가 호전되어 協力관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간혹 日本이 疑惑心이나 不滿을 갖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核非擴散條約問題<sup>(4)</sup>를 위요하여 ‘美蘇

(3) “Betonamu Sengo no Bei, Chu, So, no Azia Seisaku,” *Chosa Geppo*, June 1973, pp. 10-11; H. Yamada, “So-chu Kankei no Kako oyobi Shorai o do Miruka,” *Kokusai Jihyo*, July 1972, pp. 12-15; O. Miyoshi, “Soren Azia Seisaku no Shin Tenkai,” *Komei*, June 1972, pp. 66-71; K. Miyauchi, “Soren no Azia Shudan ampo koso,” *Kokusai Jihyo*, July 1972, pp. 44-49.

(4) 核非擴散條約에 관하여는 다음 論文을 참조할 것. “Kaku Kakusan Hoshi Joyaku no Imi suru Mono,” Nihon no Anzen Hosho Henshu Iinkai ed., *Kaku Jidai to Nihon no Kaku Seisaku*, 1978, pp. 21-50.

共同戰線'이라는 비난도 있었고 1973年 6月의 核武器使用에 관한 美蘇間의 합의로 인해 美國의 對日核保護에 관한 政策의 公信力이 低下한 경우도 있었다.

美中關係의 進展에 대하여도 日本側은相當한 의심과 우려를 갖고 注視하여 왔다.<sup>(5)</sup> 美國의 對中國接近이 혹시 日本利益에 해롭지나 않을까 하는 막연한 느낌이 있는 테다가 日本人이 말하는 '닉슨 쇼크'를 당하고 키신저의 對中國, 對日本外交에 직면하게 되어 美國에게는 日本보다 中國이 우선한다는 疑心을 짙게 갖게 되었다.<sup>(6)</sup> 특히 日本은 日美安保條約의 機能에 관하여 周恩來와 키신저 사이에 諒解가 있었다고 믿고 反撥한 일이 있었던 바 그것은 周·키신저會談에서 키신저가 日美安保條約은 日本의 軍事力增强, 日本軍國主義의 成長을 遏止하는 것이라고 說明했다는 보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소련과의 雙務의 關係를 말하자면 日本은 北方領土問題를 가장 重要한 政治的 爭點이라고 보고 있으며 소련에 대해 地方四個島嶼의 반환을 계속 要求하고 있다. 소련이 원하듯이 日本도 소련과의 關係를 條約과 같은 法的基礎 위에 공고히 만들어 '完全한 正常化'를 이룩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領土問題의 解決을前提로 한다는 立場을 취하고 있어서 아직 平和條約締結을 못 보고 있다.

原資材를 海外에서 거의 全的으로 輸入하지 않을 수 없는 日本으로서는 소련이 갖고 있는 방대한 연료 및 其他 天然資源에 接近하여 資源供給源을 多元화할 수 있다면 그것이 日本의 利益에 合致하리라는 것을 認識하고 있다. 그러나 同時에 소련과의 經濟關係強化가 갖는 政治的, 戰略的 含蓄性도 있어서 慎重한 자세를 취하여 왔다.

#### D. 日本 周邊의 軍事情勢 : 軍事威脅의 評價<sup>(7)</sup>

日本 防衛廳이 1979年 7月에 發表한 '日本의 防衛'라는 文書에 실려 있는

(5) *Azia Kuotari* 1972年 特輯 및 1971年 10月號 *Kokusai Jihyo*에 실린 Ishikawa, Kosaka, Kamiya, Iriye, Kotani의 見解 參照.

(6) "Beichukyodo Seimeい no Hamon," *Seikai Orai*, April 1972, pp. 34-35.

(7) 本項부터 第一章 끝까지의 軍事戰略問題에 관하여는 다음 文獻을 참조하였음. Kurisu Hiroomi, *Watakushi no Boei Ron*, 1978; Oriento Shobo, ed., *Jieitai Tatakawaba*, 1976; Oriento Shobo, ed., *Nihon no Boei Senryaku*, 1977; Kaihara Osamu & Kubo Takuya, *Genjitsu no Boei Rongi*, 1979; Mitsuoka Kenjiro, *Nihon no Rikujo Boei*, 1979; Suzuki Ryogoro, *Nihon no Boku Taisei*,

소련의 軍事態勢에 대한 評價를 一部 紹介하고자 한다. 1960年 前後의 아시아에서의 소련軍 配置는 美國 및 日本을相當히 意識하고 있었으나 1960年代의 中蘇對立의 激化, 특히 1969年の 中蘇國境紛爭을 契機로 中國도 의식하게 되어, 소련은 一貫하여 그 兵力を 增強하여 왔다. 地上兵力은 소련의 全 169個 사단, 약 183萬名中 그 1/4에相當하는 44個 師團, 40萬名 以上이 中蘇國境附近에 配置되어 있다. 그 중 極東(大概 바이칼湖 以東) 地域에 32個 師團, 30萬名 以上이 배치되어 있다.

航空兵力으로 말하면 소련 전체 作戰機 약 8,800대 중 그 1/4인 약 2,000機가 極東에 展開되어 있으며 이는 暴擊機 약 450대, 戰鬪機 1,450대, 그리고 哨戒機 약 140대로 구성되어 있다. 極東소련의 航空兵力은 前線, 遠距離, 防空, 輸送 및 海洋의 各航空部隊로構成되어 있고, 配置機數가 가장 많은 前線航空部隊는 주로 中蘇國境에 있으며 그 主目的은 中蘇國境에 配置되어 있는 소련 地上軍의 支援에 있다. 遠距離航空部隊는 주로 內陸地方에 配置되고 있고, 中國 및 아시아 周邊까지 그 行動半徑에 들어가 있다. 海軍航空部隊는 주로 沿海地方에 配置되어 있고 日本海(東海) 및 西太平洋에서 活動하고 있다.

海上兵力을 보면 소련 全體 艦艇 약 2,500隻, 479萬噸중 그 1/3정도인 약 770隻, 138萬噸을 갖고 있는 太平洋艦隊가 展開되어 있다. 同艦隊은 司令部所在地인 블라디보스톡외에도 페트로파블로프스크, 소후가와니 등을 主要基地로 太平洋에서부터 印度洋에 이르는 海域을 그 行動範圍로 하고 있다. 核戰力으로서는 蘇聯의 戰略미사일 전체의 약 30%로 생각되는 各種의 SLBM과 ICBM이 太平洋艦隊나 內陸地方에 配置되어 있고, 戰域核도相當數가 配置되어 있다.

이러한 蘇聯의 戰力이 最近에 이르러 量的, 質的으로 向上되어 왔다. 地上軍의 裝備增強으로 보아 소련 地上軍의 裝甲機動火力, 空中機動力, 對空能力등이 현저히 向上되었다. 航空兵力面에서는 MIG 23, MIG 27, SU-19

---

1979; Murakami Kaoru, *Hatsiju Nendai no Sekai Gunji Josei*, 1978; Kotani Hidejiro, *Chosen Hanto no Gunjigaku*, 1978; Kanagaki Shigeru, *Higashi Azia no Anzen Hosho*, 1978; Karube Tsutomu, *Beiso Kaijo Senrayku to Nihon no Kaijo Boei*, 1979; Boei o Kangaeru Kai, ed., *Waga Kuni no Boei o Kangaeru*, 1975; Boei Cho, *Nihon no Boei*, 1979; *Sekai to Nippon*, No. 176 (Tokushu: Kokubo Ron, 1977).

등의 配置로 對地攻擊能力, 對潛能力이 強化되었고, 從來의 TU-16 爆擊機에 대해서도 新型 空對地 미사일(ASM)을 塔載하여 스텐드·오프(stand-off)攻擊力의 向上을 企圖하고 있다. 海上兵力側面에서는 對潛 및 水上打擊能力의 向上, 周邊地域에 對한 水陸兩用戰能力의 向上, 海上輸送能力의 強化등을 들 수 있다. 또한 最近에는 끼에프級 航空母艦「민스크」, 까라級 巡洋艦 「페트로파블로프스크」 및 揚陸強襲艦 「이완로고프」가 블라디보스톡에 配置되고 新型爆擊機 「백파이어」의 極東配置도 생각할 수 있는 情勢이다.

끼에프級 航空母艦은 수직離着의 多目的 戰闘機와 對潛헬리콥터를 합해 약 30대를 갖고 있고, 對艦미사일, 對空미사일, 對潛미사일등의 裝備가 있으며 優秀한 搭載ability을 갖춘 對潛任務를 주로 하고 있고, 平時에는 소련 海軍力의 誇示 및 局地紛爭에의 介入手段으로 使用될 것으로 보이며 有事時には 地上基地航空兵力의 응호를 받을 수 있는 地域에서 艦隊의 指揮中樞로서 對潛作戰, 水上戰闘, 上陸作戰등에 使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끼에프級의 航空母艦이 極東에 配置되는 경우 制限의 것이라 하여도 소련 太平洋艦隊가 새로이 外洋에서 航空掩護能力을 갖게 되어 對潛能力 및 陸上에의 兵力投入能力을 強化하게 될 것이다.

「백파이어」는 可變翼을 지니는 中型爆擊機로서 最大速力 마하(mach)2 以上, 最大行動半徑 약 5,700km(無給油)이며, 射程距離 약 250km의 AS-4 내지 AS-6 미사일을 搭載할 수 있다고 한다. 그 使用用途는 空軍에서는 戰略目標攻擊, 戰術爆擊, 偵察등이며, 海軍에서는 艦艇, 특히 航空母艦機動部隊의 撃破, 海上交通의 泪止, 海上哨戒등이다. 이러한 高成能爆擊機가 極東에 配置되는 경우에는 防空, 日本周邊의 海上交通安保등의 문제에 注視해야 한다고 日本側은 보고 있다.

소련極東軍이 이와같이 增強됨에 따라 西太平洋에 있어서 美蘇 軍事均衡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러한 소련의 軍事的 ability을 日本의 防衛라는 立場에서 注視하여야 한다고 防衛廳은 보고 있다. 더구나 1978年 여름 以後로 소련이 구나시리(國後), 에도로후(擇捉) 兩島地域에 戰車와 各種火砲를 裝備한相當規模의 地上軍部隊를 配置하여 基地建設을 하고 있다고 指摘하면서 그 意圖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評價하고 있다.

極東地域에 있어서의 增強과 近代化를 위한 소련의 努力의 一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소련의 軍事戰略上으로 보아 北方領土 및 千島列島地

域 또는 오후쓰크海의 重要性, 現在의 國際情勢등에 대한 考慮가 作用했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련의 動機가 무엇이든 간에 그 地域에 있어서 軍事力이 存在한다는 것은 日本의 防衛에 있어서 重要한 關心事項이라고 말하고 있다.

軍事力增强과 함께 蘇聯의 艦艇, 航空機의 外洋進出 및 日本周邊에 있어서의 活動이 活潑해지고 있다. 過去 5年間의 平均值로 보면 年間 소련 艦艇 140隻이 對馬海峽을, 50隻이 津輕海峽을, 130隻이 宗谷海峽을 通過하고 있다. 그리고 年間 180回에 걸쳐 소련 軍用機가 日本周邊을 飛行하고 있다. 그러한 行動은 소련 海軍 및 航空部隊의 訓鍊度의 維持와 向上, 情報蒐集, 그 地域에 있어서 美國의 制海權確保에 대한 憲制, 艦艇등에 의한 소련 presence의 增大로써 아시아 地域에의 政治的, 心理的 영향력의 向上등을 企圖하고 있다고 日本은 보고 있다.

소련의 軍事力強化, 특히 海軍力增强에 日本은 敏感한 反應을 보이고 있다. 上記한 文書에 의하면 1950年代까지는 沿岸防備海軍에 不過하였던 소련 海軍이 오늘날 艦艇總數 약 2,500 (490萬噸)外에 「백파이어」 30機를 包含하는 作戰機 약 700臺를 所有하는 海軍航空隊, 5個聯隊로 構成되는 海軍步兵部隊등을 保有하여 世界 第二의 海軍力を 갖고 있다고 評價되고 있다. 그리고 各種 미사일을 搭載한 소련 海軍의 增强, 특히 原子力潛水艦, 高性能爆擊機등의 增强은 西方側의 制海權 確保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고 判斷하고 있다.

日本政府가 對外的으로 發表한 文書에 있는 것외에 다음에 民間軍事專門家가 어떻게 情勢를 評價하고 있는가를 보겠다. 民間人이라하여도 다음에 紹介하는 軍事評論家の 多數는 日本防衛廳 自衛隊의 重責을 歷任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現職을 떠난 立場에서 보다 率直하게 論評할 수가 있을 것이다.

前自衛隊師團長이 있으며 現在 軍事評論家인 三岡建次郎(미쓰오가 켄지로)氏의 推定에 의하면 소련 陸軍의 약 28~30個 師團이 極東地方에 配置되어 있으나 그 主力은 中國을 對象으로 한 것이고 日本에 대하여 使用될 수 있는 것은 機械化師團 9~10個, 空挺師團 1個, 海軍步兵聯隊 2個로 되어 있다. 蘇聯이 極東에 保有하고 있는 船舶 160萬噸의 60%를 作戰輸送에 充當한다고 보면 96萬噸이 된다. 一個 機械化師團을 위하여 25萬噸이 必要하다고 하

면三個의 機械化師團과 軍直屬部隊의 一部를 輸送할 수가 있다. 搭載, 航海, 上陸, 船舶補給, 整備등의 所要日數를 고려하면 二,三週內에 한번 往復할 수 있을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

現存하는 能力으로는 戰車 560대와 兵力 2萬 8千名을 輸送할 수 있으며 한번 往復하면 增強된 機械化 一側聯隊를 輸送할 수 있다. 그리고 소련 太平洋艦隊는 現在 保有하고 있는 船舶으로 두번 往復하여 一個 機械化師團, 5번 往復하여 二個師團과 海軍步兵 二聯隊를 輸送할 수 있으며 거기에 空挺部隊와 헬리콥터에 의한 空中機動部隊가 各已 增強되어 一個聯隊에 加해지면 合計 약 三個師團이 된다.

空軍은 極東에 있는 2,000~2,700機中 對日作戰에 1,000機以上을 使用할 수 있으며 事前의 航空作戰, 上着陸部隊의 航行援護, 戰鬪支援의 能力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소련 太平洋艦隊 125萬ton, 潛水艦 70隻, 主要水上戰鬪艦艇 70隻은 輸送護衛, 上陸支援에 充分하다고 본다. 以上을 綜合하면 第一次로 一個의 空挺師團과 機械化 2~3個師團, 그 후 2~3회 씩 2~3個 師團이 增強되어 10個師團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소련 師團의 火力은 日本師團의 2.5 내지 3배이며 彈藥補給量에도 커다란 差異가 있어 10個師團이라고 할 때, 그 戰力으로 보아 日本의 20個師團 程度에相當한다고 보고 있다.

前航空幕僚副長 및 航空總司令官을 歷任한 鈴木瞭五郎氏(스즈끼 료고로)의 推算에 의하면 소련 戰術航空戰力은 作戰機 8,600機中 그 1/4程度인 약 2,000機가 極東地方에 配置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 構成은 爆擊機 약 500機, 戰鬪機 약 1,400機, 哨戒機 140機로 보고 있다. 太平洋艦隊는 全蘇聯海軍兵力 약 2,420隻, 420萬ton中 1/3정도인 약 755隻, 133萬ton을 保有하고 있으며 그 内容은 巡洋艦 10隻, 驅逐艦等 80隻, 潛水艦 125隻이라고 보고 있다. 現在 保有하고 있는 125隻의 潛水艦中 약 50隻이 原子力潛水艦이며 潛水艦 및 水上艦艇에 裝備된 對艦・對空미사일 性能이 近年에 向上되어 이하한 強力한 水上打擊力, 水中攻擊力, 防空力은 日美 兩國의 制海權維持, 海上交通의 保護에 대한 重大한 威脅이라고 말하고 있다.

第二次大戰時 日本은 潛水艦과 航空機를 主力으로 하는 聯合國의 海上 및 航空戰力에 의한 海上交通破壞와 空襲으로써 聯合國에 의한 本土上陸作戰까지에도 이르지 못하고 敗戰하였다. 當時 聯合國은 마리아나 諸島를 戰略基點

으로 하여 硫黃島, 沖繩等 前進基地로 使用하였는 바 日本本土로부터 1,600 海里, 650海里, 400海里의 長距離를 克服하여 日本本土攻擊을 敢行하였다.

소련極東으로부터의 軍事的 威脅에 있어서 距離上으로는 東京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약 600海里(약 1,100km)이다. 그러나 北海島와 樺太 및 쿠릴諸島 사이는 至極히 短距離이다. 그리고 日本은 地形으로 보아 四個의 本島와 多數의 小島로 構成된 列島國家이며 一億이란 人口가 密集하고 있고 都市, 產業, 陸上交通, 港灣은 戰前보다 더 큰 規模로 되었고 原子力發電所도 各州에 建設되어 있다. 따라서 소련이 本格的인 大規模空襲을 하면 日本國民의 生存과 經濟的 繁榮은 短期間內에 破壞될 것이며 소련 太平洋艦隊가 日本周邊에서 海上交通破壞作戰을 自由스럽게 遂行하게 되면 物資不足을 招來하여 餓餓와 生產低下의 危機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소련은 그 巨大한 軍事力으로써 日本에 대하여 戰略核攻擊이나 核・非核兩用의 空襲, 海上交通破壞作戰, 着上陸侵攻作戰 어느 것이나 實施가 可能하다. 이에 대해 日本으로서는 이것을 抑止하거나, 抑止 못하는 경우 沮止, 擊退하거나 또는 被害를 最大限으로 局限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航空戰力과 防空體制를 優先의으로 整備해야 한다. 日本의 航空戰力은 現在 거의 全部가 陸上을 基地로 한다. 그 중 防空, 制空, 對艦攻擊, 對地上攻擊, 偵察, 早期警戒管制의 各機能은 航空自衛隊에 있고 海上哨戒, 對潛水艦作戰, 掃海, 機雷敷設의 各機能은 海上自衛隊에 있으며 그리고 對空射擊, 部隊機動觀測의 各機能은 陸上自衛隊에 分配되어 있으나 想定되는 소련極東으로부터의 侵攻威脅에 對處하기 위해서는 모두 不完全하고 不充分하여 日本으로서는 陸上을 基地로 하는 航空戰力 뿐만 아니라 航空母艦을 基地로 하는 海上航空戰力의 整備가 必要할 것이라고 鈴木氏는 指摘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美國과의 軍事同盟關係에 있고 近隣諸國과 友好的인 關係에 있다는 것이 國家防衛上 카다란 利益이라고 본다. 특히 美國과의 共同防衛戰略의 緊密度, 美軍前方展開戰力의 規模, 近隣友好國家들의 保有戰力과 日美兩國에 대한 友好協力度등은 日本防衛에 큰 영향을 끼치는 要因이라고 보고 있다. 近年에 이르러 日美防衛協力小委員會가 設置되었고, 有事時에 있어서의 日美共同對處에 관한 指針도 決定되었다.

極東에서의 소련의 航空戰力은 沿海州를 中心으로 100個 以上的 航空基地에 配置되어 있다. 가라후도와 에또로후에는 各己 戰闘機 二個飛行隊, 페트

로파블로프스크에는 戰闘機 一個聯隊와 爆擊飛行隊가 配置되어 있다고 한다. 日本에 대한 航空侵攻에 있어서 北海道地域만 하더라도 약 400機에 의한 大空襲이 될 것으로 鈴木氏는 보고 있다. 거기에도 海軍航空兵力을 합하는 空海航空兵力으로 보아 日本에 대한 本格的인 侵攻에 700機以上을 配當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戰闘機中 MIG 23과 SU-19는 거의 日本全國을 그 行動圈내에 두고 있고 기타 戰闘機도 北海道 東北地方의 大部分에 대하여 行動可能하다. 極東 소련軍의 空挺師團中 2個 내지 3個를 日本攻擊에 使用할 수 있고 上陸侵攻에는 地上軍 四個師團 以上 및 海軍步兵 10個 師團의 投入이 可能하며 海上交通破壞에 125隻의 潛水艦과 水上戰闘艇 90隻 以上을 使用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日本側의 航空戰力은 航空自衛隊의 RF-4EJ의 一個 偵察飛行隊와 F-1 支援戰闘機의 三個飛行隊, 海上自衛隊의 9-2J 陸上對潛機 16個隊이다. 따라서 日本側의 戰力增强이 必要하다고 專門家들은 말하고 있다. 日本側으로서는 海上交通保護에 力點을 두며 또한 소련의 海上交通破壞作戰을 牽制, 局限시키기 위하여 三海峽의 通航沮止를 重要視하고 있다.

日本의 前航空幕僚長이었던 石川貫之(이씨까와 강시)에 의하면 소련 空軍基地의 配置와 極東에 보유하고 있는 能力으로 보아 소련은 日本을 마음대로 料理할 수 있으며 日本을 主動的으로 攻擊할 수 있는 곳은 가라후도(樺太) 및 沿海州라고 한다. (가라후도는 距離上으로 250海里정도이며 北海道의 政治經濟의 中心인 札幌(삿뽀로) 주변 및 千歲(치또세)基地에 가장 가깝다. 에또로후 및 구나시리에도基地가 있으나 小型機用基地이다.) TU 95 라든가 TU 16 以上的 飛行機는 日本全土에 대해 行動을 할 수 있으나 戰闘機의 能力, 즉 에스코드 능력 혹은 上着陸支援을 위한 對日本 地上軍攻擊은現在(1976년) 北海道 및 東北一部가 限界이다. 따라서 日本의 北部는 가장 攻擊하기 쉬운 地理的 條件을 가지고 있어서 日本으로서는 대단히 對處하기 힘든 곳이다.

陸土幕僚長과 統合幕僚會議議長을 歷任한 中村龍平(나카무라 류헤이)氏도 北海道와 東北一部가 소련 戰術空軍의 行動半徑에 들어 간다면 그 地域이 危險性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소련은 可能한 한 短距離를 航行하여 上陸하기 위하여 北部에 侵攻할 것 같으며 空輸部隊를 投入하는 攻擊方法을 택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한 空挺師團은 海上으로

오는 上陸作戰部隊와 연결되어야 하므로 兩者間에 距離의으로나 時間의으로 너무 간격이 생기지 않도록 上陸作戰과 同時에, 혹은 연결시켜서 空挺作戰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上田一臣(우찌다 가즈도미) 前海上幕僚長은 上陸作戰이 실시될 경우에 日本의 海上自衛隊는 있는 모든 水上船艇 및 잠수함을 北方에 派遣, 反擊作戰을 펴게될 것이나, 거기에 대해 어느 程度의 對應ability이 있는가는 斷言하기가 곤란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소련이 上陸을企圖하면 北海道는勿論 日本全域에 대하여 맹렬한 爆擊을 가하는 등 海上 및 航空自衛隊를 격멸하려고 할 것이며, 上陸해도 安全하다는 時點에서 上陸作戰이 일어날 것이니 그當時 實際問題로서 어느 程度 海上自衛隊가 殘存하고 있을 것인가는豫想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石川氏는 上陸作戰의 前日, 혹은 前前日에 制空權을 다루는 交戰이 있을 것으로 본다. 美空軍의 援助는 24時間內로 可能하다고 하며, 따라서 소련으로서는 一日內로,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2, 3日內로 日本의 航空戰力を 撃滅시키려 할 것이다. 그리고 一週日이나 十日前부터 航空, 海上戰을 하고 그후에 上陸해 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소련이 하려고만 하면 24時間內에 日本北方의 制空權을 確保할 수 있다고 石川氏는 보고 있다.

美航空母艦이 日本에 와 있는 경우 약 12時間이면 戰鬪에 參加할 수 있으며, 구암으로부터는 2일, 필리핀으로부터는 약 4일, 말래 카해협 뒤쪽으로부터는 약 一週日이 걸리는 것으로 内田氏는 보고 있다.

植村氏(前航空幕僚監部防衛部長, 前北部航空方面隊司領官)에 의하면 航空自衛隊는 약 3日間 견디고 그 후는 美軍의 戰鬪參加를 期待하고 있다고 한다. 日本週邊의 海上防衛는 대체로 日本 海上自衛隊가 담당하나, 敵의 海軍部隊에 대해서는 그것이 日本週邊에 있는 경우의 공격은 日本이 하고,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美海軍의 協力에 기대하고 있으며, 日本沿岸으로부터 벌어진 海域에서의 敵海軍부隊에 대한 攻擊은 역시 美軍에게 기대하고 있다. 日本週邊海域에서의 海上通路의 保護는 日本이 獨自의으로 하나 遠方地域에서의 船舶의 保護는 日本과 美國이 責任을 分擔하여 共同으로 한다는 姿勢이다.

日本側에서 볼 때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소련부隊는 極東軍管區이고 그 외 바이칼湖以西의 자·바이칼軍管區의 兵力이 문제가 된다. 그러한 陸

軍配置의 重點은 블라디보스톡을 中心으로 한 沿海州 地方이다. 重點을 두는 이유는 그 곳에 兵力を 配置해 두면 서쪽으로 中共에 對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남서쪽으로는 韓半島에 進出할 수 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이나 나홋트가에서 배를 타면 日本 各地 어디로든지 進出할 수 있다. 따라서 日本은 沿海州地域의 소련陸軍을 가장 注視하고 있다. 그 뒤쪽에 豫備部隊의 것이 하바로프스크의 極東軍管區司令부가 직접 장악하고 있는 豫備兵力이고 그 뒤의 차·바이칼軍管區이다. 中蘇對立이 激化하여 소련陸軍이 極東에 增強된다는 사실은 對日侵攻兵力도 增強되는 것이라고 掘江正夫(호리에 마사오) 前陸上幕僚副長은 말한다.

소련이 어떠한 上陸作戰을 취할지는 모르나 第二次大戰式과 같이 輸送船으로 日本沿岸에 접근, 上陸用船舶을 내리고 그것을 이용하여 上陸하는 경우 한번에 四個師團의 輸送를 할 수 있는 것이 限界라고 掘江氏는 보고 있다. 그리고 空輸部隊의 경우 極東에 있는 輸送機器을 사용한다고 하면 한번에 半個師團 정도 두번이면 一個師團을 용이하게 投入시킬 수 있다고 한다.

日本은 소련이 大輸送船을 사용하지 않고 작은 船舶이나 헬리콥터등으로 横太로부터 侵攻하는 경우도 注目하고 있다. 北海道侵攻의 경우 戰鬪初期에 있어서 横太와 쿠릴의 基地는 重要한 가치가 있다. 소련은 직접 飛行場이나 防空미사일, 그리고 레이더를 파괴하지 않아도 對電力戰(Electronic Counter Measures)으로 無力化시킬 수 있다.

#### E. 軍事威脅 現實化의 要件

日本 專門家들은 소련의 威脅이 現實化하는 要件, 즉 소련의 侵攻을 招來할 수 있는 條件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① 歐洲에서의 戰爭等 소련이 世界戰略의 一環으로 日本을 侵攻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② 極東에 있어서 美國의 第七艦隊와 기타 軍事力의 低下로 美國의 公約履行이 不可能하다고 생각되는 情勢, 즉 日美安保條約이 法的으로 혹은 實質적으로 無效한 상황이 일어날 경우, ③ 日本 國內에서 內亂, 騷擾등으로 社會秩序가 混亂해질 경우, ④ 中東, 韓半島등에서 紛爭이 발생할 경우이다.

紛爭發生의 前提要件에 대하여 日本 專門家들은 軍事的側面에 있어서 美蘇의 戰略核戰力은 현재 全體的으로 一方이 絶對優勢가 아닌 均衡狀態인데 이 均衡이 무너질 때 위험한 상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 戰略核 以下,

즉 通常軍事力 側面에서는 中蘇關係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잡혀 있으나 中蘇對立이 緩和되거나, 소련의 海上戰力이 더욱 增強하여 海外基地를 取得하는 등 美國과 對決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을 경우 등으로 밸런스가 깨지는 때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요는 美蘇關係와 中蘇關係가 기본의 인 要因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中國이 極東에서 소련을 牽制하고 있고 따라서 歐洲에 있어서 소련의 NATO에 대한 積極的인 行動을 牵制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中蘇關係의 變化가 兩陣營의 힘의 밸런스를 깨뜨리는 커다란 要因이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例로 駐韓美軍의 撤收를 드는 專門家도 있다. 韓國의 經濟不振, 國內政治의 不安定과 같은 상황에서 美軍이 撤收하고 더구나 동시에 日本 國內에서 保守革新聯立政府 또는 革新主導型의 政府體制가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中蘇對立이 어떻든 간에 極東에서의 밸런스가 깨어질 것이라고 日本의 專門家들은 본다.

1979年 당시의 그들 見解를 要約하면 아시아에서 앞으로 均衡의인 대두리를 파괴할 수 있는 要因으로서 ① 中蘇關係에 있어서의 變化, ② 駐韓美軍의 撤收, ③ 臺灣을 囲繞한 美國·臺灣, 美國·中國關係의 變化, ④ 東南亞에 있어서 中蘇의 葛藤, ⑤ 中東石油資源을 둘러싼 紛爭, ⑥ 日本 國內體制의 기본적인 變化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 후 카터政權이 駐韓美軍撤收를 一時 推進하였다가 사실상 중단하였고 세번째 문제에 있어서는 1979年の 美中正常화로 적어도 形式的, 象徵的으로는 변화가 있었다. 또한 베트남의 캄보디아 侵攻, 中國의 베트남侵攻등 東南亞에서의 中蘇間葛藤이 激化되었고, 이란人質事件, 특히 소련軍의 아프가니스탄侵攻과 같은 事態는 石油資源을 둘러싼 美蘇關係에 極度의 冷却과 對立을 초래하게 되었다.

美中關係의 進展一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美國의 對中國 接近의 必要性一是 더욱 박차가 가하여져 安保面에서의 美中協議와 美國이 軍事利用이 가능한 高度技術, 裝備도 공급할 용의가 있다는 자세를 表明하기 까지에 이르렀다. 美國과 安保條約關係에 있고, 소련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中國과 1978年日中平和友好條約을 締結한 바 있는 日本은 中蘇等距離니 全方位外交니 하던 路線으로부터 앞으로 어떻게 實質的으로 對蘇關係를 調整, 修正해 나갈 것이냐는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소련軍의 大規模投入은 美蘇間의 밸런스에 일어나고

있었던 變化를 상징하는 것이며 적어도 소련側의 그리한 認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日本 專門家는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軍事介入 후에 보인 카터行政府의 對蘇強硬姿勢가 實質的인 措置로써 어떻게 실천되어 나갈 것인가를 日本은 注視하고 있다.

과거 수년간 소련은 中近東을 중심으로 페르사灣, 紅海, 印度洋, 地中海, 아프리카大陸등에 눈부신 進出을 하고 있다. 이러한 進出은 이 地域이 世界政治를 左右할 수 있는 石油地帶이며 그에 隣接한 重要戰略地帶인 까닭이다. 1977年부터 1978年에 있었던 이디오피아·소말리아紛爭에 대한 소련匪國家들의 介入은 그 一例이다. 소련은 이디오피아와 南예멘을 그 影響下에 두고 紅海를 支配하여 親美의 사우디아라비아에 壓力を 가하며, 이디오피아, 리비아, 알제리아를 연결하는 親蘇急進路線으로 親美의 이집트 包圍를 기도하여 왔다. 1978年 4月 아프가니스탄에서 親蘇派에 의한 쿠데타가 성공하여 이란에 충격을 주었고 中東에서 이라크, 시리아와 軍事援助를 통한 紐帶를 강화하여 왔다.

日本評論家 村上薰(무라까미 가오루)의 見解에 의하면 만약 80年代 어느 날 中近東地域을 무대로 大規模戰爭이 시작되면 소련은 아랍急進派諸國의勝利를 보장하기 위하여 美軍의 介入, 支援을 遏止하려고 할 것이며 NATO諸國에 대하여 美軍의基地使用을 거부하도록 歐洲에서牽制行動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狀況에서 소련의 軍事壓力 때문에 소련의 要求에 응하면 歐洲는 사실상 “핀란드化”하는 것이다. 또 소련의 要求에 굴복하여 中東石油를 소련의 영향 아래에 두게 될 때, 그것이 西方全體安保에 대한 威脅이라 하여 NATO가 共同步調를 취하면 소련의 歐洲에서의 電擊作戰을 유발하여 第三次大戰을 야기하게 될지 모른다고 한다.

歐洲와 中近東에서 大規模戰爭이 발발할 때에 아시아에서는 크지는 않을 것이지만 상당한 規模의 戰爭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소련은 美軍이 歐洲방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시아, 太平洋에서 第二戰線을 전개하려 할 것이다. 소련은 印度洋을 가장 重要親할 것인데 그것은 印度洋이 西方側을 위한 石油의 主要補給路이기 때문이다. 페르사灣으로부터 나오는 西方側 탱커를 擊沈하면 西方側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

美國側으로 보아도 印度洋은 모스크바 및 其他主要都市를 공격하기 좋은 지점이다. 印度洋과 페르사灣 海底에서 SLBM(水中發射戰略미사일)을搭載

한 原子力潛水艦은 Trident나 플라리스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西方側에 있어서 印度洋은 重要戰略水域이며 第三次大戰이 일어날 때에 이 곳에서 美蘇海軍의 全面衝突이 일어날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한 경우 美國本土—하와이—오스트레일리아—말레이海峽—印度洋을 연결하는 海上補給路는 海軍戰略上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日本—괌, 日本—필리핀 등의 海上補給路는 美戰略上에 있어서는 支線이 된다.

소련側에서 볼 때 中蘇國境의 소련軍을 歐洲에 이동시키기 위하여서는 베트남에서 中國과의 繁張狀態를 고조시켜 中國을牽制하며 本土로부터 印度洋에 이르는 美海軍補給路를 威脅하기 위하여 南支那海 통킹灣에 소련 海軍基地를 設置하여 出擊시키게 될 것이다. 소련戰略에 있어서 베트남의 槟榔灣은 커다란 重要性을 갖게 된다.

世界 第二의 產油國인 이란이 소련 力下에 들어가고 페르사灣入口의 훌무즈海峽을 소련이 封鎖하면 하루에 2千萬 배럴의 石油供給(全世界石油供給의 1/3에 해당)이 중단되어 西方經濟는 붕괴할 것이라 보고 있다. 美國이 이란에 軍事介入을 하고 이란 北部國境地帶에 소련軍이 진출하면 이란은 第三次大戰의 導火線이 된다.

前述한 이외에 소련이 第二戰線으로서 기도할 가능성이 있는 곳은 韓半島이다. 歐洲, 中近東을 중심으로 第三次大戰이 발생했을 때 소련은 아시아에 있는 美軍의 移動을 저지하기 위하여 韓半島에서의 武力衝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自己兵力은 제공하지 않고 軍事援助를 통하여 代理戰爭을 시킨다는 것이다. 그것이 또한 日本에 波及해 오는 것도 想定할 수 있다. 上記 시나리오를 想定하면서 80年代 中葉부터 90年代 初에 걸쳐 日本의 安全保障에 있어서 최대의 威脅은 소련의 軍事力이라고 村上氏는 말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 日本防衛에 대한 危機가 발생하느냐는 문제에 대해 1976年에 陸上幕僚長, 그리고 1979年에 統合幕僚會議議長을 歷任한 栗栖弘臣(구리스 히로요미)氏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日美安保條約이 有效하게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 때를 지적한다. 그는 全面戰爭의 경우 美國은 歐洲에 最重點을 두게 되어 條約의 發動이 不充分해질 경우를 말하고 있다. 즉 歐洲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一全面戰이 아닐 경우에도— 日美安保條約이 日本周邊에서 반드시 有效하게 機能을 발휘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中近東의 石油등을 囲繞한 武力衝突도 美軍의 日本周邊에서의 영향

력을低下시킬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日美安保條約이 適用되지 않는範圍, 즉 公海上에서 日本船舶이 공격받는 경우도 있고 美國에 대한 日本의 戰略的 價值가 감소되는 경우, 예를 들어 美中關係가 极히 緊密해진다면가 中蘇가 協調하는 경우 등을 지적하고 있다.

#### F. 소련 軍事力增強의 意味

소련의 軍事力增強, 특히 太平洋과 印度洋에의 軍事的 進出을 威脅으로 평가할 것인가는 문제에 대해 異論도 있다. 防衛廳 事務次官을 거쳐 현재 國防會議 事務局長으로 있는 久保草也(구보 다꾸야)氏의 見解를 여기 소개한다.

그는 소련의 太平洋, 印度洋에의 軍事的 進出을 美國이나 自由主義諸國이 키다란 威脅이라고 보는 것은 一面의인 見解라고 한다. 소련의 立場에서 보면 70年代에 들어서서 美國과 같이 世界國家가 되고 世界到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은 가지게 되었지만 “東西의 어떤 種類의 外國으로부터의 侵略可能性”이 있고 특히 美國軍事力의 威脅에 對備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면이 있다. 따라서 核戰爭에 대비하는 軍事力を 보유해야 하고 美國의 軍事的 攻擊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이전에 日本海軍이 하였듯이 太平洋에서 美海軍力を 저지할 수 있는 힘, 또는 美本土를 공격할 수 있는 힘을 갖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印度洋을 거쳐 潛水艦에 의한 美國側의 미사일 공격이 가능하게 되면 그것을 저지해야 하는 등, 소련 立場에서 보면 戰略的으로 소련을 防衛하고 美國을 抑止하기 위하여서는 太平洋과 印度洋에 軍事力を 강화시켜 두어야 한다는側面도 있다. 따라서 소련軍事力이增强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써 自由陣營에 대한 威脅이라는 것은 지나친 見解이고 소련側으로 볼 때 防衛的 進出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久保氏는 또 하나의 政治的 意味를 지적하고 있다. 소련 고르슈코프元帥의 著書에 있는 내용과 같이 軍事力を 政治的 影響力으로 사용한다는側面이 있다는 것이다. 소련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지만 아직 經濟力이나 技術力에 있어서는 不足하고 이데올로기의 힘도 작다. 따라서 소련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은 軍事力이 된다. 經濟援助, 技術援助를 통하여 政治力を 행사하는 대신 軍事力を 통하여 政治的 影響力を 각국에 행사하고

자 하는 것이다. 印度洋이나 太平洋에 있어서의 소련의 進出과 presence를 그런 성격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久保氏는 말하고 있다.

久保氏와의 對談에서 海原治(가이하라 오사무：前 防衛廳 防衛局長, 官房長 및 國防會議 事務局長 歷任)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海軍力에 한하지 않는 소련 全體軍事力은 日本의 見地로 볼 때 目前의 强大한 陸海空兵力으로 존재한다. 極東소련軍의 配置를 볼 때 소련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膨大한 軍事力を 이 方面에 配置하고 있는가? 軍事力이란 장차 절대로 使用할 기회가 없다며는 配置해 둘 필요가 없는 것이다. 소련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므로 配置하고 있을 것이다. 日本 自衛隊은 陸海空 모두 합하여 26萬 7千名의 自衛官밖에 없다. 바로 눈앞에 그려한 膨大한 陸海空勢力이 있다는 자체가 威脅이다. 소련이 진정으로 平和共存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兵力を 둘 필요가 없다. 하여간 소련이 極東에 그와 같이 커다란 軍事力を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現實의 威脅이다.

前海上自衛隊 橫須賀地方總監이었던 海將 石隈辰彦(이시구마 다쓰히코)氏의 설명에 의하면 소련은 第二次大戰에서 海上勢力이 國家의 發展과 安全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한다. 海上에 있어서 소련의 對抗勢力이 되는 것은 美艦隊이고 그 중 특히 航空母艦機動部隊와 水陸兩用戰部隊이다. 이에 對抗하기 위하여 소련은 海軍力を 育成해 왔다. 1960年代에 들어와 고르슈코프 海軍司令官은 소련海軍의 海外展開를 강력히 推進하였다. 그 후의 소련海軍의 增強은 政治的인 立場에서 自國의 影響力を 海外에 뻗치는 수단으로 생각하였다. 소련은 大陸國인데 自國의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할 地域은 東南亞, 아프리카南半部등 상당한 거리가 있는 地域이다. 따라서 陸空軍力만 가지고는 안되고 海軍力を 增強, 整備하여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日本防衛廳이 작성한 白書 ‘日本의 防衛’에서 소련의 軍事力增强의 動機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기로 한다. 白書는 美國防省이나 NATO 文獻 등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美國은 1980年度 國防報告에서 소련이 美國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軍事面 뿐이기 때문에 軍事力を 강화하여 政治的 影響力を 높이려 하고 있고 소련軍部와 產業의 관連성, 政府의 官僚的 惣性과 軍備增强이 연결되어 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이 외에 美國에 대항하여 階級鬭爭, 民族解放鬭爭을 지원하는 등의 側面도 看過할 수 있다고 하

고 소련軍事力의 實態는 1979年度 春季 NATO 防衛計劃委員會 最終커뮤니케 등에 나타나 있는 “純粹한 防衛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以上”의 귀결로써도 평가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最近 구나시리와 에또로후 兩島地域에서의基地建設과 軍事力의 再配置에 대하여 그 의도는 推定할 수 밖에 없다고前提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近來 소련은 極東地域에서 軍事力의 增強과 近代化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의 一環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소련의 軍事戰略上의 觀點에서 보면 北方領土 및 쿠릴列島地域 혹은 오후츠크海 등의 地域의 重要性과 현재의 國際情勢 등을 고려한 결과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다. 하여간 그러한 地域에 軍事力이 존재한다는 것은 日本防衛上 중요한 關心事이고 今後 그 動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慎重하다고 할까 애매한 표현은 防衛廳內部 및 外務省과의 意見調整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지만 이러한 표현이나마 防衛廳 公式文書에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日本內에서 防衛問題에 대한 論議의 현저한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政治狀況의 변화를 示唆하는 것이다.

소련軍事力의 增強과 함께 소련艦艇, 航空機의 外洋進出 및 日本 周邊에서의 활발한 활동에 관하여 防衛廳白書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한 활동은 소련海空軍部隊의 戰闘姿勢의 維持와 向上, 情報蒐集, 이 地域에 있어서의 美國의 制海權 確保能力에 대한牽制, 그리고 艦艇등에 의한 presence의 增大로 아시아 地域에 대한 政治的 및 心理的 影響力의 增大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G. 日本側의 美蘇 軍事力 比較

日本 專門家들이 美蘇軍事力を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의 問題는 日本의 國防 및 外交政策에 큰 영향을 준다. 먼저 防衛廳이 발표한 公式見解에 나타난 것을 보면 신중하고 애매한 표현을 하고 있으나 참고삼아 살펴보기로 한다. 全體的인 現狀으로 보아 美蘇間의 戰略核의 ベルанс는 유지되고 核戰爭의相互抑止關係는 확보되어 있다. 戰略核武器의 사용도 이것이 全面戰爭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절대적 보장이 없기 때문에相互抑止되어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美蘇間의相互抑止關係는 반드시 모든 通常戰爭같은 것의 抑止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다시금 通常戰力의 가치를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同文書는 西太平洋에 있어서의 美蘇海軍力의 밸런스에 대하여 언급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美蘇兩國의 西太平洋에 있어서의 海軍力を 보면 美第七艦隊의 制海確保의 任務에 대한 소련太平洋艦隊의 外洋海域에 있어서의 打破能力을 위하여 소련은 스탠드·오프(stand-off)性能을 가진 ASM을 실은 TU-16 같은 大型機나 艦對艦미사일(SSM)을 裝備한 潛水艦을 주로 하여 美第七艦隊를 공격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第七艦隊는 航空母艦을 중심으로 하는 航空戰力を 保有하고 있고 自體艦隊防衛를 위한 충분한 對潛能力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련이 이를 打破하기에는 상당한 희생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大陸沿岸같은 海域에서는 소련의 陸上基地에 배치된 航空機의 활동을 고려하면 소련의 공격능력은 증대된다. 이상과 같은 경우兩側의 相對戰鬪力은 空對艦미사일, 潛水艦發射미사일의 擊破能力, 同미사일에 대한 防衛力等兩者가 보유하는 兵器體系 또는 집중시킬 수 있는 航空機數, 즉 後方支援能力 등과 같은 要因에 좌우될 것이라 보고 있다. 소련 太平洋艦隊에 新型爆擊機 백파이어가 배치되면 艦船攻擊能力은 대폭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最近의 소련 兵力整備狀況과 訓練의 傾向등으로 판단해 보면 소련海軍이 對潛能力을 重視하여 그것을 強化시키려 하고 있으므로 키에프級의 航空母艦이 배치되는 경우 그 능력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이 경우 美海軍은 制海確保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對應措置가 필요하다.

美第七艦隊는 海上交通路의 維持能力에 있어서 自隊防衛를 위한 對潛能力은 충분하나 兵力量으로 보아 一般船舶을 印度洋 및 西太平洋 全域에 걸쳐 防衛하는 能力은 不充分하며 소련의 海上交通遮斷能力을 완전히 저지하기 곤란할 것이다.

基地 및 後方支援戰力에 있어서 第七艦隊는 西太平洋에 前進基地를 保有하고 있으니 충분하나 소련 太平洋艦隊는 主要한 基地가 內海에 所在하고 또한 極東地域에 있어서의 後方支援基盤의 脆弱性으로 制約이 있다. 그러나 소련軍이 印度支那에 있는 港灣, 空港등을 사용할 때 그 使用樣相 및 頻度에 따라서는 소련이 지니는 上記制約要因을 緩和시키게 된다. 특히 소련이 인도지나의 港灣, 空港등을 恒久的으로 사용하게 되면 印度洋, 南支那海 등을 포함한 地域에 대한 소련의 哨戒, 偵寢能力, 局地紛爭介入能力, presence ability 그리고 極東과 이러한 地域間의 中繼補給能力등이 증대할 가능성

이 있어서 使用形態에 따라서는 美蘇의 軍事밸런스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리하여 當該地域의 安全 및 日本의 海上交通路의 安全에 영향을 끼치고 이러한 地域周邊에 있는 西方側諸國의 行動에 制約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理由때문에 日本으로서는 소련軍의 인도지나에 있어서의 港灣, 空港등의 사용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다고 防衛廳文書는 말하고 있다.

최근까지 自衛隊 制服最高責任者이었던 栗栖氏(前統合幕僚長)가 美蘇의 軍事力에 대하여 평가한 것을 보면 흥미있다. 戰略兵器面에서 數字上이 아닌命中精度등을 고려하면 밸런스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있고 戰術核은 美國의 分析에 따르면 美國이 우세하다고 되어 있다. 이 외에 地上軍, 海軍 및 戰術空軍등을 보면 숫자상으로는 소련이 優位이다. 그러나 訓練程度, 兵力의 質의 程度, 指揮官의 應用能力, 後方兵站能力등은 美國이 優勢하다고 한다.

美蘇의 밸런스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同盟國과의 관계인데 소련은 巴르샤바條約軍이나 中共이 소련에 반대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兵力を 배치하여야 하는데 비하여 美國은 NATO諸國, 日本,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등 확실한 同盟國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나라들을 “total force”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으로 세계적인 觀點에서 보면 美國이 단연 우세하다라고 栗栖氏는 말하고 있다.

美國이 베트남戰爭으로 5년간 늦어졌지만 1982年을 목표로 5년간 늦어진 것을挽回하려 하고 있고 상황은 1983年, 84년이 되며는 단연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NATO도 3년 내지 5년내에 改善하려고 努力하고 있다. 따라서長期적으로 보면 소련側이 石油도 적어지고 勞動力, 兵員數도 적어지며 農業問題도 크고 해서 西方側이 더욱 힘을 갖게 되는 추세라고 栗栖氏는 보고 있다.

다음에 前統合幕僚會議議長과 陸上 및 海上自衛隊幕僚長등을 포함하는 國防研究會가 1977년 발표한 文書를 보기로 한다. 럼스펠드 前美國防長官이 1977년 1月 提出한 國防省報告書에는 美上院軍事委員會의 년, 바아트렛 兩議員의 「NATO와 소련의 새로운 威脅」이란 報告書와 카터大統領이 5月 NATO首腦會談에서 發言한 內容을 검토한 결과, 美・蘇의 軍事關係의 實像을 다음과 같이 把握하고 있다.

今日의 美蘇關係는 戰略核戰力에 있어서는 美蘇가 거의 均衡을 이루며 戰

域核戰力과 通常戰力에 있어서는 소련이 優位에 있는 경우(가)부터 소련이 戰略核戰力에서도 優位를 차지하는 경우(나)까지 推移할 수도 있는 狀況에 있고 그것에 대해 1976년부터 시작한 美國의 노력은 그 趨勢를 逆轉시켜 적어도 戰略核戰力 뿐 아니라 戰域核戰力과 通常戰力에 있어서도 美蘇가 거의 均衡을 이루는 경우(다)로 復歸시키는 것을 目標로 하고 있다.

(가)와 같은 現狀에 가까운 狀態에서 주로 戰域核戰力과 通常戰力を 使用한 美蘇戰爭의 發生은 可能하며 萬若 現狀이 (나)의 경우로 變化하였을 때에는 以上의 可能性外에 소련은 여유를 가지고 美國에 戰略核戰爭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하여 (가)에 가까운 狀態에서 (다)의 狀況까지 復元시킬 때까지는 美蘇戰爭의 可能性은 論理的으로 否定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美蘇 軍事關係의 추세를 放置해두면 1980年代 前半에 危機가 올 수 있다고 술레신저 前國防長官이 말한 바 있는데 이것은 (다)를 위한 美國의 노력이 1980年代 前半까지 結實을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문제는 美國이 現狀況을 (가)의 경우가 아니라 (다)의 경우로 復元시키는 날까지의 期間에 있다고 國防研究會 報告書는 말하고 있다.

日本側이 有事時에 있어서의 美國의 支援形態나 그 可能性에 대해서 어떻게 判斷하고 있나를 보기로 한다.

美軍이 支援하는 조건으로서는 日本自身이 나라를 防衛할 決意를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日本을 放棄하면 美國과 其他 自由諸國에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美國이 항상 잘 인식하게 하여 日本과 防衛에 관하여 충분히 協議가 되어 있어야 한다. 日本은 美軍이 攻擊側面을 담당해 주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沿海州를 공격하게 될 때 飛行機가 일정한 거리에 있어야 하는데 美國이 四個飛行團(약 300機)으로 支援한다 해도 그 300機를 받아들일 적당한 飛行場이 부족하다.

소련의 하바로프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톡 부근까지의 兵力配置로 보아 그것을 공격하는데 200 내지 300機로는 不可能하며 美國이 상당한 兵力を 集結해 두고 해야 한다. 第七艦隊의 攻擊機 가지고는 부족하며 航空母艦이 制空權問題로 日本海에 進入하기 힘들고 太平洋에서 出發한다면 太平洋으로부터 沿海州까지는 500마일 이상이기 때문에 航續距離問題가 생긴다.

美蘇가 日本만을 위하여 戰術核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石川 前 航空幕僚長은 보고 있다. 만일 소련이 心理的 效果를 노려 戰術核을 一發이라도

사용하면 日本은 손을 들게 될 것이다. 中村龍平 前統合幕僚長의 말에 의하면 美太平洋軍에 있는 兵力으로 어느 정도 對應하고 부족한 부분은 美國本土로부터 갖고 올 것이다. 그런데 美國本土에 배치된 陸軍師團, 海兵師團의 運用은 歐洲情勢와 관련되어 있어서 이를 어느 정도 아시아에 파견할 수 있는가는 그때 情勢에 따를 것이다. 美本土로부터의 海空部隊의 增援速度는 빠르겠으나 陸軍師團은 船舶, 大型輸送機에 依存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日數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美陸軍이 日本에 와서 援助한다는 것은 상당히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보고 있고 美陸軍이 有事時에 大量으로 즉각 介入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妥當하지 않다는 것이다.

日本으로서는 문제를 極東에만 한정하지 않고 소련이 極東에 進出하면 문제가 세계적으로 펴지는 事態로 발전하는 것, 즉 日本이 세계경제에 지니는 영향으로 보아 日本에 대한 危險은 세계 전체, 특히 西方側의 基本的인 安定을 해칠 것이고 따라서 세계로 위협이 波及한다는 認識이 커지면 그것이 하나의 抑止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日本의 戰略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對蘇戰略上 中國과 緊密하게 되어 中國을 我側陣營에 넣어 두면 소련은 中蘇國境에 문제가 일어날 때 極東까지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內田 前海上幕僚長에 의하면 美航空母艦의 來援을 期待하려면 海上自衛隊에서 對應策을 찾아야 한다고 한다. 宗谷, 津輕, 對馬海峽을 통하여 적어도 시베리아로부터 나오는 潛水艦을 抑止하여 第七艦隊가 行동하기 쉽게 하는 것과 같은 협력을 日本 海上自衛隊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第七艦隊의 存在가 상당한 抑止力이 되어 왔으니 海上自衛隊가 할 수 있는 것은 第七艦隊를 早速히 끌고 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그 周邊海域이 潛水艦에 대하여 비교적 안전한 상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自衛隊의 對潛能力을 강화해 두는 것이 日本防衛上 대단히 필요한 것이다.

他地域에서 美軍이 동시에 介入해야 할 事態가 발생했을 때 日本에 지원하려 오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異論이 있다. 内田氏의 見解에 의하면 반드시 支援을 할 수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로서는 동시에 여기저기서 紛爭이 일어나는 事態에 있어서 美國의 基本的 戰略構想은 大陸으로부터 내려가 섬을 防衛하는 것, 즉 日本, 臺灣, 菲律賓 自體를 防衛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 가장 큰 威脅이 되는 것은 作戰展開上 後方의 基地가 되는 시베리아이다. 따라서 시베리아에 대한 美

‘國의 對應策이 가장 중요하며 有事時에는 공격자세를 취할 것이다.

요컨대 美國側으로 보아 極東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日本일 것이며 日本이 陷落되면 極東自由圈 全體가 崩壞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따라서 美第七艦隊의 制空權下에 日本을 두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美國民의 感情으로 보아 日本도 중요하지만 歐洲에서의 戰況을 더욱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소련의 주의를 極東으로 끌어 두는 것, 즉 美國의 第二戰線이란 戰略도 생각할 수 있다.

上記한 軍事面으로 본 美軍支援問題외에 보다 큰 戰略的인 側面에서 美國에의 依存, 安保體制의 長期的인 有效性에 대한 懷疑的인 見解도 있다. 이 점에 관한 前統合幕僚議長 栗栖弘臣의 謂언은 주목할만 한 점이 있다.

美·日·中の 對蘇包圍網 云云하는 論議가 있는데(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지만) 이것도 戰略選擇의 하나의 option이다. 그러나 日本은 孤兒가 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은 소련과 美國이 敵對視하는 것을 촉진 내지 유지한다는 大前提下에 있는데 그것이 과연 계속될 것인가의 문제와 中蘇가 和解했을 때 美國이 戰略을 轉換, 美國防衛線이 후퇴하여 日本이 벼랑밭을 가능성은 排除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소련에 대하여 美國과 中國이 정말로 손을 잡았을 때 美國은 中國이 日本보다 훨씬 將來性이 있다고 볼지도 모른다. 美國이 日本을 필요로 하는 것은 大陸을 封鎖하고 있는 地理的 環境외에 工業力 정도이다. 工業力은 資源이 없으면 안된다. 中國은 四個의 近代化로 21세기가 되면 工業力도 상당히 높아진다. 따라서 美國으로서는 日本의 工業力에 기대하는 것보다 오히려 中國의 將來性있는 工業力과 廣大한 市場에 기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對潛用의 軍事技術이 더욱 진전하게 되면 三海峽을 封鎖한다는 戰略의 位置自體가 美國이 보기에 低下되고, 지금은 軍事技術의로 소련海軍을 공격하는 手段이 거기까지 未達하여 地理의 重要性이 크지만 20년 후에는 그 중요성이 지금과 같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면 美國의 立場에서 볼 때 日本의 地位는 下落할 것이다. 따라서 日本으로서는 상당한 覺悟와 準備, 그리고 長期的인 展望이 서지 않는 한 美國이 요구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一環을 담당하겠습니다”하는 安易한 생각은 어떨른지 의문이다.

日中接近은 생각할 수 있는 妥當한 戰略의 하나이므로 그 政策을 推進하거나 또는 全方位外交路線을 採擇하여 이번에는 소련과 어떤 交涉을 한다든지,

그前에 美國에 대하여 지금의 日美安保는 輪郭만 있고 알맹이가 없으니 지금부터 내용을 더 충실히 한다든지 하는 政策을 遂行할 필요가 있다. 歷史的으로 보아 한 나라와 100년이나 同盟條約이 계속된例는 없었다. 美國이 心情의으로 日本과 結束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브라운長官의 國防報告書에도 NATO와의 사이에는 文化的, 歷史的, 기타 經濟的 紐帶가 있다는 얘기가 있으나 極東에서는 經濟的 紐帶 정도 밖에는 言及하고 있지 않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評價가 변화할 수 있다. 피의 關係, 文化的 關係, 이런 것들은 수천년 동안 계속된 것이니 그리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日本人으로서는 冷嚴한 눈으로 보아야 한다.

日本을 어떤 나라가 侵攻할 것인가는 문제에 대하여 栗栖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能力面에서 보면 현재는 소련과 美國을 들 수 있고 意圖面에서 보면 소련이 현재는 없을지 모르나 가질 수 있는 可能性은 상당히 존재한다. 美國이 日本에 대하여 그러한 의도를 갖는다라고는 현재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世界情勢의 趨移와 美國의 國家利益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는 100% 美國의 의도가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保證은 없는 것이다.

### III. 領土紛爭

戰後 日蘇關係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여러 要因中에서 가장 基本的이고 해결하기 곤란한 것이 兩國間의 領土紛爭, 즉 日本側에서 말하는 所謂 北方領土問題이다. 第二次大戰 末期에 소련은 문제의 諸島嶼를 占領하였고 그후 소련의 영토로 編入한 것으로서 이 領土問題로 인하여 日蘇關係는 커다란 영향을 받아 왔다.

이 領土問題를 다음 순서로 檢計하고자 한다. 첫째 日本의 領土權 主張의 根據, 둘째 美國政府의 立場, 세째 소련政府의 主張, 네째로 1956年後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兩國間 紛爭 및 交涉의 經緯, 다섯째 1973年的 頂上會談, 여섯째 소련側의 領土返還 拒否의 真意, 일곱째 日本側 領土權 主張의 真意와 領土問題에 대한 各政黨의 見解이다.

日本側 領土權 主張을 검토하기 전에 문제의 諸島嶼를 紹介하겠다. 日語로 北方領土라 할 때 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廣義로는 第二次大戰前 日本主權下에 있었던 日本本土의 北方 및 東北方에 모여 있는 모든 島嶼를

말한다. 즉 南部사하린(가라후도), 全쿠릴列島(日語로는 千島列島) 및 北海道近傍에 있는 시끄단 및 하보마이島를 포함한다. 다음에 狹義로서의 北方領土란 용어는 南部쿠릴, 즉 에또로후(擇捉), 구나시리(國後)島와 시끄단(色丹) 및 하보마이(齒舞)를 稱한다. 日本政府가 소련에 대해 返還을 요구해 온 것은 狹義의 北方領土, 즉 구나시리, 에또로후, 시끄단 및 하보마이를 말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北方領土라 할 때는 狹義의 범위를 말한다.

쿠릴列島란 北海道에서 김차카 방면의 東北方으로 향하여 약 750海里에 이르는 一連의 諸島嶼이다. 하보마이는 小群島이며 시끄단과 더불어 北海道東部沿岸에 위치하고 있다. 全쿠릴列島의 면적은 9,958km<sup>2</sup>이며 소위 北方領土만의 全面積은 약 4,996km<sup>2</sup>이다. 에또로후의 면적은 3,139km<sup>2</sup>, 구나시리의 면적은 1,500km<sup>2</sup>, 시끄단의 면적은 255km<sup>2</sup>이며 하보마이 群島의 면적은 102km<sup>2</sup>이다. 그리고 第二次世界大戰前에 北方領土에 居住하던 人口는 약 16,500名이었는데 이들은 주로 漁夫와 農民이었다.<sup>(8)</sup>

#### A. 日本側 領土權 主張의 根據

##### 1. 日本固有의 領土라는 主張

日本側 主張의 가장 主要한 근거는 문제의 諸島嶼가 日本 고유의 領土로서 他國의 管轄權下에 있었던 일이 없었으며 러시아도 언제나 南部쿠릴을 日本領土로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日本側은 그러한 주장에 關聯하여 日本國・露西亞國通好條約(1855년의 下田條約)과 樺太・千島交換條約(1875년의 St. Petersburg 條約)을 援用한다. 下田條約 第二條에 의하면 日本國과 露西亞國間의 境界線은 에또로후島와 우룻뿌島 사이에 있으며 에또로후島는 日本에, 우렛뿌島부터 北方의 쿠릴諸島는 러시아에 속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또한 樺太島에 관하여는 日本과 러시아 사이에 國境을 설치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兩國 國民의 混住地로 한다고 合意를 보았다.

樺太・千島交換條約 第1條는 樺太一部에 대한一切의 權利를 日本이 러시아에 양도함으로써 次後 樺太 全島가 러시아帝國에 속하며 라 뼈루즈海峽(宗谷海峽)으로 兩國의 境界를 정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또한 第2條에 의

(8) Japap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Northern Territorial Issue*, 1970; E. Noto, *Minzoku no Higan*, 1971. 그리고 쿠릴列島史로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H. Yamamoto, "History of the Kuriles, Shikotan and the Habomai Islands," *Contemporary Japan*, Oct.-Dec. 1951.

하면 러시아는 横太島에 대한 權利를 취득한 대신 숨슈島로 시작하여 우홋  
뿌島까지에 이르는 에또로후島 以北의 18個 쿠릴群島에 관한一切의 權利를  
日本에 양도한다고 規定되어 있다.<sup>(9)</sup>

이와같이 兩條約의 規定은 에또로후 및 구나시리가 他國에 속한 적이 없  
었던 日本固有의 領土라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日本側은 주장  
하고 있다. 그리고 하보마이와 시쿄단島는 北海道의 一部라는 것이 日本의  
주장이다. 하여간 日本이 返還을 요구하고 있는 四個島嶼는 러시아로부터  
이양받은 쿠릴群島(The Kurile Islands)와는 명확히 구별되고 있었다고 日  
本側은 지적한다. 그 후 1905年 日露戰爭後 포츠머드(Portsmouth) 條約에  
의하여 北緯 50度 以南의 横太를 러시아가 日本에게 양도하였던 것이다.

## 2. 소련側 主張에 대한 反證으로 내세우는 日本側의 法理論

後述하는 바와 같이 소련의 領土權 主張은 戰時 聯合國間의 諸協定과 1951  
年의 샌프란시스코平和條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한 日本側의 反論  
은 日本이 알타協定의 當事者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하여 拘束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1945年 2月 11日 美國, 英國, 蘇聯에 의해 서명된 알타協定에는 다음과  
같은 規定이 있다.

“1904年 日本의 背信的 攻擊에 의하여 侵害된 러시아國의 舊權利를 다음  
과 같이 회복시킨다. 즉 横太의 南部 및 그에 인접한一切의 島嶼는 소련聯  
邦에게 返還되어야 한다. 또한 쿠릴(千島)列島(The Kurile Islands)는 蘇聯  
邦에게 引渡되어야 한다.”

그러나 日本側 見解에 의하면 國際法上 어떤 나라도 當事國의 同意없이  
第三國의 領土를 處分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알타協定으로 日本의 南  
横太 및 쿠릴列島에 대한 主權이 소련에게 移讓되었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日本側은 소련이 알타協定을 참고한 자체가 兩國의 領土保  
全, 不可侵을 보장하고 있는 日蘇中立條約에 위반되는 것이라 보고 있다.<sup>(10)</sup>  
이 中立條約은 1946年 4月까지 有效期間이 지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알타協定은 聯合國間의 共同目標를 나열한 一文書에 불과한 것인지 領土處  
理를 正式으로 決定한 國際協定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하튼 日本은 알타協

(9) J.A. Harrison, *Japan's Northern Frontier*, 1953, pp. 165-174.

(10) Nampo Doho Engo Kai, *Hoppo Ryodo Mondai Shiryo Shu*, 1966, p. 151.

定의 當事國이 아니며, 日本이 降伏時 受諾한 포츠담宣言에 알타協定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으니 알타協定을 근거로 소련이 領土權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日本側의 反論이다.<sup>(11)</sup>

1945年 7月 26일에 발표된 포츠담宣言에는 南樺太나 쿠릴列島에 대해 아무런 言及도 없다. 第 8項에 의하면 카이로宣言의 條項이 이행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과 日本國의 主權은 本州, 北海道, 九州 및 四國과 “우리들이 決定하는 諸小島에” 限定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다. 日本은 포츠담宣言을 수락하였으며 降伏時에 포츠담宣言 條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誓約한바 있다. 1943年 11月 27일의 카이로宣言에는 領土不擴張의 原則이 明記되어 있고 日本領土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變更事項을 밝히고 있다.

1914年 第一次 世界大戰 開始 以后 日本이 탈취 또는 점령한 太平洋에 있어서의 一切의 島嶼는 剝奪되어야 하며 또한 滿洲, 臺灣등과 같이 日本이 清國人으로부터 盜取한 一切의 地域은 中華民國에게 返還되어야 하며 “日本國은 또한 暴力 및 貪慾에 의하여 日本國이 略取한 其他 一切의 地域으로부터 驅逐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日本側의 해석은 카이로宣言에 明記된 變경사항이 聯合國을 위한 領土上의 變更事項이며 그 외의 領土變更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日本側은 포츠담宣言의 “暴力 및 貪慾으로” 略取하지 않은 地域을 日本으로부터 剝奪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다.<sup>(12)</sup> 따라서 日本의 見地에서 보면, 소련은 北方領土를 계속 점령함으로써 領土不擴張의 原則을 違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문제는 포츠담宣言에 의하여 日本主權下에 남게 된 地域이 카이로宣言에 의해 日本이 상실한 지역에 該當하느냐 하는 것이다. 포츠담宣言에는 四個의 主要島嶼에 관한 명백한 規定이 있으나 나머지 諸小島에 관하여는 聯合國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日本側 見解에 의하면 聯合國에 의한 그러한 決定이 없었으며 포츠담宣言은 그 해석에 있어서 카이로宣言에서 말하는 領土不擴張의 原則을 抵觸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sup>(13)</sup>

(11) *Ibid.*, pp. 163-167.

(12) Japanese Foreign Ministry, *op. cit.*, p. 15; W.B. Ballis, “A Decade of Soviet-Japanese Relations,” *Studies on the Soviet Union*, Vol. 3, No. 3, p. 42.

(13) S. Sugiyama,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Soviet Union

또한 日本側 見解에 의하면 센프란시스코條約은 소련의 北方領土 支配에 대한 法的 根據를 부여하지 않는다. 同條約 第二條 (C)項에는 다음과 같은 規定이 있다.

“日本國은 쿠릴列島와, 日本國이 1905年 9月 5일의 포츠머드條約의 결과로 主權을 獲得한 사하린의 一部 및 그에 近接한 諸島에 대한 모든 權利, 權源 및 請求權을 放棄한다.”

日本은 쿠릴列島 및 南樺太를 放棄했다 인정하고 있으나 平和條約에는 그러한 地域을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日本側 主張은 소련이 이 지역을一方의으로 自己領土에 編入시키고 오늘날까지 사실상으로 施政하고 있으나 國際法上 이 지역이 누구에게 歸屬하는가의 문제는 未定이라는 것이다. 또한 平和條約에는 쿠릴列島의 地理的 範圍에 대한 확정적인 規定이 없다고 日本은 지적하며 그러나 平和條約에서 말하는 쿠릴列島에 日本固有의 領土인 하보마이, 시교단, 구나시리, 그리고 에또로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러한 해석은 日本을 拘束하는 어떠한 國際合意와도 矛盾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平和條約에서 問題島嶼의 歸屬이 未定인 것에 대해 日本이 지적하는 것은 소련政府가 條約 交涉時 問題島嶼를 소련의 主權下에 두려고 노력했으나 成功하지 못했고 이것이 바로 소련이 條約署名을 拒否한 큰 理由의 하나였다는 사실과 또한 센프란시스코條約 第25條에 의하면 署名國家가 아니면 同條約이 아무 權利, 權原, 惠澤도 賦與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同條約의 어떤 規定도 日本國의 權利, 權原, 利益을 侵害하는 것이 아니라고 規定되어 있다는 主張이다.<sup>(14)</sup>

센프란시스코會議 당시 日本은 하보마이와 시교단은 北海道의 一部이며, 에또로후와 구나시리는 地理的으로도, 또 動植物分布面으로도 餘他 쿠릴列島와는 相異하기 때문에 條約 第二條의 범위에서 除外되어야 한다고 美國政府에 通告한 바 있다. 그러나 덜레스 國務長官은 條約締結이 지연된다는

---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erritorial Questions,” in Young C. Kim, ed., *Japan in World Politics*, 1972, p. 23.

(14) *Ibid.*, pp. 26-27.

이유로 草案修正에 응하려 하지 않았다.<sup>(15)</sup> 샌프란시스코會議時에 한가지 명백해진 쿠릴列島의 地理的 範圍는 하보마이에 관한 것인데 덜페스는 당시 第二條 (C)項에서 말하는 쿠릴에는 하보마이群島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1951年 9月 7日 日本의 吉田茂 全權代表는 쿠릴列島와 南樺太를 日本이 侵略으로 取得하였다는 소련의 주장에 反論을 가하여 1855年 日本의 開國時 帝政러시아가 에또로후 및 구나시리에 대한 日本의 主權에 아무런 異議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시끄단과 하보마이는 北海道의 一部라고 주장하였다.<sup>(16)</sup>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日本側이 平和條約에 의하여 放棄한 쿠릴列島가 에또로후와 구나시리를 포함한 全쿠릴이라는 것을 日本政府 자신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同條約을 審議하고 있었던 日本 國會委員會度上에서 日本 外務省 條約局長이 條約에서 말하는 쿠릴列島란 北部 및 南部 쿠릴(즉 에또로후 및 구나시리)을 포함한다고 정식으로 권위있는 답변을 한 바 있다.<sup>(17)</sup> 그리고 1955年 이후에야 日本이 放棄한 쿠릴列島는 南쿠릴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平和會議 당시 몇가지 領土問題가 平和條約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그로미코 자신이 말한 바 있으며 소련이 署名을 거부한 이유의 하나는 바로 南樺太 및 쿠릴에 대한 소련의 主權을 인정하는 명백한 規定이 缺如되어 있다는 것이었다라고 日本側은 지적한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條約에서 해결되지 못한 領土問題가 어떻게 갑자기 소련에게 有利하게 해결되었는가라고 日本側은 反問하고 있는 것이다.

日本은 北方領土問題가 未解決이라는 立場을 주장할 때 1956年의 日蘇共同宣言과 당시의 그로미코·松本 覺書를 援用하여, 소련이 北方領土에 관해 계속 交渉할 것을 1956年에 約束했다고 주장한다. 日蘇間 平和條約 締結交渉은 1955年 6月에 시작하여 1956年 10月에 平和條約 대신 共同宣言에 署名하여 戰後外交關係를 再樹立하기에 이르렀다. 1955年 8月 交渉 도중 소련은 당시 日本側의 最低要求條件이었던 하보마이와 시끄단 返還의 意思를 表明

(15) P. Murthy, "The Kurile Islands in Japan's Relations with the Soviet Union," *India Quarterly*, July-Sept. 1964, pp. 296-297; S. Matsumoto, *Northern Territories and Russo-Japanese Relations*, 1970, p. 5.

(16) Nampo Doho Engo Kai, *op. cit.*, pp. 113-114.

(17) "Kunashiri, Etorofu Ryoto to Ryoyukan Mondai," *Chosa Geppo*, 1969, p. 65.

한 일도 있었다.<sup>(18)</sup> 그러나 日本代表는 처음에는 그러한 소련의 提案을 수락해도 좋은 訓令을 갖고 있었으나 결국은 에또로후와 구나시리의返還을 끝까지 요구하여 南樺太와 쿠릴列島의 地位에 관한 最終的決定은 國際會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立場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1955年 8月 交渉이 중단되었고 1956年 1月 再開되었으나 1956年 5月에 다시 중단되었다. 1956年 7月에 會談이 再開되었을 때에 단 하나의 未解決問題는 領土問題이었다. 南库릴에 대한 日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南樺太와 北库릴에 관하여는 약간의 유연성을 보였다. 소련측은 하보마이와 시끄단만을 讓渡한다는 것으로써 회담은 다시 중단되었다.

1956年 11月 11日 鳩山一郎 首相은 불가닌 首相에게 書翰을 발송하여 領土問題에 관한 交渉을 次後에 再開한다는 條件下에 다음 五個項目에 대한 소련의 合意를 書信으로 授受한다면 會談再開에 응할 것이라고 通告하였다.<sup>(19)</sup> 五個項目은 ① 兩國間의 戰爭狀態의 終結, ② 相對國에 大使級의 相互設置, ③ 日本人 抑留者의 即時 送還 ④ 漁業協定의 發效 및 ⑤ 日本의 國際聯合加入에 대한 소련의 支持이었다.

1956年 9月 13日附의 回答에서 불가닌은 소련 政府가 平和條約을 締結하지 않고 日本과의 正常化를 위한 交渉을 再開할 用意가 있다고 表明하며 日本側 五個項目을 수락하였다. 그러나 그回答에는 領土問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日本은 소련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松本을 파견하였다. 그리하여 9月 29日 日本政府 全權委員 松本과 그로미코 第一外務次官 사이에 書翰이 교환되었다. 松本書翰에는 外交關係樹立後에도 領土問題를 포함한 平和條約締結을 위한 交渉을 계속한다는 日本政府의 見解가 表明되어 있고 소련政府도 같은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確認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로미코書翰은 上記 日本政府의 見解를 諒解하며 兩國間에 正常的外交關係가 再開된 後에 領土問題도 포함한 平和條約締結에 관한 交渉을 계속하는데 同意한다고 言明하고 있다.

그와 같은 소련의 合意를 받은 후 鳩山 日本首相이 소련 指導者와의 會談을 위해 10月 12日 모스크바에 도착하였고 10月 19日 日蘇共同宣言에署名하기에 이르렀다. 그共同宣言 第9項에 의하면 兩國間에 正常的外交關

(18) D.C. Hellmann, *Japanese Foreign Policy and Domestic Politics*, 1969, p. 35.

(19) S. Matsumoto, *Mosukuwa ni Kakeru Nizi*, 1966, p. 201.

係가 회복된 후 平和條約締結에 관한 交渉을 계속하는 데 同意한다는 것, 日本國의 要望에 응하여 日本國의 利益을 고려하여 하보마이 및 시쿄단을 日本에게 引渡하는 데 同意한다는 것과 그러나 日本과 소련 사이에 平和條約이 締結된 후에 그 諸島를 現實的으로 引渡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共同宣言에는 兩國家가 領土問題에 관하여 交渉을 계속한다라는 明白한 言及이 없다는 것이다. 10月 15日과 10月 16日附의 兩國의 共同聲明草案과 10月 15일의 불가닌과 鳩山의 演說에는 그러한 內容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sup>(20)</sup>

日本側 草案에는 —平和條約締結을 기다릴 필요없이— 하보마이와 시쿄단을 소련이 引渡한다는 귀절이 있고 소련草案에는 領土問題에 관한 언급은 있으나 하보마이와 시쿄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日本農相이며 黨實力者인 河野와 흐루시초프 사이에 10月 13日부터 18日間에 이루어진 交渉過程에서 日本側이 領土問題에 대한 言及句節을 放棄하는 대신에 하보마이와 시쿄단의 讓渡에 대한 명확한 귀절을 수락하기로 선택을 한 것 같다.

美國이 오끼나와(沖繩)와 오가사와라(小笠原)를 日本에게 返還할 때 소련은 예또로후 및 구나시리의 让渡를 고려하라는 제안을 河野가 하였으나 흐루시초프의 답변은 오끼나와와 오가사와라가 返還되면 하보마이와 시쿄단을 引渡하는 데 同意한다는 것을 聲明에 삽입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예또로후와 구나시리에 대해 다시 質問을 받은 흐루시초프는 10月 16日 소련의 입장은 最終的인 것이라고 言明하였다. 불가닌도 鳩山에게 領土問題에 관한 흐루시초프의 發言은 最終的인 것이라고 말하였고 10月 19日附의 鳩山에 대한 書翰의 형식으로 그 뜻을 전하였던바 그 書翰에는 “우리는 日本에게 選擇을 주었고 그 外의 어떤 让步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sup>(21)</sup>

소련 立場에서 본다면 領土問題는 그것으로 해결되었고 앞으로 하보마이와 시쿄단을 引渡함으로써 문제는 완전히 終結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日本은 그러한 소련의 해결을 거부하며 다음과 같은 이론을 전개한다.<sup>(22)</sup>

(20) *Ibid.*, pp. 105-215.

(21) *Ibid.*, p. 217.

(22) 1970年외 外務省 文書(p. 20), 1969年의 調査月報(p. 72) 및 松本氏의 冊(pp. 8-9) 참조.

- ① 松本 및 그로미코 書翰의 存在,
- ② 兩書翰과 日蘇共同宣言의 第9項은 不可分이라는 점과 平和條約에 보통 포함되는 기타 諸問題는 共同宣言으로 해결되었으니 領土問題에 관해 앞으로 交渉이 있을 것이라는 松本의 諒解,
- ③ 에도로후와 구나시리 문제 야말로 平和條約 締結을 위한 外交交涉이 結實을 맺지 못한 主要原因이라는 점,
- ④ 日本側의 解釋이 第9項이 갖고 있는 唯一可能한 含蓄性과 合致한다는 점. 그렇지 않다면 平和條約을 체결하기 위한 交涉을 계속하겠다고 同意할 아무論理的 理由가 없다. 平和條約이란 領土問題의 解決을前提로 하는 것이다. 日本側에게는 第9項이 實質的으로 領土問題를 말하는 것이다.

歸國後 國會委員會席上에서 鳩山首相은 日本과 소련 兩國이 모두 에도로후와 구나시리를 포함한 領土問題에 관하여 계속 토의할 것으로理解하고 있다고 言明하였다. 鳩山首相이 모스크바를 향해 출발하기 전에 日蘇兩國間에 그 점에 관하여 合意가 있었다는 것은前述한 바와 같다. 그러나 모스크바 체류중 하보마이와 시끄단을 引渡한다는 것은 聲明書에 明記하게 되었으나 소련은 領土問題라는 句節을 削除하도록 끝까지 고집하였던 것이다. 聲明書에 明記되든 안되든간에 共同宣言 交涉過程으로 보아 의도하는 바가明白하다고 鳩山은 생각하였고 그러한 約束을 特別히 書面化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sup>(23)</sup>

國會委員會席上에서 河野는 第9項의 표현에 관한 交涉을 위해 흐루시초프와 4次에 걸쳐 회담하였고 領土問題에 관한 귀절을 削除하기로 共同으로決定하였다고 證言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보아 의도는 명백하기 때문이었다고 말하였다. <sup>(24)</sup>

- ① 兩側의 意見이 명백히 表明되었다는 점,
- ② 鳩山과 불가닌 및 松本과 그로미코의 合意가 있은 후에 交涉을 했다는 점,
- ③ 단 하나 남은 문제는 領土問題라는 점,
- ④ 平和條約이란 당연히 領土問題解決을 포함하는 것이며 領土問題 云云의 句節이 없다고 하여 實質的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

(23) Hoppo Ryodo Fukki Kisei Domei, *Hoppo Ryodo no Shomondai*, 1967, p. 86.

(24) *Ibid.*

소련側의 해석은 하보마이와 시끄단 引渡에 관한 명백한 規定이 있다는 사실 자체, 그리고 領土問題 云云의 귀절이 削除되었다는 사실은 日本側의 그러한 선택과 日本側 領土權 主張의 解決을反映한다는 것이다. 松本·그로미코 兩書翰의 교환은 모스크바에서의 交涉前에 있었고 모스크바 交涉에서는 領土問題에 대한 再交涉이 진행되었으나 그것은 兩書翰의 의도에 反하는 것이었다. 사실 흐루시초프는 河野가 하보마이와 시끄단의 早速한 返還을 요청하였을 때, 소련은 日本側이 領土問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하였다. 鳩山一行이 모스크바에 도착한 후 10月 13日에야 소련은 日本側의 주장을 알게 되었다.

回顧錄에서 松本은 河野가 이시고프에게 日本은 하보마이의 即時返還을 원한다고 두번째로 말하였을 때 이시고프가 日本의 提案이 앞으로 領土問題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며 平和條約 締結時に 다시는 領土問題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해도 되느냐고 質問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日本側이 그 질문에 어떻게 응하였는가를 이상하게도 松本은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흥미진진한 일이다.

소련으로서는 松本·그로미코 書翰의 效力を 否認할 필요도 없으며 領土問題는 계속 토의되어야 한다는 日本側 주장을 否認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것이다. 소련側으로는 領土問題라는 것이 所謂 北方領土에 대한 日本의 請求權要求를 칭하는 것이 아니라 日本이 南樺太와 쿠릴列島에 대한 소련의 主權을 正式으로, 明示的으로 확인하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共同宣言에 관하여 소련은 北方領土에 대한 日本의 要求를 계속하겠다는 것에 소련이 同意하였다는 日本側의 주장을 이미 명백하게 否認한 바 있다. 여하튼 소련은 共同宣言에 의해서 문제의 領土에 대한 權益을 取得하였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日本이 소련과의 平和條約에서 爭點이 되어 있는 領土에 대한 소련의 主權을 정식으로 인정해 준다면 환영할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領土問題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련이 日本에 대해 그러한 낙관적 전망을 갖고 있느냐는 別問題이다.

## B. 美國의 立場

1950年 12月 28日 美國政府는 얄타協定이 對日本戰에 參戰한 聯合國과 협의하여 締結될 平和條約에서 確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1951年 4月에 덜레스는 알타協定이 共通目的에 대한 參戰 5個國元首들의 聲明에 불과하며 그 自體만으로 法的 效果를 발생하는 文書가 아니라고 말하였다. 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 덜레스는 條約草案에 대해 언급하면서 聯合國은 포츠담 降伏條件만을 준수하면 되며 聯合國間의 非公式的인 諒解條項에拘束을 받지 않는다고 言明하였다. 또한 덜레스는 하보마이群島는 쿠릴列島라는 地理的 用語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며 이 점에 대하여 紛爭이 있을 경우는 國際裁判所에 제기할 것을 제안하였다. <sup>(25)</sup>

日本政府의 問疑를 받고 美國政府는 1955年 7月 다음과 같은 見解를 발표하였다. <sup>(26)</sup>

① 하보마이와 시교단은 北海道의 不可分의 一部이며 地理的, 歷史的, 法的으로 쿠릴列島의 一部가 아니다.

② 알타協定은 參戰國家指導者들이 共通目的을 천명한 것이며 그것 자체만으로는 法的 效果를 발생하지 않는다. 포츠담宣言에는 알타協定에 대한 言及이 없으므로 알타協定條項은 日本을拘束하지 않는다. 알타協定은 포츠담宣言보다 먼저 緒結되었으니 포츠담宣言의 第 8 項을 決定하지 않는다(포츠담宣言의 第 8 項이 알타協定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나는 質疑에 대하여).

③ 포츠담宣言은 日本領土에 대한 最終的 決定을 參戰國이 次後에 한다고規定하고 있다. 소련은 南樺太와 쿠릴이 포츠담宣言 第 8 項에 의하여自己領土라고 單獨으로 또는 一方의으로 決定할 수 없다.

④ 最高聯合軍司令部 一般指令 第 1 號와 聯合軍司令部 指示 第 677 號, 그리고 샌프란시스코條約 第二條 그 어느 것도 領土의 最終的 地位를 決定한 것이 아니다.

⑤ 南樺太와 쿠릴列島에 대한 最終的 決定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國際協定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1955年 10月 日本政府가 再次 예또로후와 구나시리에 대해 公式的으로 問疑한데 대하여 美國政府는 다음과 같은 回答을 하였다. <sup>(27)</sup>

① 알타에서는 쿠릴列島에 대한 地理的 定義도, 쿠릴의 歷史에 대한 討議도 없었다. 알타協定은 領土讓渡를 의도한 것이 아니며 法的 效果도 없다.

(25) Murthy, *op. cit.*, p. 274.

(26) Hoppo Ryodo Fukui Kisei Domei, *op. cit.*, pp. 42-43.

(27) *Ibid.*

알타會談의 參加者들이 소련으로 하여금 러시아 領土가 아니었던 어떠한 領土를 取得케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쿠릴列島의 定義는 平和 條約에 없으며 센프란시스코 會議錄에도 없다. 쿠릴列島에 관한 紛爭은 國際裁判所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美國의 見解이다.

②將來의 國際的 決定으로 南樺太와 쿠릴列島에 관한 究極의 處理는 이 루어질 것이다. 日本이 에또로후와 구나시리 兩島가 쿠릴의 一部가 아니라는 根據로 소련에게 返還토록 설득을 기도하는데 대하여 美國은 아무런 異議가 없다. 이것이 성공 못하는 경우에는 쿠릴列島의 범위에 관한 문제를 國際裁判所에 제출하는데 同意하도록 소련에게 要求할 수 있다. 혹은 에또로후와 구나시리가 쿠릴列島의一部分이 아니라는 根據로 日本이 日蘇平和 條約에 南樺太와 쿠릴에 대한 請求權을 放棄하는 것을 明記하는 대신 에또로후와 구나시리 兩島嶼에 대해 소련과 어떤 合意에 이르러도 좋다.

日本 重光外相의 요청에 의해 1956年 9月 7日 美國政府는 覺書를 發送하였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歷史的 事實을 신중히 檢討한 결과, 美國은 에또로후와 구나시리島가 (하보마이와 시끄단과 더불어) 恒時 日本의 一部였으며 日本의 主權下에 있다고 正當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結論을 내리기에 이르렀다.”<sup>(28)</sup>

### C. 蘇聯의 主張

쿠릴에 대한 소련의 領土權 主張의 根據는 주로 法的인 것이나 歷史的 事實을 引用하기도 한다. *Sovietskii Flot, Problems of History* 같은 雜誌나 政府機關紙 *Izvestiya*에掲載된記事에 의하면 日本人에 앞서서 러시아人 探險家들이 쿠릴列島에 上陸, 征服하였고 쿠릴列島의 住民은 처음에는 러시아 國籍이었다는 것이다. 一例를 들자면 1970年 11月 13日 *Izvestiya*에 다음과 같은 內容의記事가 있다.

쿠릴列島가 오랜 日本 國有의 領土라는 日本復讐主義者들의 主張은 출렬하고 虛偽의이다. 러시아 探險家들은 일찌기 1632年에 쿠릴列島를 알게 되었는데 當時는 쿠릴에 있는 아무도 日本이란 나라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을 때이다. 러시아人이 發見하였을 때 쿠릴列島와 樺太에는 아이누와 시베리아民族이 살고 있었다. 그 후 1726年에도 러시아 探險家들은 쿠릴列

(28)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1956, p. 484.

島에서 한 사람의日本人도 본 일이 없다. 日本人이 도대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은 그當時 德川統治下에서 法律로써 日本人의 出國이나 長距離航海를 위한 船舶建造를 엄격히 禁止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日本史學家가 쓴 글에 의해도 19世紀 中葉까지는 樺太와 쿠릴列島뿐 아니라 北海道마저 日本領土라고 認定되고 있지 않았다.

소련文獻에 引用되는 이와 같은 歷史的 “事實”을 日本側은 인정하지 않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쿠릴을 먼저 發見하였는가라는 것보다 누가 그地域을 有效하게 統治하였는가라고 主張하고 있다.

소련側의 基本的立場은 諸國際協定에 의하여 領土問題는 이미 解決되었다라는 것이다. 얄타協定에는 너무나도 異論의 여지없이 南樺太가 返還되고 쿠릴列島는 引渡되어야 한다고 明白히 規定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들 見解에 의하면 포츠담宣言은 카이로宣言條項의 履行을 規定하고 있고 포츠담宣言 第8項은 實質적으로 얄타協定에 基礎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의 가장 核心的인 理論은 얄타協定과 포츠담宣言은 分離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포츠담宣言에서 말하는 “諸小島”가 未決定이라는 日本側 主張을 소련은 否認하는 것이다.

호루시초프는 池田首相에게 보낸 書翰에서 포츠담宣言은 日本의 主權을 日本土 四個島嶼와 몇개의 小島에 限定하고 있고 日本은 降伏文書에 署名함으로써 포츠담宣言條項을 誠實히 履行할 것을 誓約하였다고 指摘하였다. 쿠릴列島가 日本主權下의 領土라는 범위에서 刪除되어 있는 한 日本의 現在의 領土權主張은 上記誓約을 違反한다는 것이다. 日本이 不參與를 이유로 얄타協定이 日本을 拘束하지 않는다고 主張하는 것은 荒唐無稽하며 國際法上 아무 根據도 없는 것이라고 소련은 말한다. 소련의 見解는, 日本이 署名國은 아니나 降伏함으로써 聯合國이 얄타에서 規定한 모든 條項을 受諾한 것이라고 한다. 호루시초프에 의하면 얄타協定은 日本과 戰爭을 하고 있는 國家間に 締結된 것이라 日本은 당연히 署名國家가 아니었으며 또한 될 수도 없었고 降伏으로써 日本은 聯合國이 合意한 條件을 受諾한 것이라고 한다.<sup>(29)</sup>

쿠릴列島 地位에 관한 소련側의 또 하나의 理論은 샌프란시스코 平和條約으로 領土問題는 決定的으로 明白히 해결되었다는 것, 즉 日本은 南樺太와

(29) N. Khrushchev 書翰은 Nampo Doho Engo Kai, *Hoppo Ryodo Mondai Shiryo Shu*에 收錄. R. Hayes, *The Northern Territorial Issue*, 1972, p. 24 참조할 것.

쿠릴列島에 대한 모든 權利, 權原, 請求權을 放棄하였지 않은가라는 것이다. 소련이 條約의 署名國은 아니지만 日本이 第二條에 의하여 放棄한 것은 日本에게 拘束力を 갖는 것이고 平和條約에서 나오는 日本의 義務는 戰時의 聯合國間의 諸協定과 降伏文書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日本의 領土權 主張은 第二次大戰의 結果와 平和條約의 條項을 修正하려는 企圖라고 한다.<sup>(30)</sup>

또한 소련側 見解에 의하면 알타에서나 最高司令部 一般指令 第一號에서나 샌프란시스코 條約交涉時에서나 모두 쿠릴列島를 區分한 일이 없이 全ку릴列島를 말하였으며, 에또로후와 구나시리는 쿠릴列島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日本側 主張은 아무 根據가 없다는 것이다. 無數한 戰前의 日本 刊行物은 이것을 證明하고 있으며 戰後에도 日本政府 自身이 에또로후와 구나시리는 쿠릴列島의 一部라는 것을 인정한 일이 있었다.<sup>(31)</sup> 소련側에서 본다면 에또로후와 구나시리는 쿠릴列島의 不可分의 一部이며 平和條約에서 말하는 쿠릴列島에 문제의 島嶼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日本의 主張은 아무 根據가 없는 것이 明白하다. 日本의 主權이 이 두 島嶼에 미친다면 왜 日本은 平和條約에 署名을 했는가 혹은 왜 留保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소련은 反問한다.<sup>(32)</sup>

下田條約 및 横太쿠릴交換條約을 근거로 하는 日本의 領土權 主張을 소련은 拒否한다. 그 理論인즉 日本은 1904年 러시아에 대해 侵略戰을 시작함으로써 그 두 條約을 위반하여 그 條約을 援用할 權利를喪失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1920年代에 北部樺太와 시베리아를 侵犯함으로써 1905年 條約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sup>(33)</sup> 이러한 모든 事情, 背景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1956年에 상당한 양보를 하여 平和條約 締結時에 하보마이와 시교단을 讓渡할 用意를 表明했던 것이라고 소련側은 설명한다. 그러나 後述하는 바와 같이 소련은 하보마이와 시교단 返還에 대한 뜻을 그 후 實質的으로 變更하였다.

왜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留保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日本 外務省 歐亞局長의 다음과 같은 國會 答辯이 있다. 1977年 6月 5日 外務委

(30) Khrushchev 書翰

(31) *Ibid.*

(32) A. Sagiwara, *Gaiko no Kangaekata*, 1965, p. 144.

(33) *Ibid.*, p. 141; Nampo Doho Engo Kai, *op. cit.*, p. 236.

員會席上에서 왜 日本代表가 有效한 留保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伊藤公介委員의 質問에 宮澤局長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日本이 놓여 있었던 當時의 狀況을十分 고려할 필요가 있다. 日本은 被占領國의 地位에 있었고 샌프란시스코회의에도 平和條約을 折衝하러 간 것이 아니고 最終案文에署名하도록 招請을 받았다. 따라서 그 회의에서 日本全權은 見解를 말할 수는 있었으나 條約案文에 대해充分한 留保를 한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한 狀況에서 吉田氏가 會議席上에서 쿠릴列島 및 南樺太의 地域은 日本이 侵略으로 奪取한 것이라는 소련全權의 주장에는贊成할 수 없으며 日本領土인 北海道一部를 구성하는 시코단 및 하보마이群島도 소련軍에게 占領당한 채 있다고 말하였다.

#### D. 領土紛爭의 經緯

上述한 바와 같이 1956年 소련은 平和條約이 締結된 후에 하보마이와 시코단을 讓渡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오늘날 公式的으로는 效力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60年 1月 27日 소련側은 平和條約이 체결되고 모든 外國軍隊가 日本으로부터 撤收하는 條件下에서만 하보마이와 시코단을 让渡하겠다는 새로운 條件을 添附시켰다. 이 新條件은 公式的으로 撤回된 일이 없으므로 아직도 有效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 條件은 소련이 日美安保條約改定에 반대할 때 追加된 것이다. 改定條約이 日本의 駐日美占領軍으로부터의 獨立을 剝奪하게 되므로 소련으로서는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소련의 주장은, 문제의 條約이 소련과 中國人民共和國을 對象으로 하고 있으며 하보마이와 시코단島를 日本에게返還함으로써 外國軍隊가 사용할 수 있는 領域을 확장시켜 주는데 기여할 수 없다는 論理였다.<sup>(34)</sup>

1960年 2月 6일의 소련에 대한 書翰에서 日本은 소련側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條件을 추가하려거나 1956年 共同宣言의 내용을 變更하려는企圖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1960年 2月 25日 소련은 다음과 같은 回答을 보내 왔다. 美國과의 安保條約은 1956年의 共同宣言에 모순되며 소련과 善隣關係를 구축한다는 日本側義務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日本이 하보마이와 시코단以外의 領土返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報復主義에의 위험한

(34) Nampo Doho Engo Kai, *op. cit.*, pp. 181-191.

추세이며 諸國際協定에 의해 이미 해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근거없는 領土權 主張을 함으로써 平和條約의 체결을 고의적으로 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日本은 1960年 3月 1日 再次 반박문을 發送하여 領土問題는 未解決이며 平和條約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고 1956年 소련이 그 討議를 약속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며 日本이 自己固有의 領土인 에또로후와 구나시리의 讓渡를 追求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며 全日本國民이 갖고 있는 日本固有領土의 让渡에 대한 욕망을 소련이 報復主義라고 規定하는데 대한 최고의 경각심을 表明하였다. <sup>(35)</sup>

1960年 4月 22日附의 소련側回答에는 共同宣言에 대한 흥미있는 소련側解釋이 들어 있다. 이 회답은 日本政府가 소련에 대해 根據없는 領土權主張을 한다고 하면서 共同宣言으로 日蘇兩側이 領土問題를 장래에 토의할 것으로 合意본 것처럼 부당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그러한 合意는 없었고 그러한 合意가 있었을 수도 없었으며, 소련政府는 그러한 日本側主張을 거부한다고 말하며 蘇日兩國間의 領土問題는 該當諸國際協定에 의하여 해결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sup>(36)</sup>

1961年 8月 미코얀의 訪日時 흐루시초프는 池田首相에게 親書를 보내兩國間에 介在하는 모든 未解決問題를 조정함으로써 兩國間의 完全한 正常化를 이루하기를 希望한다고 表明하였다. 1961年 8月 26日附의 回信에서 池田首相은 完全한 正常化에는 平和條約의 締結이 필요하며 日本의 固有領土를返還함으로써 平和條約에의 길을 틀 수 있는 것은 소련政府라고 말하였다.

1961年 9月 29日附의 흐루시초프書翰은 領土問題는 諸國際協定에 의하여 오래 전에 해결되었는데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日本政府가 兩國關係 完全正常化로의 길에 人爲의인 障壁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非日本領土를 日本에게返還한다는 문제가 어떻게 제기될 수 있느냐”라고 흐루시초프는 反問하고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日本은 샌프란시스코條約의 該當規定을 결정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데 그러한 태도는 蘇日關係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하였다.

領土問題解決이란 소련의 立場을 반박한 池田首相의 1961年 11月 15日附

(35) *Ibid.*, pp. 194-199.

(36) *Ibid.*, pp. 199-211.

의書翰을 授受한 후 흐루시초프는 1961年 12月 8日 다시 覺書를 보냈다. 이 覺書는 소련의 北方領土問題에 대한 상당히 긴 주장을 담은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한 소련의 가장 권위있는 설명이다. 그 主要한 內容은 소련의立場이란 項目에서 소개한 것과 흡사하다.

1964年 1月 4日 흐루시초프는 領土紛爭과 國境問題 해결에 있어서 武力不行使를 제안하였고同年 2月 7日 그에 대한 反應에서 池田首相은 가장 중요한 未解決의 北方領土問題에 언급하여 領土問題의 公正하고 早速한 解決을 희망한다는 뜻을 表明하였다. <sup>(37)</sup>

1964年 5月 미코얀을 團長으로 하는 소련聯邦最高會議議員團의 訪日時 흐루시초프는 池田에게 메시지를 통하여 兩國間의 關係를 最終的으로 완전히正常化하기 위하여 平和條約를 締結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하였다. 그에 대해池田은 平和條約이 善隣關係構築을 위한 永久的基礎를 마련하는데 긴요한 것이며, “우리固有의 領土”의返還이 實現된다면 그러한 平和條約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는 立場을再次 친명하였다. <sup>(38)</sup> 東京 방문終了時의 記者會見에서 北方領土問題에 대한 질문을 받고 소련側은 샌프란시스코條約과 1956年共同宣言을 준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미코얀은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받고 에도로후와 구나시리가 傳統的인 日本領土라는 日本의 解釋를 否定하였다. <sup>(39)</sup>

1964年 9月 日本國會議員代表團이 訪蘇하였을 때 池田首相은 흐루시초프에書翰을 보내 日本固有領土의 早速한返還과 平和條約의 締結을促求하였다. 日本議員團을 接見하고 있을 때 흐루시초프는 만약 美國이 오끼나와(沖繩)를返還한다면 하보마이와 시끄단을返還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는 하보마이 및 시끄단兩島에 대해……故鳩山氏와 合意한 協定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그 協定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과 平和條約을 署名한 후에야 日本에게兩島를 讓渡한다고宣言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平和條約이 없다. 더구나 美國은 日本에 軍事基地를 갖고 있고 당신들에게서 오끼나와를 빼앗았으며 오끼나와와 日本領土를 소련

(37) *Ibid.*, pp. 223-233, pp. 241-242.

(38) *Ibid.*, pp. 242-243.

(39) “A.I. Mikoyan on Soviet-Japanese Relations,” *New Times*, June 10, 1964, pp. 4-8.

과 中國에 대한 戰爭에 있어서의 戰略的 基地라 생각하고 있다. 그런 狀況에서 당신들에게 하보마이와 시끄단을 준다면 당신들의 漁夫는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美帝國主義者들은 당신들의 島嶼위에 소련을 겨누는 軍事基地를 구축할 기회를 갖게 된다. 우리는 日本에게 양보함으로써 美帝國主義를 강화시키고 싶지 않다. 美國人들이 지금 日本을 떠나고 오끼나와를 해방시킨다면, 또한 平和條約이 署名된다면 우리는 당신들에게 즉시 電文을 보낼 것이다. ‘우리가 合意한 대로 어서 오셔서 하보마이와 시끄단을 갖도록 하십시오.’”<sup>(40)</sup>

日本 椎名外相은 1966年 1月 소련을 방문하여 北方領土問題를 논의하려 하였으나 소련 지도자들은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그는 共同聲明에 領土問題에 대한 귀결을 插入하려 노력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소련의 立場은 共同宣言에 있는 표현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心證을 얻고 귀국하였다. 7개월 후 그로미코가 訪日했을 때도 소련측은 共同聲明에 領土問題 云云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거절하여 共同聲明에는 兩側이 平和條約 체결의 必要性을 확인하였다고만 되어 있다. 그로미코는 전혀 변화되지 않은 소련의 立場을 되풀이하는 것은 蘇日關係 진전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領土問題의 토의를 회피하였던 것이다.<sup>(41)</sup>

翌年 三木外相이 訪蘇하였을 때 코시진首相은 兩側 모두 어떻게 平和條約을 다루어야 할지 모른다고 하면서 外交 채널을 통한 中間的 措置(文書)를 모색하는 可能性을 示唆하였다. 日本은 코시진의 이 제안에 主關心을 表明하였고 소련 立場에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의 日本政治人 및 政府官吏와의 面談에서 소련측은 領土問題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自己들의 立場에 하등의 변화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sup>(42)</sup>

1969年 9月 愛知外相과의 회담에서 코시진은 소련政策이 第二次大戰 終了時に 決定된 領土의 現狀을 유지하려는 것이고 北方領土 問題는 日本과의 관계에서만 고려할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그 문제에 있어서의 어떠한 變

(40) *Pravda*, Sept. 20, 1964; *The Current Digest of the Soviet Press*, Oct. 14, 1964.

(41) Y. Hirano, “Saikin no Nisso Kankei,” *Azia Kuotari*, Vol. 4, No. 3, July 1972, pp. 44-45; Hoppo Ryodo Fukki Kisei Domei, *op. cit.*, p. 92.

(42) Hirano, *op. cit.*, p. 46.

更도 보다 광범위한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 말하였다고 전하여지고 있다.<sup>(43)</sup> 소련立場을 正當化하는 이론이 약간 변화할지 모른다는 인상은 주었지만 그 당시와 그 후의 소련文獻에 나타난 소련의 사실상의 입장에는 아무 변화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1970年 10月 日本 佐藤首相이 UN總會에서의 연설에서 北方領土問題를 언급한 후 소련은 所謂 日本의 軍國主義와 復讐主義를 一層 더 신랄하게 비판하게 되었다. 佐藤는 日蘇兩國이 平和條約을 締結하지 못하는 까닭은 日本 고유의 領土에 관한 소련과의 交涉에 進展이 없는 탓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한 소련의 不滿은 명백히 나타났다. 佐藤의 연설 일주일 후 Izvestiya紙는 (1970年 10月 29日) 日本의 北方領土返還運動을 비난하면서 佐藤의 연설이 주는 인상과는 반대로 領土問題에 관해 아무런 協商도 진행중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Izvestiya紙의 論旨는 다음과 같다.

“……佐藤의 연설은 사실상 第二次大戰 結果의 再考慮를 호소하는 것과 같이 들린다. 日本政治人們이 연설에서 무엇이라고 그것을 칭하건 그것은 역시 報復主義이다. 首相의 ‘北方領土’ 討議는 기본적으로 1951年の サンフラン시스코條約을 改正하자고 호소한 것이다. 그 條約에 의해 日本은 쿠릴列島에 대한 모든 請求權을 公式的으로 放棄한 것이다. ……소련과 소련人民은 소련의 領土保全에 관한 문제나 第二次大戰 結果를 改正하자는 要求를 담은 聲明등을 무시할 수 만은 없다……”

Izvestiya紙는 1970年 11月 13日에再次 비난의 글을掲載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報復主義運動과 關聯된 모든 것—北方領土復歸促進月間이라하여 政府 官吏들이 참여하는 大衆集會, 示威, 運動등의 行事を 포함—은 日本政府當局이 시키는 것이며,

② 報復主義的 소망은 日本의 外交活動의 一部가 되었고 外務省은 쿠릴列島가 日本固有의 領土라고 歷史를 왜곡하는 公式文書를 配布하고 있다.

③ 東京 소련大使館 및 삿포로의 總領事館外部에서 報復主義者에 의한 炙罵的 行動이 態行되고 있다.

④ 報復主義運動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日本의 軍隊를 經濟成長과 함께

---

(43) *Ibid.*, pp. 47-48.

增大시키려는 支配者層의 希望을 反映한 것이며 北方領土問題를 人爲的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소련과의 善隣關係를 발전시키며 아시아의 平和를 공고히 하려는데 반대하는 日本 內外勢力의 權益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⑤ 國境線을 改正하려고 하는 것은 최근 체결된 소련과 西獨間의 條約에 나타난 것과 같은 오늘날의 國際關係의 趨勢에逆行하는 것이다.

동시에 駐日 소련代理大使은 日本政府에게 政府官吏들이 人爲的으로 返還運動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며 다음과 같은 행동을 소련에 대한 非友好的인 것이라고 항의하였다.

- ① 沖繩・北方對策廳의 設立
- ② 國會議員의 北方地域 視察
- ③ 北方領土問題에 관한 文書를 UN에서 配布하는 것
- ④ 駐日소련大使館 밖에서의 示威運動
- ⑤ 1970年 10月 UN 總會에서 佐藤首相이 領土問題에 대해 언급한 것<sup>(44)</sup>

日本은 11월 17일 駐日소련代理大使에게 항의에 대한 항의를表明하였다. 森外務事務次官은 소련代理大使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國內行動에 대해 日本政府와 國會를 공격하는 것은 日本內政에 소련이 干涉하는 것이다. 오끼나와 返還問題가 해결된 이 시점에서 北方領土問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返還運動은 전적으로 自然發生의이라 말하고 소련이 말하는 復讐主義 云云하는 비난을 부인하였다. 문제는 소련이 日本의 固有領土를 不法의으로 占領하고 있는데서 발생하여 소련政府가 아무런 法的 根據 없이 他國에 故意로 自己의一方의인 措置를 강요하는 것은 國際正義에 背馳되는 것이라고 森은 말하였다. 그는 또한 四個島嶼를 소련이 즉시 返還함으로써 平和條約을 체결한다면 日蘇關係를改善할 뿐 아니라 아시아의 平和 安保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소련이 즉각적으로 肯定的 行動을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였다.<sup>(45)</sup>

이에 대한 소련의 反應은 日本의 “報復主義者”를 신랄히 규탄하는 Pravda의記事로 나타났다. 1970年 11月 26日記事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日本官吏들은 報復主義者の 極端的 行動에 언급하는 것을 日本內政에 대한 干涉이라고 믿고 있다. 他國의 領土를 차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隣

(44) *Japan Report*, Dec. 16, 1970, p. 4.

(45) *Ibid.*, pp. 4-5.

國人에 대하여 적개심을 扶植하여도 그것은 一連의 國內措置에 불과하며 正常의인 것이고…… 日本側이야말로 오랜 세월에 걸쳐 兩國間의 平和條約締結을 저해하여 왔고 平和條約에 관한 交涉을 오래 전에 해결된 領土問題에 대한 토의로써 代置하려고企圖해 왔다. 日本政府는 자기들이 진정한 平和條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北方領土의 返還에 基礎한 平和條約, 즉 第二次大戰 結果의 修正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은폐하지 않는다.”

#### E. 1973年の 頂上會談

第一次 닉슨쇼크(Nixon Shock)가 있은 후 領土問題에 대한 소련의 태도에 약간의 柔軟性이 생겼다고 日本側은 느꼈다. 1972年 1月 그로미코外相의 訪日時 “領土問題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상투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日本側은 생각한 것이다. 日本側은 그러한 상투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까닭이, 소련이 日本을 美國으로부터 離脫시키고 日中間의 政治的 和解를 저지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 당시 1972年 以前에 平和條約交涉을 시작한다는 合意를 보았는데 日本은 이것이 領土問題에 대한 交涉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田中 日本首相은 1973年 10月 7일부터 10일까지 소련을 公式訪問하여 北方領土問題를 포함한 여러 懸案問題를 토의하였다. 公式會談이 終了된 후 10月 10日 日蘇共同聲明이 발표되었는데 그 聲明書는 그 안에 記載된 內容과 그리고 記載되지 않은 內容을 볼 때 신중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첫째 聲明에는 領土問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러나 日本側은 장래에 있을 平和條約에 관한 交涉에 領土問題가 포함된다고 확신하고 있다. 聲明의 主要句節은 다음과 같다.

“雙方은 第二次大戰時부터의 諸未解決問題의 解決과 平和條約의 締結이 兩國間의 真正한 善隣友好關係의 확립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雙方은 1974年的 적절한 시기에 兩國間 平和條約締結에 관한 交涉을 계속할 것에 合意하였다……”

日本側이 보기에는 上記句節은 소련이 領土問題에 대해 交涉을 하겠다고 合意한 것을 명백히 나타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日本側 見解에 의하면 “未解決의 諸問題”라는 表現은 구체적으로 領土問題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共同聲明에 諸問題라고 單數아닌 複數의 표현이 되고 있

다는 사실이다. 日本 草案에는 원래 單數로 되어 있었으나 소련의 要請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며 未解決의 諸問題는 領土問題를 포함한다는 것에 대해 명백히 소련側의 保障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日本側의 主張은 兩國間의 平和條約締結에 대한 유일한 장해물이 바로 이 領土問題이었다는 것이다. 問題의 句節을 아무리 신중하게 회의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未解決의 諸問題中에는 領土問題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여간 日本側은 소련의 最高指導者들이 처음으로 領土問題가 存在한다고 是認하였으며 日本이 領土問題를 앞으로 交渉할 議題로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주장한다.

그 反面에 소련側은 領土問題에 관해 소련의 立場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公式的으로 또 私的으로 주장하고 있다. 日本側의 解석은 자기들의 國內政治宣傳을 위한 것이며 근거없는 不當한 것이라고 소련은 생각하고 있다. 소련側에 관한 한 未解決의 諸問題라는 표현은 領土問題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海洋의 安全操業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그들은 日本側의 解석을 근거도 없고 自己利益만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共同聲明의 러시아文과 日本文을 對照해 보면 몇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日本에서 많은 物議를 일으켰던 것은 安全操業問題를 계속 토의하겠다는 내용이 러시아文에서는 빠져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고 소련政府는 결국 日本文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日本文과 러시아文을 비교해 보면 共同聲明 第一條에 대한 의미에微妙한 차이가 있다. 日本文의 의미는 諸未解決問題의 解決이 平和條約締結에 先行된다고 解석된다. 日本文을 直譯하면 “未解決諸問題를 解決하고 平和條約을 체결하는 것이 兩國間의 침된 善隣友好關係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인식하며……”로 되고 러시아文에 의하면 未解決諸問題의 解決 및 平和條約의 締結이 그러한 기여를 한다고 되어 있다. 換言하면 러시아文에서는 平和條約締結에 未解決諸問題의 解결을 반드시前提로 하지 않으며 日本文에서는 平和條約의 締結은 未解決諸問題의 解決 뒤에 따른다는 것 같은 의미가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10月 10日과 11日의 記者會見에서 田中과 大平이 한 發言이 示唆하는 바가 많다. 未解決諸問題 云云의 귀절이 領土問題를 포함한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田中首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領土問題를 포함하지 않는 未解決諸問題라는 것은 없다”고 하면서

“물론 安全操業과 같은 문제도 포함한다”라고 덧붙였다. 에또로후와 구나시리의 地位에 관한 問題가 그 귀결에 포함되어 있다고 소련도 똑같은 諒解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田中은 記者에게 北方領土問題에 언급한 自己의 前日 午餐演說 全文이 黨機關紙 *Pravda*에 揭載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라고 말하였다.<sup>(46)</sup> 당시의 一日本新聞의 모스크바로부터의 보도에 의하면 共同聲明에 領土問題句節을 捕入하고자 日本側은 희망하였으나 소련이 이를 거부, 결국 다음날 아침 *프라우다*紙에 田中演說 全文을 揭載한다는 소련側이 제안한 妥協에 合意하게 되었다는 것이다.<sup>(47)</sup>

記者會見席上에서 田中은 소련指導者들이 領土問題가 가장 중요한 未解決問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立場은 그 문제가 복잡하여 하룻밤 사이에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며 兩側이 성의를 갖고 회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田中은 附言하였다. 또한 모스크바에서의 자신의 활동은 交渉이 아니며 자기와 브레즈네프 사이의 솔직한 意見交換 및 非公式的豫備會談이 있다고 말하였다.<sup>(48)</sup>

內閣官房長官 二階堂은 記者에게 未解決問題는 北方領土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였다.<sup>(49)</sup> 田中首相과 大平外相도 소련이 領土問題의 내용에 있어서 어떤 立場을 취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田中 자신의 말에 의하면 北方領土返還을 日本이 요청한데 대한 소련측의 반응은 “어제서야 領土問題를 正式으로 제기하지 않았는가?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非合理的이다. 당신이 아무리 獨裁者라 하더라도……”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田中은 자신이 크레믈린에서 獨裁者라고 불리울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며 끝내 領土問題를 阜上(交渉)에 올려 놓은 것이 自己의 業績이라고 말하였다.<sup>(50)</sup>

大平의 표현을 빌리면 日本은 그 문제를 구체적 교섭을 위한 廣場에 가져다 놓는데 성공하였고 交渉을 위한 길을 더놓았다고 하였다. 未解決諸問題가 領土問題(보다 구체적으로 에또로후와 구나시리를 포함)를 언급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소련측의 확인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大平外相은 직접적인 회답

(46) Gaimusho, *Tanaka Sori Daijin no Sorempō Homon*, Oct. 1973, pp. 34-35.

(47) *Mainichi Shimbun*, Oct. 11, 1973.

(48) Gaimusho, *op. cit.*, pp. 28, 35.

(49) *Mainichi Shimbun*, Oct. 12, 1973.

(50) Gaimusho, *op. cit.*, p. 35.

을 회피하였다. 그는 답변에서 소련의立場은 領土問題外에 經濟協力에 관한基本原則, 武力不行使, 外交關係를 規定하는 諸基本原則등이 平和條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未解決問題라고 單數의 표현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다. 領土問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소련의立場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역시 大平은 명백한 대답을 회피하였다. 그 질문에 대하여 소련측은 共同聲明에 領土라는 표현을 插入하는 것을 始終一貫 회피하였다고 답변했을 뿐이다. 에도로후와 구나시리 문제が 明年の交渉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大平은 “물론이다. 우리는 交渉에 임하는데 있어 領土를 分配하려는 의도는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sup>(51)</sup>

이와같이 領土問題에 관한 對蘇交渉을 끈기있게 전개하겠다는 日本側의 의도와 決意는 지극히 명백하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田中首相도 大平外相도 구체적으로 領土問題에 대한 소련立場의 정확한 내용이라던가 未解決諸問題에 領土問題가 포함되느냐는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피하였다는 사실이다.

1973年の 頂上會談이 領土問題에 있어서 커다란 前進을 의미하느냐 하는 評價는 容易하지 않다. 그러나 筆者の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소련側은 領土問題를 토의하겠다는 것과 領土問題가 未解決諸問題에 포함된다는 것을 적어도 私的으로, 非公式의으로 合意했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서는 日本側에서 볼 때 약간이나마 進前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련立場의 實質的 内容에 變更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사실이다. 筆者와의 私的 面談에서 소련의 政府內外 專門家들은 未解決諸問題는 領土問題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頂上會談의 終了 2日後 日本 新聞記者가 *Izvestiya*紙의 쿠드랴프체프氏와面談을 가졌다. 쿠드랴프체프는 頂上會談의 結果, 특히 兩國間 經濟協力 增進에 관한 合意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共同聲明에 未解決諸問題를 언급한 귀결이 있다고 하나 그것은 소련立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쿠드랴프체프氏는 대답하였고 소련 태도에 변화가 있지 않았는가라고再次 질문을 받자 公式文書에는 領土問題에 대하여 一言半句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그는 이 領土問題를 촉진하거나 선동하려 한다면 蘇日協商

(51) *Ibid.*, pp. 30-32.

을 저해하게 되며 蘇日關係의 發展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日本에게는 油類의 必要性이 두 개나 네 개의 島嶼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領土問題만 생각하는 대신 보다 큰 문제들을 檢討하면 어떠냐”고 附言하였다. 또한 그는 日本 國會議員 石田이 自己를 방문하였을 때 領土問題의 해결이 全日本國民의 진지한 염원이라고 말하였는데 自己는 소련도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여론은 島嶼의 返還에 반대한다고 石田에게 말하였다고 덧붙였다.<sup>(52)</sup>

頂上會談의 終了直前 日本 朝日新聞記者의 질문을 받고 プラウダ紙 오프치니코프氏는 日本의 주장이 蘇日關係의 촉진에 이롭지 못하다고 말하였다. 그의 생각으로는 소련과의 關係改善에 반대하는 日本의 國內勢力이 民族主義에 호소하며 兩國間의 友好關係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兩側은 먼저相互受諾할 수 있는 문제로부터 合意하여야 하지, 한 문제의 해결이 다른 문제의 해결을前提로 한다는 論理下에서는 아무 進前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北方領土에 관한 소련政府의 公式立場은 1960年代 것과 똑같다고 말하였다.<sup>(53)</sup>

이와같이 頂上會談前後에 있어서 소련의 領土問題에 대한 자세는 從來와 같이 硬直된 것이었다. 頂上會談時 日蘇指導者間에 과연 어떠한 구체적인 의견교환이 있었는지는 발표되고 있지 않으나 頂上會談數年後 日本政府는 소련의 最高指導者 브레즈네프 자신이 未解決諸問題에는 領土問題가 포함된다는 認識을 명백히 表明하였다고 밝혔다. 1973年 頂上會談直後 筆者は 日本側으로부터 그러한 說明을 私的面談에서 받았으나 日本政府官吏가 日本國會委員會席上에서 公式으로 발표한 것은 會議後 數年이 경과된 時點이다.

1977年 6月 6日 日本 衆議院 外務委員會에서 大坪健一郎委員이 질문에 나서 1973年 10月 田中·브레즈네프會談時 四個島嶼가 未解決諸問題에 포함된다고 소련側이 확인했다고 듣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에 관한 내용을 꼭 듣고 싶다고 하였다. 그에 대해 宮澤泰 外務省 歐亞局長이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였다.

“그때 (1973年 10月 10日 最終會談에서) 日本側 田中總理大臣은 共同聲明

(52) *Mainichi Shimbun*, Oct. 13, 1973.

(53) *Asahi Shimbun*, Oct. 11, 1973.

안에 四島의 문제를 明記하도록 강력히 주장했었지만 소련측의 意向도 있고 하여 결국 만들어진 文章은 ……未解決의 諸問題를 해결하고 平和條約을 締結하는 것 그런 표현으로 共同聲明을 매듭짓기로 된 것입니다. 단지 田中總理大臣께서 ‘未解決의 諸問題中’에는 四島의 問題가 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더니 브레즈네프書記長은 그렇다고 답변하였기에 田中總理大臣께서再次 ‘諸問題’中에는 四島가 들어 있다는 것을 한번 더 브레즈네프書記長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셨더니 브레즈네프書記長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좋다고(그렇다) 肯定한 경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日本側이 만든 상세한 會議錄안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같은 席上에서 鳩山外相도 未解決問題에는 領土問題가 포함된다는 것을 口頭로 再確認한 바 있다고 言明하였다.

渡部一郎이 議事錄이라 해도 合意議事錄도 아닌 雙方의 署名도 없는一方의인 議事錄, 正式으로 協定된 文書가 아닌 것으로 그런 주장을 하며는 次後에 극히 일이 묘하게 되지 않느냐고 문자 宮澤局長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會議錄, 이것은 방금 지적하신대로 雙方에서 合意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당시 會議에 立會한 日本側 사람이 자세히 기록한 會議錄인 까닭에 그나름대로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宮澤局長이 共同聲明을 만들때 口頭로 그런 確認이 있었고 그 증거로서 外務省의 記錄이 있다고 한 것이라고 하자 渡部委員은 “協定 交渉이 끝난 후에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해도 그것이 公的인 것이 아닌 이상 나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며 次後 注意를 원한다고 하자 宮澤局長은 “제가 外務省의 기록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그것을 설명하는 어떤 資料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답한 것으로서 그것을 근거로 소련에 대해 領土返還을 요구한다는 의미로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이 문제를 筆者가 提起한 즉 소련側은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단정적으로 否認하고 있다.

#### F. 소련이 返還에 응하지 않는 真意

소련이 北方領土의 返還을 거부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고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첫째, 日本政府가 요구하고 있는 四島를 返還하더라도

日本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우려가 소련側에 있다. 즉 四島 다음에는 北部쿠릴列島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南樺太마저 日本은 요구할 것이라는 고려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70年 11月 13日附의 *Izvestiya*紙上の 쿠드랴프체프記事에 그러한 소련側의 의혹이 나타나고 있다. 그記事는 日本復讐主義者の 段階的 要求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소련 專門家들이筆者에게 그러한 의심을 표명한 일도 있다.

소련側이 그러한 의심을 갖게 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根據가 있다. 執權黨인 自民黨을 제외하고는 日本의 全野黨이 四島 以上의 地域에 대한 領土權主張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領土問題에 대한 日本 各政黨의 見解와 立場은 상세히 後述하겠다. 하여간 領土問題의 最終的 處理에 대한 日本側 立場을 고려할 때 소련이 에또로후와 구나시리를返還한다면 北部쿠릴列島와 南樺太에 대한 소련의 領土權主張의 法的 根據를 약화시킬지도 모른다.

둘째로, 이 문제에 대해 소련이 양보를 한다면 판도라의 箱子를 여는 격으로 되어 소련에 대해 領土問題로 不滿이 있는 他國을 자극하여 領土返還을 추구하게끔 자극하게 된다는 인식이 소련측에 있다. 이 점에 관하여 日本의 北方領土返還主張을 中國人民共和國이 支持하고 있다는 것을 念頭에 두어야 하는데 이事實이 소련으로 하여금 領土問題에 대하여 极도로 예민해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련은 第二次大戰後의 國境은 最終的이라는立場을 고집하고 있다.<sup>(54)</sup>

中國이 日本의 主張을 支持한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예를 들자면 1973年 1月 10日 中國을 방문한 木村武雄氏에게 周恩來는 日本이 全ку릴을 회복할 권리가 있다고 확인한 1964年的 毛澤東의 言明이 아직도 中國의 立場이라고 말하였다. 第19次 黨大會의 政治報告에도 만일 소련이 國際政治에 있어서 떼땅트로의 進前에 관심이 있다면 왜 日本에게 四島를返還함으로써 그 誠實性을 보이지 않는가라고 말하고 있다. 筆者が 1976年 가을 中國을 방문하였을 때 北京市內 到處에 있는 揭示板에 日本의 北方領土返還運動의 사진과 함께 中國의 支持를 表明하는 글이 실려 있음을 보았다.

이 문제에 대한 소련의 反應은 민감하다. 1964年 9月 15日 訪蘇中인 日本

(54) *Pravda*, Sept. 2, 1964; *International Affairs*, Oct. 1964, p. 80; *Izvestiya*, Feb. 4, 1972.

議員代表團과의 會議에서 中國의 소련 領土에 대한 주장을 언급하였으며 그 후 프라우다紙는 日本의 領土權 主張에 대한 毛澤東의 支持를 규탄하는 長文의 글을掲載하였다. 그一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平和, 革命 및 社會主義의 利益을 배반하면서 毛澤東과 그 支持者들은 日本 獨占부르죠아지의 極反動勢力과 實質적으로 協力하고 있다. ……反蘇主義의인 그는 심지어 소련 領土의 一部—쿠릴列島—에 대한 報復主義者の 요구를 支持하기까지 하였다…… 毛澤東은 反蘇感情을 부채질하며 가장 反動的 劢力의 民族主義的 感情을 이용하는데 여념이 없다……”<sup>(55)</sup>

1972年 2月 4日附 Izvestiya紙는 中國이 北方領土에 대한 日本의 요구를 지지하는 것은 中國自身의 反蘇世界戰略과 霸權的 渴望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박하고 北京의 支持는 자극적이며 日本內 一部勢力의 報復主義的 傾向과 民族的 感情을 선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세째로, 소련側은 시간이 갈수록 자기들에게 有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소련이 統治하는 현상이 오래 갈수록 소련의 領土權主張의妥當性이 강화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소련의 兩獨逸과의 관계, 그리고 究極의으로 두개의 獨逸로서 國際的으로 고정된 것 등을 想起하면서 日本이 언젠가는 現在의 國境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념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소련은 믿고 있다. 소련 專門家가 그러한 견해를 表明하는 것을 筆者는 직접 들은 적이 있다. “獨逸方式”的 적용을 희망하는 소련의 立場은 다음 글에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日本支配勢力의 立場은 他國民의 領土에 대한 報復主義的 國境變更 및 領土權主張을 公式政策으로 하고 있던 前西獨政府의 破產된 정책과 비슷하다. 그 政策은 유럽情勢를 여러 난관으로 이끌었는데, 그것은 歷史의 흐름에서 失敗할 운명이었다. 유럽에서의 戰後國境線의 不可侵을 확인한 소련과 獨逸聯邦共和國間 및 폴란드와 獨逸聯邦共和國間의 條約締結은 國際情勢發展에 있어서의 새로운 추세를反映한 것이며 平和와 安全의 利益에 부합되는 것이다.”<sup>(56)</sup>

네째로, 소련측에서 본 北方領土의 戰略的 價值가 또 하나의 要因이다. 소련軍은 문제의 領土의 放棄를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소련海軍의 見地에

(55) *International Affairs*, Oct. 1964, pp. 80-84.

(56) *Pravda*, Nov. 1970; *The Current Digest of the Soviet Press*, Dec. 22, 1970.

서 보면 쿠릴列島(에도로후와 구나시리 포함)는 소련極東을 위한 防波堤가 되어 安全과 太平洋作戰에의 편리한 通路를 제공한다. 사하린·쿠릴交換條約 交涉 당시 러시아는 日本이 全ку릴列島를 취득하는 것을 러시아 함대가 海峽을 통과할 수 없다는 근거로 반대한 일이 있었다. 그리하여 사하린을 放棄하는 대신 日本이 오네코단 以南의 쿠릴을 取得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sup>(57)</sup>

1964年 5月 26日 미코얀은 池田首相에게 에도로후와 구나시리는 작은 섬이나 카차카에의 出入口이며 소련이 放棄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1964年 7月 14일에는 흐루시쵸프가 日本 社會黨 代表團에게 에도로후 및 구나시리는 經濟的 價值는 없으나 軍事的으로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유는 카차카에의 通路이며 소련 防衛線이라는 것이었다. 흐루시쵸프는 그 후 1964年 9月 15일에도 日本人 訪蘇團에게 같은 얘기를 한 바 있는데 그 때 하보마이와 시끄단에 대해 언급하면서 兩島嶼는 經濟上의 중요성은 작으나 戰略上, 防衛上으로 중요하다고 言明하였다. <sup>(58)</sup>

최근에 소련이 쿠릴列島의 經濟的 價值를 再評價하는 듯한 징후가 보인다. 소련은 사하린(樺太)과 쿠릴列島의 大規模開發을 계획하고 있는데 소련의 雜誌 “極東의 諸問題”에掲載된 사하린州 第一書記 헤오노프의 論文에 그 開發方針이 발표되고 있다. 그 論文에 의하면 第二次大戰後 사하린과 쿠릴列島 全地域에 커다란 經濟的, 文化的 發展이 있었고 소련 本土와 연결된 一大工業地帶로 변하고 있다고 한다. 그 중 南部쿠릴에 대해서 1980年代까지는 極東의 工業的, 科學技術的, 文化的인 總合基地로 만들 계획이 진행중이라고 한다.

1978年부터 소련이 에도로후와 구나시리島에 軍事基地를 構築하여 1979년에 이르러서는 시끄단島에도 소련軍이 配置되는 등 최근에 이르러 北方領土에 있어서의 소련의 軍事力 強化는 政治的 意圖外에도 SLBM基地, 오호츠크海가 갖는 戰略的 意義에 관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近來의 소련의 北方領土에 대한 軍事力 強化의 意義와 그것이 日蘇關係에 미친 영향등은 앞장에서 다루었다.

소련도 領土問題의 解決없이 平和條約을 체결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인

(57) Hoppo Ryodo Fukki Kisei Domei, *op. cit.*, pp. 13-14.

(58) *Ibid.*, p. 14.

식하고 있다. 소련은 平和條約이 없는 상황에서 兩國間 關係를 보다 공고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一連의 協定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있다. 友好條約, 相互不可侵條約, 經濟協力條約, 善隣協力條約등이 그 예다. 소련측이 보기에는 이러한 協定은 兩國間 完全正常化와 소련이 추구하는 集團安保體制로의 一步 前進을 의미한다.

### G. 日本側 領土權 主張의 真意와 領土問題에 대한 各政黨의 見解

#### 1. 日本側 領土權 主張의 真意

日本側 主張을 규정하는 要因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注目할 것은 日本側은 소련이 문제의 島嶼를 返還하리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日本의 對蘇 領土權 主張이 他國으로 파급되는 것에 대한 소련의 危懼도 인식하고 있지만 보다 기본적으로 일단 取得한 領土를 소련이 放棄한다고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현실적으로 返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알면서 그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고려가 작용한다.

1) 領土問題란 民族主義感情을 자극하는 것으로 政治人이면 右翼이건 左翼이건 아무도 그 감정에逆行할 수 없다. 日本의 各政黨의 北方領土返還 要求를 보면 이것이 명백하다. 各政黨 立場의 상세한 내용은 後述할 것이다.

北方領土 返還要求는 超黨的 支持를 받고 있다. 大衆의 여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매스미디어 특히 有力한 朝日, 每日, 讀賣같은 日刊紙가 취하는 입장이다. 이 점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日刊紙같은 엘리트 여론이 四島返還 없이는 소련과의 平和條約 체결에 반대한다는 日本政府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特記할 만한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一般國民의 여론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全國的으로 보아 과거의 오끼나와 返還運動에 비고하면 國民輿論의 結束이 약한 느낌이 있다. 이는 다음의 몇 가지 원인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 ① 北方領土에는 日本人 一人도 居住하고 있지 않으며 撤收한 島民 16,745人中 약 79%가 北海道에 定着한 결과 返還運動을 全國的으로 전개하기 곤란하다는 점, ② 자신의 生活에 아무 관련이 없다는 각각에서 日本人中에 返還運動에 대해 무관심한 層이 상당히 있다는 점, ③ 北方領土問題에 대한 見解, 要求條件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國民輿論의 統一이 곤란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 ④ 一部

日本人들은 領土問題를 經濟關係등에 있어서 日本이 가지고 있는 對蘇 壓力 지렛대라고 보고 있으며, ⑤ 極少數의 日本人이지만 中蘇紛爭과 같은 중대한 위기가 오면 日本의 中立을 뒷가로 소련이 北方領土를 返回하지 않을 수 없게 될지 모른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따라서 領土主張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日本 識者中에는 에또로후와 구나시리島는 당분간凍結해 두고 平和條約을 체결해야 한다는 하보마이와 시쿄단 二島返還論者도 있다. 北海道根室의 經濟界에도 그런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나 北海道는 물론返還運動을 전개하고 있는 기타 諸團體는 모두 四島 一括返還의 立場을 취하고 있다.

2) 領土問題에 영향을 주는 他要因의 하나는 러시아에 대한 전통적인不信感, 특히 第二次大戰 末期에 소련이 中立條約을一方的으로 違反한데 대한 日本人의 분노이다.<sup>(59)</sup> 時事通信이 每月 輿論調查를 하는데 1960年 이래 계속적으로 가장 많은 퍼센트의 日本 國民이 소련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라고 지적하고 있다.

3) 소련政府가 將來에 소련統治에 대하여 아무 異議가 없었다는 根據로 그 統治를 正當化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해서도 계속 問題化하여야 된다고 日本政府는 생각하고 있다.<sup>(60)</sup>

## 2. 領土問題에 대한 各政黨의 見解

### 1. 社會黨

社會黨의 從來의 立場은 日蘇平和條約을 締結하여 하보마이와 시쿄단 兩島의返還을 실현한 후 日美安保條約을 廢棄하고 日本을 圍繞한 國際關係, 日蘇關係의 改善을 통하여 에또로후, 구나시리와 기타 北方領土返還에 관한 交渉을 계속한다는 것이었다.

1975年 日本社會黨에 대한 질문에 응하여 社會黨의 公式答辯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9) "Fuho Senyu sareta Hoppo Ryodo," *Seikai Orai*, June 1972, pp. 62-68; T. Hanami, "Hoppo zen Ryodo ga Nihon Ryo da," *Seikai Orai*, Jan. 1970, pp. 40-41; Getsuyokai Repoto, *Hoppo Ryodo no Sho Mondai*, Dec. 22, 1969, pp. 18-20.

(60) S. Sugiyama, "Ryodo Mondai wa donattaka," *Sekai to Nippon*, Nov. 26, 1973.

北方領土에 관한 社會黨의 方針은 1961年 10月 8일의 中央執行委員會決定 이래로 변화가 없다. 第二次大戰후의 戰後處理의 基本을 결정한 포츠담宣言이나 카이로宣言의 原則으로 보아도 1951年 9月의 샌프란시스코條約에서 北方領土는 放棄되지 않았어야 할 것이다. 放棄하지 않아야 할 北方領土를 放棄한 吉田內閣의 중대한 過誤와 그것을 放棄시키게 한 美國政策에 北方領土問題의 중대한 原因이 있다.

千島列島 全體는 戰爭에 의한 强奪이나 侵略으로 取得한 것이 아니니 千島列島 全部가 본래 日本의 領土라야 된다. 즉 에또로후·구나시리 以南의 諸島는 1855年의 日露下田條約에 의하여 日本領土임이 확인되어 있고 우룻 뿐만 以北, 즉 北千島는 1875년의 権太交換條約에 의하여 日本이 取得한 것이다. 얄타秘密協定은, 一協定이 그 協定에 參여하지 않은 제3국을 制約할 수 없다는 國際法原則에 따라 日本을 拘束할 수 없다.

放棄하면 안될 千島를 放棄하여, 당시 吉田內閣은 “放棄한 千島列島에는 당연히 南千島도 포함된다”고 國會에서 답변하고 있고 이것이 池田內閣에 와서 갑자기 “에또로후, 구나시리, 하보마이, 시쿄단은 千島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放棄한 것이 아니다”라고一方的으로 태도가 변경되었다. 그러나自身이 放棄해 놓고 그 후에一方的으로 放棄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多數國間 條約의 變更이 될 수도 없고 또 國際法上 效果를 갖는 것도 아니다.

1956年에 日蘇共同宣言은 平和條約을 締結하여 그 때 하보마이와 시쿄단을 返還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니 그 根據에 따라 日蘇平和條約을 締結하여 우선 하보마이와 시쿄단 兩島의 返還을 實現한다. 동시에 소련을 假想敵國으로 하고 있는 日美安保條約을 廢棄하여 日蘇間의 友好關係를 증진하면서 에또로후와 구나시리, 그리고 其他 北方領土 返還에 관한 交渉을 계속한다. <sup>(61)</sup>

최근의 社會黨文獻에 의하면 千島全體의 返還을 추구한다는 입장이 黨基本方針안에 明記되어 있다. <sup>(62)</sup>

현재의 社會黨의 立場을 설명한 것은 1977年 6月 30일에 成田委員長이 島根에서 발표한 談話이다. 그 내용은 “日蘇共同宣言에 기초하여 하보마이와

(61) *Nihon Shakaito e no Shitsumon ni Kotaeru*, 1975, p.33.

(62) “1979 Nen Undo Hoshin,” *Gekkan Shakaito*, Rinji Zokan, March 1979, p.36.

시끄단兩島의返還을 실현하여 日蘇平和條約을締結하고 동시에全千島의返還을 확인하는交渉을 계속하여 日美安保體制의解消, 日蘇善隣關係의強化와相應하여 그실현을 한다”라고되어 있다. 이는河上國際局長이설명하고있는바와같이從來의主張과비슷하나특히日蘇平和條約을締結할때全千島返還의확인을한다는뜻을명백히하고있다.<sup>(63)</sup>

1979年社會黨定期大會에서一般黨務報告에대한質疑,討論時에多賀谷書記長이그점을명백히확인하고있다.

“1956年の日蘇共同宣言을기초로하보마이, 시끄단兩島의返還을실현하여日蘇平和條約을締結하고,동시에全千島返還의확인을하여交渉을계속하고,日美安保體制의解消,日蘇善隣關係의強化와相應하여그實現을企圖한다.”<sup>(64)</sup>

#### ۲. 共產黨

共產黨의 견해에 의하면戰爭의結果로서가아니라日本政府와러시아政府와의交涉을통하여(1855년및1875년의兩條約을가리킴)全千島가日本의領土가되었다는歷史的事實로보아北海道의一部인하보마이와시끄단은물론千島全體가日本의領土라는것이다.

第二次世界大戰의過程에서大西洋憲章이나카이로宣言에확인된領土不擴張의公約이背反되어얄타協定으로樺太南部와千島列島를소련에게譲渡하기로되었다.日本은敗北後포츠담宣言을受諾하였고1951年샌프란시스코條約第二條C項으로樺太와千島에대한權利,權原,請求權을放棄하기에이르렀다.문제는日本政府가오늘날도샌프란시스코條約을嚴守한다고주장하면서반면소련에게北方四島를返還하라고요구하고있는데있다.

日本政府는샌프란시스코條約에調印한후구나시리와에또로후는千島가아니며하보마이,시끄단과더불어北方四島라고말하고있는데이것은샌프란시스코條約으로權利,權原,請求權을放棄한것을기반하는것이다.同條約에의하여請求權까지放棄한다고誓約하였으면서소련에게Northern四島를返還하라고주장하는것은國際法의으로아무根據가없다는것이명백하다.이는國際法上으로뿐아니라國際政治的으로도說得力이없다.따라

(63) “1978 Nen Undo Hoshin,” *Gekkan Shakaito*, Rinji Zokan, May 1978, p.189.

(64) “1979 Nen Undo Hoshin,” *Gekkan Shakaito*, Rinji Zokan, March 1979, p.130.

서 日本共產黨은 千島返還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샌프란시스코條約二條 C項의 廢棄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國際法上 아무 根據도 없이 領土返還을 주장하면서 日美軍事同盟條約에 基礎를 둔 日美軍事協力의 指針을 결정하며, 軍事과 쇼에의 길을 열 戰時立法의 制定을 公言하고 軍國主義의 復活에 박차를 가하려 하고 있는 등 不必要하게 소련을 자극하면 千島問題의 解結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 것이라고 共產黨은 주장하고 있다. <sup>(65)</sup>

共產黨이 제안하고 있는 領土問題解決案은 다음과 같다. 첫째, 北海道의一部이며 日本의 領有權이 國際法上 아무런 問題로 된 적이 없는 하보마이와 시코단의 即時返還을 目標로 한다. 둘째, 千島列島에 대하여는 샌프란시스코條約 第二條 C項의 廉棄를 關係諸國에 通告하여 國際法上의 根據를 확립하며 또한 日美軍事同盟으로부터 日本이 이탈하는 등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 北千島를 포함한 全千島의 返還을 企圖한다. <sup>(66)</sup>

## 二. 民主社會黨

民社黨은 北方領土의 全面返還을 요구하고 있다. 소련의 占有는 國際法上不當하며 日本은 返還을 要求할 正當한 權利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論據는 다음과 같다.

① 하보마이와 시코단은 역사적으로 보아 본래 北海道의 一部임이 歷歷한 사실이다.

② 구나시리와 에또로후는 1855年の 日露下田條約에서 확인되어 있듯이 명백히 日本固有의 領土이다.

③ 우룻뿌 以北의 소위 쿠릴諸島로 말하자면 1875年の 日露権太·千島交換條約에 기초하여 合法的으로 日本國에 歸屬하게 되었으므로 본래 日本領土로서 日本國의 主權下에 두어야 할 것이다.

④ 소련은 北方領土에 대한 占有의 根據를 알타協定에서 찾고 있으나 該當國의 同意없이 성립된 제3자의 秘密協定에 의하여 該當國 領土의 一部가 一方의으로 移轉된다는 것은 國際法上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日本은 아무拘束도 받지 않는다.

⑤ 北方領土의 放棄를 規定하고 있는 對日平和條約 第二條 C項은 條約의

(65) *Riron Seisaku*, April 1979, pp. 84-85.

(66) *Ibid.*, March 1979, p. 64.

當事國이 아닌 소련에게는 당연히 아무 權利도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第二條 C項에 의하여 放棄한 “千島”라는 것은 “쿠릴諸島”를 말하는 것이며 예전으로 후 以南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그것은 日露下田條約과 樺太·千島交換條約등의 日蘇間의 歷史의인 確認으로 보아 명백하다.

⑥ 또한 大西洋憲章, 카이로宣言등에 明記되어 있는 舊聯合國의 領土擴張의 原則도 北方領土에 대한 日本의 返還要求의 正當性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sup>(67)</sup>

#### 己. 公明黨

公明黨은 北海道의 一部인 하보마이, 시코단 諸島와 外交交涉의 對象이 된 적이 없었던 日本固有의 領土인 구나시리, 예전으로 후 兩島의 返還을 實現하여 日蘇平和條約을 締結할 것을 主張한다. 또한 北, 中千島는 對話を 통하여 日本에게 歸屬시켜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sup>(68)</sup>

#### 口. 新自由클럽

新自由클럽의 北方領土問題에 대한 입장은 自民黨과 별로 差異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新自由클럽 文獻인 “우리들의 基本理念”속에 있는 總合的인 安全保障이란 項目안에 다음과 같은 한 句節이 있다.

“北方領土問題에 대하여는 하루 속히 返還을 實現하여 소련과 戰後處理의 解決을 기도하여야 한다.” <sup>(69)</sup>

新自由클럽 代表로서 1978年 11月 訪蘇한 河野洋平(고노 요헤이)氏가 소련 首腦部와 갖은 領土問題에 관한 對話內容을 보면 新自由클럽으로서의 立場을 엿볼 수가 있다. <sup>(70)</sup>

#### 日. 社會市民聯合

社會市民聯合은 1977年 6月의 “80年代의 選擇을 위하여”라는 文獻에서 日蘇平和條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提案을 한 바 있다.

“日蘇平和條約에 대해서는 條約의 締結과 동시에 하보마이, 시코단 兩島의 返還을 실현하며, 구나시리와 예전으로 후 兩島의 歸屬은 將來의 日蘇兩國

(67) *Minshato Seisaku Handobukku*, 1976, pp. 92-93; *Kakushin*, June 1979, p. 184.

(68) “Seiji Kakushin o Shiko suru Komeito no Godai Seisaku,” *Komeit Shimbun*, August 5, 1979; “78 Nen Kihon Seisaku,” *Komeito Handobukku*, 1978, p. 124.

(69) *Shin Jiyu Kurabu, Warera no Kihon Rinen*, p. 19.

(70) *Gekkan Shin Jiyu Kurabu*, Dec. 1978, pp. 14-21.

間의 友好進展, 아시아와 世界趨勢의 發展하에서 그 返還을 促進한다.”<sup>(71)</sup>

#### 八. 社會民生聯合

1978年 3月 社會民生聯合 全國結成大會에서 社民聯은 “外交政策에 대한 새로운 選擇”을 채택하였다. ‘平和共存과 積極的 中立의 實現을 위하여’라는 項目에 다음과 같은 日蘇關係에 대한 귀절이 있다.

“日蘇關係는 하보마이, 시끄단, 구나시리, 에또로후 四島의 返還을 期하여 日蘇平和條約의 早期締結을 指向한다.”<sup>(72)</sup>

### IV. 經濟關係：日本의 시베리아 開發協力

#### A. 開發프로젝트의 性格

시베리아開發에 日本이 參加하는데 대한 交涉이 1960年代 後半期에 이르러 結實을 맺게 되었다. 이에 관하여 1968年부터 71년까지 세개의 協定이 성립되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sup>(73)</sup>

① 第一次 極東森林資源開發프로젝트는 1968年 7月 基本契約이 성립되었다. 日本은 1億 3千 3百萬弗의 supplier's credit를 제공한다(先級金 20%; 金利 5.8%; 延拂期間 5年; 債務全額을 1973年 12月 31日까지 償還). 日本은 森林開發用 設備, 機械, 資材를 수출하고 이 외 信用限度外로 3千萬弗의 消費品을 수출한다. 그 뒷가로 소련은 1969년부터 1973년까지 木材 760萬m<sup>3</sup>와 製材 32萬m<sup>3</sup>를 수출한다. 이 프로젝트는 1973년 말에 終了하였다.

② 부란겔灣 港灣建設프로젝트는 1970年 12月 18日 基本契約에 調印하였다. 日本은 8千萬弗의 supplier's credit를 제공하고(先級金 12%; 金利 6%; 延拂期限 7年) 港灣建設用 設備, 機械, 資材를 輸出한다(1975年 12月末 現在 輸出達成率은 97%이다).

③ 렘프材·치프開發프로젝트는 1971年 12月 基本契約이 성립하였다. 日本은 4千 5百萬弗의 supplier's credit를 제공하고(先級金 12%; 金利 6%; 延拂期限 6年) 치프材 및 렘프材 生產을 위한 設備, 機械, 資材를 수출하여

(71) *Shakai Shimin Rengo, 80 Nen Dai no Sentaku no Tameni*, p.117.

(72) *Shaminren, Heiwa, Jinken, Jiyo, Koseina Kokusai Chitsujo no Sojo no Tameni*, p. 3.

(73) K. Ogawa, *Nisso Boeki no Jitsujo to Kodai*, 1979; S. Takayama, *Nisso Kansei*, 1978.

그의 現金베이스로 5百萬弗의 消費物資를 수출한다. 그리고 소련으로부터 1972年부터 81年 사이에 페르모 470萬m<sup>3</sup>와 첫 800萬m<sup>3</sup>를 수입한다.

그 후 1974년에 3개, 1975년에 4개의 프로젝트에 調印을 보았다.

① 南아쿠초크 原料炭開發프로젝트는 1974年 6月에 基本契約에 調印, 이것이 에너르기자원 開發事業의 제 1호가 되었다. 日本이 4億 5千萬弗에 해당하는 圓의 銀行借款(bank loan)을 제공하고 (供與期間은 1975년부터 1982년; 返済期間은 1983년부터 1990년; 金利는 6.375%) 機械, 設備(貨物自動車, 起重機械, 石炭企業用設備等)를 수출하며 소련으로부터 原料炭을 1983년에는 320萬t, 1984년에는 420萬t, 1985년부터 1998년까지는 매년 550萬t, 그리고 꾸즈넷스炭을 1979년부터 1998년까지 매년 100萬t 씩, 합계 1億 440萬t을 수입한다는 것이다. 1978년 2월 현재 輸出達成率은 81.9%이다.

② 第二次 極東森林資源開發프로젝트는 1974년 7월 基本契約에 調印하였다. 日本은 5億弗에 해당하는 圓의 銀行借款을 제공하며 機械設備등을 수출하고 소련으로부터 1975年~79年 사이에 用材 1,750萬m<sup>3</sup>, 製材 90萬m<sup>3</sup>를 수입한다. 1978년 2월 현재 輸出達成率은 76%이다.

③ 사하린 大陸棚 石油, 天然가스探鑛프로젝트는 1975년 1월 基本契約에 調印하였다. 日本은 銀行借款으로 1億弗의 危險負擔信用을 제공하고 海洋掘鑿裝置를 포함한 探鑛用設備, 機械, 資材를 수출하며 2,250萬弗 상당의 探鑛用컴퓨터設備, 3,000萬弗에 해당하는 消費物資를 수출한다. 성공하지 못할 경우 償還하지 않으며 探鑛에 성공하면 銀行借款으로 油由, 가스田 關係用設備, 資材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다. 探鑛에 성공할 경우 生產物의 一定한 比率(石油의 경우는 50%)을 償還期間中 및 償還後 10년간 수입한다. 이 프로젝트에는 美國의 결프사가 참가하고 있고 1977년 10월 사하린北東部의 試掘에 성공하였다.

④ 야쿠초크 天然가스開發프로젝트에 관한 日·美·蘇 三國間의 基本契約은 1974년 12월에 調印되었다. 그리고 1976년 3월에 借款契約과 基本契約의一部改正調印이 있었다.

日本과 美國이 반씩 分擔하여 合計 5千萬弗을 제공하고 日, 美兩國이 探鑛에 필요한 設備, 機械, 資材를 供給하며 소련으로부터 日, 美가 각기 年間 100億m<sup>3</sup>의 天然가스를 操業 시작 이후 25년간 공급받게 되어 있다. 1978년 5월에 있었던 日·美·蘇 三國會議에서 소련측이 80년 中期에 개발계획

의 基本契約을 맺고 85년에는 液化天然가스 제공을 시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제안하였다.

## B. 소련의 시베리아開發 및 日本과의 經濟協力 推進의 意圖

### 1. 經濟的 考慮

소련은 시베리아와 소련 極東의 經濟發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日本의 資本과 技術을 필요로 한다. 第8次 經濟計劃(1966년~1970년) 당시 이미 이 지역에 많은 投資를 하였고 西部시베리아의 工業團地 設立에 특별한 중점을 두었었다. 1975년 終了한 제9차 經濟計劃에도 에너지資源의 開發에 역점을 둔 東方地區의 開發을 계속 추진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다. 西部시베리아의 原油 및 가스資源, 工業用 燃料類의 開發은 높은 優先順位를 차지하고 있다. 東부시베리아에서는 鐳物, 森林資源 및 電力의 開發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소련 極東에서는 採礦, 木材加工, 精油所建設, 港灣施設의改善은 물론 發電關聯諸施設의 整備에 중점이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一連의 計劃에서 소련이 추구하고 있는 重要目標를 엿볼 수 있다. 소련은 歐洲러시아로부터 시베리아에 걸쳐 諸主要經濟團地를 건설하여 北方資源을 이용하여 工業에 필요한 燃料와 資材를 공급하려고 한다. 그리고 시베리아의 資源을 수출함으로써 外貨를 획득하여 高性能機械와 消費物資를 수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西部시베리아 개발에 있어서 歐洲러시아의 역할을 부분적으로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나 東部시베리아와 極東地區의 開發에는 필요한 機械類, 建設資材, 消費品 輸送에 커다란 난관이 있다. 따라서 이 필요한 物資를 日本에서 導入하자는 것이 소련의 희망이다. 日本과의 經濟協力은 소련에게 두 가지의 主要惠澤을 가져 오는데 첫째, 소련資源의 안정된 市場이 된다는 것과 둘째, 經濟成長에 긴요한 高度의 技術을 취득할 기회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sup>(74)</sup>

1960년대에 이르러 소련의 經濟成長率은 현저한 下落趨勢를 보였고 勞動生產性을 向上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새로운 技術의 導入이 지극히 필요하였다. 近來의 經濟計劃의 特徵은 技術革新에 力點을 두고 있는 것이며 技術發展을 통하여 勞動生產性과 成長率을 높이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74) K. Saeki, "Ventures in Soviet Diplomacy," *Problems of Communism*, May-June 1972.

이 시점에서 몇가지 경제 데이터를 소개한다. 1969년 소련의 原油生產은 3億 2千 8百萬t 이었고 그 중 70%가 우랄山脈 以西에서 生產되었다. 소련指導者들은 1971년 제24차 黨大會에서 西部시베리아에 最大的 石油工業基地를 건설할 것과 투멘 以北의 가스供給源을 개발할 의도를 밝혔다. 開發의 重點이 되고 있는 西部시베리아의 면적은 220萬km<sup>2</sup>(日本의 약 6배)이며 투멘과 톰스크地區를 포함한다. 石油資源은 鄂江 및 그 支流에 근접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소련은 1964년에 原油生產을 시작하였고 總埋藏量은 400億t 으로 추정되며 100개 이상의 油田이 발견되었다. 1964년에는 鄂江沿岸地域에서의 生產量이 20萬t 이었으며 그 후 비약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소련 經濟計劃에는 1975년에 1億 1千 7百萬t 을, 1980日까지는 數億t 을 推算하고 있었다. <sup>(75)</sup>

1970년에 소련極東의 需要是 8百萬t 이었는데 北部사하린에서 250萬t 밖에 생산하지 못하였다. 나머지는 바이칼부터 탱크車로 輸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홋트카까지 送油管(파이프라인)을 建設하게 된다면 輸送費를 크게 절약하게 되며 極東地區에 精油所와 石油化學工業建設을 촉진하게 된다. 물론 소련艦隊, 商船, 漁船을 위한 공급도 용이하게 된다. <sup>(76)</sup>

1980년에는 투멘油田이 國內需要와 對外輸出에 필요한 소련總生產의 약 33%~37%를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되어 있었다. 소련 단독으로는 필요한 關聯施設을 建設하기 위한 막대한 資金을 出捐하기 힘든 것이다.

소련 文獻을 검토해 보면 日本과의 經濟協力を 어떻게 正當化하고 있는가, 또한 兩側에 어떠한 惠擇이 있다고 소련측이 판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소련측은 빈번히 자기들이 獨自的으로 시베리아開發 사업계획을 실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例를 들면 모스크바에서 蘇日頂上會談이 進行되고 있을 때 타스통신이 다음과 같은 報道를 하였다. “소련은 물론 이 課題를 自力으로 해결할 가능성과 方途를 갖고 있다. 그러나 소련은 자신을 세계에서 고립시킬 의사는 없다. 만일 다른 나라들이 平等과 互惠의 原則에 기초하여 소련과 經濟協力を 하겠다고 희망하면 소련은 그들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

頂上會談에서 브레즈네프가 시베리아開發 事業計劃을 상세히 설명하였으

(75) *Asahi Shimbun*, April 22 & Dec. 12, 1972.

(76) *Ibid.*, Feb. 21, 1972.

나 투멘油田이나 야쿠티아 天然gas資源 開發에 日本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입장은 취하지 않았다. 日本이 그러한 프로젝트에 협력하겠다고 하면 소련은 거절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을 뿐이다.<sup>(77)</sup>

日本과의 협력에서 소련이 얻는 혜택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문헌도 있다. 1972년 12월 日本 訪問中이던 시베리아開發問題의 권위자 니끄라이 네그라소프는 소련이 투멘프로젝트를 제일 重要視하고 있으며 소련으로서는 日本과 美國이 시베리아 開發에 있어서 最新技術을 支援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였다.<sup>(78)</sup> 소련의 美國學研究所 副所長 에프개 니 세루슈네프는 日本과의 經濟協力에서 소련이 얻는 혜택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 ① 對日本輸出의 專門化로 소련의 資源開發을 촉진시킬 수 있다.
- ② 日本과의 通商을 擴大할 수 있다.
- ③ 日本工業의 高度의 技術水準으로 소련極東의 經濟發達速度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 ④ 長期的으로 大規模去來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sup>(79)</sup>

田中首相이 1973년 10월 소련을 방문하기 수일전 모스크바 放送은 日蘇經濟關係의 現在와 將來에 관한 논평을 하였는 바 10월 4일부 논평에는 소련과 日本이 經濟協力を 함으로써 얻는 利得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소련의 主要課題의 하나는 충분한 動力과 其他資源을 개발하고 대규모의 工業벨트를 건설함으로써 시베리아와 소련極東에서 工業生產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소련은 제 9 차 五個年計劃下에서 자신의 努力과 財力으로 이 과제를 단속하게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完遂해야 하며 시간과 財源 그리고 資材를 절약하여야 한다. 최선의 방법은 財源과 資材를 取得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들로부터 銀行借款을 획득하는 것이다. 日本은 工業用 原資材가 없어서 國內需要도 충족시킬 수 없는 나라이므로 對蘇銀行借款을 제공할 가장 적합한 나라라고 생각된다.”

소련과 日本이 제휴한다는 것에 어떤 偽善的 要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파트너쉽 관계는 互惠의 原則에 기초하고 있으며 平等을 보장하고 상호

(77) FBIS: USSR, Oct. 9, 1973.

(78) *Asahi Shimbun*, Dec. 12, 1972.

(79) The Council on National Security Problems, *Peace in Asia*, 1973.

간의 利益을 존중한다. 日本이 제공한 銀行借款으로 소련이 資源開發을 촉진시킬 수 있다면 國內需要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借款支拂과 輸出擴大를 위해 보다 많은 物資를 생산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日本으로서는 시베리아와 소련極東에 燃料 및 其他資源의 공급을 위한 大規模基地가 설치된다는 것은 主要原資材의 長期的이고 안정된 구입을 의미한다. 오늘날 燃料와 原資材의 안정된 공급은 많은 나라에게 커다란 중요성을 갖는 것이다. ……資本主義國家間에 動力資源의 획득을 위한 투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시베리아로부터 日本까지의 燃料 및 기타原資材 輸送費는 短距離로 인해 저렴하다. 만일 시베리아 및 소련極東의 資源開發을 위한 共同프리제트에 日本企業이 참가한다면 그들의 過剩工業品을 팔 수 있는 展望이 밝고 信賴力도 있으며 안정된 市場을 제공할 것이다.”<sup>(80)</sup>

## 2. 政治的 考察

日本의 一部 專門家에 의하면 소련의 對外政策目標의 하나는 日本이 中國이나 美國과 밀접한 관계를 이룩하는 것을 저지한다는 것이다. 이들 專門家들이 보기에는 소련指導者의 최대의 惡夢은 美·日·中 三國間에 反蘇同盟이 성립되는 것이다. 70년대 초기에 이미 日中關係의 正常化가 急速度로 이루어졌고 美中關係에 和解傾向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소련의 입장에서 볼 때 시베리아開發에 日本이 참여한다는 것은 反蘇的結託을 부분적으로나마 파괴하는 것이 된다. 또한 日本을 가까이 끌어들임으로써 소련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아시아 集團安保體制의 構築에로一步 전진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소련의 一外交官이 시베리아開發에 관한 蘇日經濟協力を “蘇日資源同盟”이라 칭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소련의 對日意圖를 示唆하는 흥미 깊은 발언이다.<sup>(81)</sup>

소련이 시베리아와 소련 極東地域을 개발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中國을 의식하였다는 해석을 증명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소련指導者들이 開發計劃 및 日本의 開發參與가 中蘇, 日中, 美中關係등에 갖는 政治的, 戰略的含蓄性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中國의 시베리아開發에 대한 反應은 後述하겠고 여기서는 소련이 中國의 태도에 극히 민감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소련의 言論機關은 튜멘油

(80) FBIS: USSR, Oct. 5, 1974.

(81) Asahi Shimbun, April 22, 1972; Ibid., May 12, 1973.

田의 日蘇共同開發에 반대하는 中國의 발언이나 투멘油田을 소련이 中國에 대한 軍事的 目的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등의 中國要人의 발언을 中國의 日本內政에 대한 干涉이라고 비난하였다. 1973년 가을 頂上會談이 끝난 얼마 후 타스通信의 비튜코프는 日蘇兩國民의 和解親善關係를 저지하려는 中國의企圖를 비난하며 다음과 같이 論評하였다.

“田中首相이 소련을 방문하기 전과 訪蘇中 毛主義者와 그 언론기관은 문자 그대로 反蘇 열명에 걸렸다. 北京指導者들은日本人들이 모스크바에서 무엇을 토의해야 하며 무엇을 토의하면 안된다는 것 등을日本人들에게 말하기까지 하였다. 시베리아 寶庫의 개발, 특히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送油管建設은 中國에게 戰略的 問題를 야기한다는 이유로 소련과 협력하지 말라고 日本에게 警告하였다……毛主義者들은 아시아에서의 集團安保體制構築案을 짓밟았다. 그들은 日本에게 領土權을 放棄하지 말라는 충고를 강요하고 있다. 毛主義者들은 소련과 日本人民間의 화해를 저지하기 위하여 아직도 이 노선에 집착하고 있다.”<sup>(82)</sup>

소련指導者들이 시베리아開發이 갖는 軍事的 含蓄性을 의식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느 정도妥當性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투멘油田의 開發과 送油管建設은 中蘇國境地域에 있는 소련地上軍과 소련極東艦隊의 石油需要를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소련指導者는 또한 日本에 대해 소련이 平衡力を 取得하게 되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日本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질수록 자기의 막대한 投資에서 오는 충분한 報酬를 보장받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소련에의接近, 密接한 관계를 강요당할지도 모른다. 소련으로부터 供給이 중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日本은 소련의 要望을 존중, 양보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日本과의 經濟協力を 논할 때 소련측은 그 長期的 性格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經濟協力의 政治的 意味에도 민감하다. 外國貿易省 第一次官세미차스트노프는 日蘇間의 協力事業은 15년이나 20년에 걸쳐 실시하게 되어 있고 諸事業이 長期的인 것이라는 사실 자체가 蘇日間의 友好的 善隣關係를 保全하고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였다.<sup>(83)</sup>

(82) FBIS: USSR, Oct. 19, 1973.

(83) CDSP, March 29, 1972에 引用되어 있음 : Izvestiya, March 1, 1972.

소련指導者들은 日本의 시베리아開發協力이 日美關係에 끼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있다. 소련은 오랫동안 日美兩國間의 밀접한 政治的, 軍事的, 經濟的 유대를 우려하고 注視하여 왔다. 1970年初期 日蘇關係에改善이 보였을 때 소련의 日美安保條約에 대한 근심의强度가 다소 감소되었으나 이 日美安保體制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소련의 의도는 여전히 강력할 것이다.

日美間의 政治, 經濟의 유대를 차단하려는 의도는 소련文獻에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1971년 7월과 8월의 소위 닉슨쇼크(Nixon shock) 후의 論說들은 日美間의 矛盾이 증대하고 있다고 빈번히 언급하고 있다. 소련의 저명한 日本問題 專門家인 드미드리·뻬트로프의 글에 의하면 日美間의 矛盾이 1971년 後半期에 극히 격화되었는 바 이는 通商經濟側面에 한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日美間의 見解差는 美國의 아시아軍事戰略에 있어서의 日本의 역할에 대하여서도 존재한다. 뼈트로프博士의 글을 부분적으로 引用한다.

“經濟와 軍事問題에 관한 워싱턴과 東京間의 심각한 의견차이는 최근 政治面에까지 확산되었다. 美國의 中華人民共和國과의 關係改善을 위한 조치로 日本內에 유달리 폭넓은 반응이 일어났다. 키신저의 北京訪問과 앞으로 닉슨이 中共을 방문한다는 보도에 대해서 東京에서는 비굴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 갑자기 그리고 日本外交의 가장 약한 부분을 쳤으니 더욱 감수하기 힘든 것이다.”<sup>(84)</sup>

소련의 “國際事情”이란 雜誌에掲載된 論評을 보면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의 두개의 强大國이 市場의 획득을 위하여 치열한 투쟁을 벌이고 있고” 또한 “帝國主義 經濟競爭의 論理로 볼 때 美國側의 矛盾은 ……더욱 深化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다.<sup>(85)</sup>

또한 1972년 4월 27일 프라우디紙는 최근 美國의 保護主義的 政策에 대해 언급하여 美日兩國이 兩立할 수 없는 그들의 通常經濟利益의 갈등을 무시하려고 해도 헛된 일이라 하고 있고 1973년 8월 4일 프라우디紙는 다음과 같은 要旨의 論評을 하고 있다. 資本主義世界에서는 에너지問題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그 資源을 위한 투쟁이 격렬해지고 있다. 日本과 美國의 충돌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世界二大帝國主義國家間의 심각한 矛盾은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84) FBIS: USSR, Feb. 22, 1972에 引用되어 있음.

(85) International Affairs, Feb. 21, 1972, pp. 111-112.

소련의 文獻은 日本이 美國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며 排他的 同盟關係를 갖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日本人에게 항시 경고하고 있다. 日本이 조금이라도 政策面에서 美國과 對立하거나 美國으로부터 獨립적인 경향을 보일 때 譲解를 아끼지 않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日本이 소련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선택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兩國間의 通商經濟關係의 확대를 力說하는 宣傳이 활발하며 兩國의 經濟利益의 相互補完의 요소를 강조하는 무수한記事를 볼 수가 있다.

日美關係의 惡化에 소련이 보이는 비상한 관심을 생각할 때 日本의 시베리아開發에의 參여가 日美關係에 미치는 영향을 소련指導者가 인식하고 있다 하여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日本 參與의 정도가 깊어질수록 日本의 親美一邊倒 姿勢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소련은 初期에 美國을 排除하고 日本과 雙務的인 協力關係를 갖기를 원하였고 그 후도 때때로 그런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소련이 自身의 交渉上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日本과 美國이 서로 경쟁, 對立하도록企圖하리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 몇 가지 이유로 그러한 자세를 修正하게 되었다.

① 日本側에서 美國의 參여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련이 日本政府의 支持를 얻으려면 日本側의 條件에 順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日本側이 왜 美國의 參여를 원하느냐는 後述하겠다.

② 소련, 日本 모두 永久凍結과 같은 自然條件下에서의 海洋探掘施設의建設面같은 분야에서는 美國이 가장 고도의 기술과 경협을 갖고 있으므로 美國의 技術面에서의 參여가 바람직스럽다고 보는 점이다.

여하튼 소련은 밀접한 經濟協力關係가 兩國間 關係나一般的인 改善에 加여한다고 믿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 입장이 1973년 10월 6일 Izvestiya紙에掲載된 구드랴프체프의 글에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광범위한 經濟關係가 생기게 되고 日本이 거기서 혜택을 받게 된다면 日蘇協力에 있어서의 心理的 障害要素가 제거될 것이다……결론적으로 말해 現段階에 있어서 蘇日關係의 發展은 대규모의 長期的인 協力의 必要性을 낳게 하고 그것은 蘇日關係全般에 참신한 폭과 깊이를 주게 될 것이다.”

經濟協力を 추진해 나가면 北方領土問題가 전적으로 사라진다고 소련指導者가 기대했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겠으나 그들은 領土問題를 사실상 조용

히凍結하게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졌었는지 모른다. 적어도 그들은日本의北方領土權主張의强度를 약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었는지 모른다. 이러한 해석도 어느정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여간 그러한 해석은北方領土問題가 진실로日本政府의人爲的創造의產物이라고하는 소련측의 생각과 부합된다. 소련측의 그러한 생각은獨占資本과企業利益이 사실상日本政府政策을 결정한다는 소련측의 인식, 또한日本의시베리아開發事業이日本經濟界로부터 폭넓은支持를 받고 있다는 인식과相通한다.

시베리아開發에 대한日本側의 관심을 소련측은 다음과 같이分析하고 있다. 日本은資本主義國家에 대한輸出에 있어서 점점 더 많은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日本의經濟界나政府內에서一方的으로偏向된日本의對外經濟活動의修正을提唱하고 있다. 소련과의通商,經濟交流에 대한日本側의 관심은經濟的必要性에 의해설명될 수 있으며 그것은日本의國家interest에合致한다는 것이다.<sup>(86)</sup>

구드랴프체프의글에의하면國家間의political關係는똑같이공고하고 안정된經濟的關係의土臺위에기초하여야튼튼하고안정된것이된다.<sup>(87)</sup>

소련측견해에의하면燃料및其他資源에대한日本의必要性和依存度로보아그런문제가당연히가장死活의인關心事라야한다는것이다. 거기에비하여Northern領土問題는報復主義者와日蘇關係의改善을저해하려는일부세력이선전,추진하고있는“非問題”내지人爲의인사소한문제이다. 가끔소련측은보다노골적인표현을쓴다.“日本國家interest으로보아어떤것이더중요한가?Northern領土나燃料및其他資源이냐?”

日蘇兩側의見解를접하고검토한筆者の판단으로는소련측은日本의Northern領土返還權主張의强度를과소평가하는반면日本側자신이본소련資源에대한必要性和依存度를과대평가하는것같다. 1973년頂上會談에서보인소련의자세를보면上記解釋과부합되는점이있다. 시베리아開發問題를Northern領土問題와는別個의것으로다루겠다는田中과大平의발언은소련指導者에게민족스러운것이었다. 頂上會談時に브레즈네프자신이시베리아開發의상세한計劃內容을2시간30분이나설명하였다. 그러한태도는소련이시베리아開發에부여하는중요성과日本協力에대한희망을정확히

(86) *Pravda*, Oct. 20에掲載되어있는V. Spandaryan의記事

(87) *Izvestiya*, Oct. 6, 1973.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北方領土返還을 요구해 오는 日本의 압력에 대응하는 소련의 戰略이란 면도 있을 것이다.

### C. 시베리아 開發事業에 대한 日本側 態度를 規定하는 要因

시베리아 開發事業에 日本側이 참여하느냐를 결정할 때 여러가지 고려가 작용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日本經濟가 燃料와 原資材의 繼續的인 輸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日本은 소비하는 全油類의 99%를 수입하고 있으며 한정된 저장능력과 확대일로에 있는 需要를 생각할 때 단일 油類輸入이 중단된다면 短期間內에 日本經濟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日本側으로는 供給의 安定이란 主要目標를 추구하는 것이다. 安定이란 國際政治의 變動이나 國際的 供給實情에서 비교적 면역성을 갖는 상황을 의미한다. 近來 OPEC諸國이 취해 온 一連의 政策으로 日本은 아랍國家로부터의 供給依存에 수반되는 문제에 극히 민감해졌다.<sup>(88)</sup>

日本은 工業先進國間의 치열한 경쟁을 의식하며 또한 특정한 하나의 供給源에 극도로 의존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供給源의 分散, 多角化를 追求한다. 그리하여 供給에 中斷이 있더라도 日本經濟가 입는 타격을 極小化하려고 한다. 供給源의 分散은 地域, 國家, 政治制度面을 考慮하여 追求한다. 日本은 자신이 소비하는 石油의 86%를 中東에서, 12%를 東南亞로부터 輸入하고 있다. OPEC諸國으로부터는 약 95%를 수입하는데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등이 주요한 供給源이다. 따라서 日本은 언제나 새로운 供給源과 原油生產 및 硫黃分 減縮등에 관한 새로운 技術革新에 민감한 것이다.<sup>(89)</sup>

소련과의 近距離로 인하여 輸送費가 적다는 것도 한 要因이다. 數年前 數值이지만 日本이 美國으로부터 石炭을 輸送하기 위해 t당 18弗을 지불하는데 비하여 소련極東으로부터 石炭輸送을 하면 t당 3弗이면 된다. 결국 투엔事業計劃은 日蘇間에 合意를 보지 못하였지만 契約이 성립하여 日本이 原油를 소련의 나홋트카港으로부터 日本에 수송하기로 되어 있었더라면 막대한 輸送費의 節約을 이루었을 것이다. 1t의 原油를 中東으로부터 수송하려면 日

(88) Saeki, *op. cit.*, pp. 4-5.

(89) "Siberian Energy for Japan and the U.S." 15th Session, Senior Seminar in Foreign Policy, U.S. Department of State, 1972~73.

本까지 10만t 텅커로 29日을 要하며 t당 700圓 내지 1,000圓이 필요하다. 반면 나홋트카로부터 日本까지의 경비는 약 1/5이며 2萬 5千 내지 5萬t급의 텅커로 2日을 要할 뿐이다.<sup>(90)</sup> 더구나 투멘프리제트는 20년간의 原油供給을 보장하게 되어 있었다. 즉 長期供給의 要件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또한 투멘油田의 原油는 硫黃分이 0.9~1.6%정도로 낮으며 日本에 수출되는 原油는 약 1%정도로 되어 있었다.<sup>(91)</sup>

日本은 높은 經濟成長率을 지속하고 國際收支均衡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輸出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점에서 소련의 非社會主義國家와의 貿易量의 增加를 주시하여 왔고 시베리아開發協力이 소련市場에 접근하는 좋은 기회라 보고 있다.<sup>(92)</sup> 日蘇貿易의 現狀과 展望등에 관하여는 後述하겠다.

上記한 經濟的 考慮外에 日本指導者들은 소련과의 밀접한 經濟協力關係가 갖고 있는 政治的 含蓄性을 인식하고 있다. 즉 소련, 中國, 美國에 대한 發言權과 平衡力を 취득하게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經濟協力으로 인하여 政治問題에 관해서 平衡力を 취득하게 된다고 보고 北方領土問題도 그러한 政治問題의 범주에 속할지 모른다는 희망적인 생각도 있다. 大規模의 經濟協力과 그것에 수반하는 兩國間 關係改善이 領土問題 解決의 契機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생각이다.

또 하나의 政治的 考慮는 中國에 관한 것이다. 日本政府가 시베리아開發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日中正常化後의 일이었다. 日本指導者들은 反蘇의인 日中間의 協力關係가 성립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련의 의혹과 不信을 느꼈고 中國과의 正常化를 이룩한 후 소련과의 관계를改善하여 均衡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당시 田中首相의 인기가 저하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그는 日蘇關係가 자신의 指導力を 보여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였다는 해설도 있다.

日本은 경제면에 있어서 소련에 접근함으로써 中國과 美國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동시에 시베리아開發에 깊숙이 참여함으로써 日本이 소련의 壓力에 저항하기 힘들게 된다는 것도 日本指導者들은 인식하

(90) *Asahi Shimbun*, Feb. 9, 1972.

(91) *Nihon Keizai Shimbun*, Feb. 24, 1972.

(92) Saeki, *op. cit.*, p. 4.

고 있었다. 日本의 投資를 보호하고 原油와 其他原資材를 중단없이 공급시키기 위하여 소련의 壓力에 굴복하여 때로는 中國이나 美國과 對立하고 소련측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日本 爲政者들은 日蘇經濟協力에 대한 中國측의 견해에도 신경을 써왔다. 中國의 입장에 대해서 言及한 바 있지만 中國측은 日蘇經濟協力, 특히 튜멘프리젝트에 대하여 빈번히 우려를 표명하였다. 1973년 1월 日本의 通商省 中曾根大臣에게 周恩來는 소련의 資源에 의존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中國은 경험을 통하여 러시아人은 믿을 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특히 그는 튜멘프리젝트가 極東에서의 소련軍을 강화시키게 되므로 반대한다고 말하였다. 1973년 3월 10일 中國의 政府要人은 讀賣新聞 記者團에게 中國이 日蘇兩國間의 友好關係에 반대하지 않으며 資源이 日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나 튜멘프리젝트는 소련으로 하여금 中國을 침범할 수 있도록 탱크와 비행기에 대한 燃料供給을 가능하게 하여 中國이豫防的措置를 취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만일 日本이 소련에게 物資的援助를 제공한다면 中國人の 감정을 자극하게 될 것이며 離婚騒動보다도 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周恩來首相은 1973년 9월 5일 日本財界人 森村氏와의 면담에서 日本으로서는 시베리아開發에 美國을 참가시키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말하고 開發事業計劃이 中國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히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sup>(93)</sup>

1972년 1월 當時 日本 外務省은 튜멘프리젝트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外務省에는 다음 몇가지의 고려가 있었다고 한다. 同프리젝트에 대한 日本의 참여는 中國과의 正常化에 나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점, 또 하나는 프리젝트가 소련의 軍事力を 간접적으로 증강시키게 될 것이며 中國을 틀림없이 자극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소련軍을 강화함으로써 日本自身의 安保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고 安全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킬 것이며 더구나 石油와 같은 重要資源을 소련에게 의존한다는 생각을 日本政府가 즉각적으로 간단히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후에 日本政府는 튜멘프리젝트를 위해 輸出入銀行借款을 原則的으로 허락한 일이 있다. 그러나 輸出入銀行借款을 나홋트카의 精油工場建設에 사

---

(93) *Asahi Shimbun*, Oct. 13, 1973.

용하는 데에는 반대하여 精油工場建設에 필요한 2千萬弗은 民間側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나홋트카에 精油所를 건설한다는 것은 日本政府와 元來 토의한 内容에 대한 근본적인 修正을 의미한다는 것, 둘째로, 日本이 政府基金을 사용하며는 소련이 軍事力を 증강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中國을 더욱 자극하게 되며 日本自身이 원하는 等距離政策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日本政府는 精油工場을 건설한다면 소련의 極東艦隊에 대한 燃料供給을 容易하게 하여 소련에게一方의 利得을 준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sup>(94)</sup>

1973년 7월 26일 自民黨 幹部들에 대한 演說에서 經濟界의 實力者 植村氏는 資源이 부족한 나라에게 시베리아開發은 중요하나 시베리아問題로 中蘇國境紛爭을 유발하지 않도록 中蘇間에 等距離를 유지해야 한다고 言明하였다.<sup>(95)</sup>

日本의 시베리아開發參與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또 한가지의 考慮는 美國企業이 참여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美國의 參加는 中國의 壓力과 反中的 日蘇結託이란 中國側의 우려를 감소시키는 의미에서도 日本側에서 보기에 바람직스러운 것이다. 初期에 日本 經濟人們은 美國의 參與를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1972년 1월 당시 今里氏는 美國의 參與 없이 튜멘프리젝트를 實施할 決意를 한 바 있다.<sup>(96)</sup> 그러나 1972년 中葉까지는 일정한 主要프리젝트에 美國商社를 참가시키는 문제를 심각히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送油管 및 港灣施設建設의 技術로 著名한 벡텔會社에 튜멘프리젝트에 대한 技術援助를 요청하였다.<sup>(97)</sup> 그 당시 결프石油會社도 튜멘프리젝트에 관심을 表明하여 日本이 소련에게 제공하여야 할 數十億弗의 일부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였다. 日本의 모든 該當官廳은 결프社가 참가할지 모른다는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었다. 그 당시에는 美國의 참가가 바람직스럽다는 立場이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美國이 參여하면 소련에게一方의으로 惠澤을 준다는 근거로 美國이 반대하는 것을 防止한다.

② 美中間의 和解를 생각할 때 日中間의 友好關係維持에 도움이 된다.

(94) *Ibid.*, Sept. 9, 1973.

(95) *Nihon Keizai Shimbun*, July 26, 1973.

(96) *Asahi Shimbun*, March 4, 1972.

(97) *Nihon Keizai Shirbun*, May 24, 1972.

中國의 반대를 약화시키고 中國은 日蘇結託이란 의심을 덜 할 것이다. <sup>(98)</sup>

③ 日本의 財政負擔의 위험을 分散하게 된다.

中國에게 주는 영향만 생각하여도 美國의 參與를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優勢해져 <sup>(99)</sup> 1972년 6월에는 今里氏가 결프會社가 튜멘 및 기타 프러젝트에 참여하는 三國프러젝트를 고려중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sup>(100)</sup>

國際狀況의 변화도 美國의 參與에 대한 日本의 태도에 영향을 주었다. 1972년 5월의 닉슨·브레즈네프회담 이후 美國이 참여하는데 대하여 소련측의 異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련이 美國會社와의 共同開發 可能性을 적극적으로 打診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소련은 日蘇間에 야쿠르트프러젝트가 아직 검토되고 있을 때 美國의 엘파소會社에게 提案한 일까지 있었다. <sup>(101)</sup>

튜멘프러젝트에 대한 日本의 參加決定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日本의 參加條件에 관한 것이었다. 두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借款條件이고 또 하나는 購入保證이다. 소련측은 森林資源開發프러젝트 경우와 같은 supplier's credit 대신 銀行借款을 요구했다. 이로써 日本政府의 最大限의 參與와 最低의 金利를 바랐던 것이다. <sup>(102)</sup> 소련이 銀行借款과 政府의 購入保證을 고집하였지만 1973년初까지 日本政府는 確約을 회피하였다. 대신 日本政府는 民間레벨에서 協定이 이루어지면 肯定的, 好意的으로 고려하겠다고만 말하였다.

튜멘프러젝트를 政府가 지지한다는 暫定的 決定은 1973년 2월 28일에 이루어졌고 外務省을 포함한 該當政府部處가 銀行借款의 使用을 許可하였다. 이 때까지도 政府內의 支配的 見解는 튜멘프러젝트가 中國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여 신중한 것이었다. 그리고 소련의 原油供給을 추구함으로써 소련에 대한 日本의 影響力이 약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소련과의 經濟協力에 응한다면 소련이 아무런 양보도 하지 않는 때 인만큼 日本이 北方領土問題를 사실상 放棄한다고 소련이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sup>(103)</sup>

(98) *Asahi Shimbun*, May 28, 1972.

(99) *Ibid.*, June 17, 1972; *Nihon Keizai Shimbun*, May 30, 1972.

(100) *Asahi Shimbun*, June 15, 1972.

(101) *Ibid.*, June 17, 1972.

(102) Albright, *op. cit.*, pp. 16-18.

(103) *Nihon Keizai Shimbun*, March 1, 1973.

그러한 慎重論을 外務省이 再考慮하게 된 것에는 다음과 같은 사고가 작용하였다고 한다.

① 日本이 튜멘프로젝트에 참여해도 日本의 安保에 커다란 惡影響을 주지 않을 것이며 對蘇發言權도 크게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② 美國이 부분적으로나마 참여하는 日蘇經濟協力은 日中關係나 日本의 對아시아政策에 不安定要素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의 배경에는 美中關係의 進展, 日中正常化 등이 소련外交를 난처한 입장에 몰아 넣으며, 日本이 튜멘事業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면 소련을 자극하여 결과적으로 아시아에 不安定狀況을 야기시킬지 모른다는 견해가 있었다고 한다. <sup>(104)</sup>

外務省의 이러한 情勢分析이 새로운 要因에 기인한 것인지 妥當한 再評價의 결과인지 또는 日蘇經濟協力を 推進하려는 政治, 經濟人에 대한 배려를 반영한 理論的 正當化作業인지는 흥미있는 문제라 하겠다. 그러나 解答은 당시의 政策決定過程의 綜合의이고 詳細한 검토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된다. 한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튜멘문제에 대한 政府各部處의 견해에는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通商省과 大藏省은 1972년 3월에 이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外務省과 通商省은 外交的, 技術的 면에서 난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튜멘事業에 10억弗의 銀行借款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sup>(105)</sup>

1973년 6월 21일 日本政府는 튜멘프로젝트를 위하여 輸出入銀行基金의 使用을 허가하고, 또한 供給되는 原油를 日本이 購入하는데 대하여 政府가 보장한다는 것을 田中首相이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sup>(106)</sup>

닉슨·田中會談에서 시베리아開發을 위한 日美間協力에 합意한 후 日本政府는 시베리아開發 諸프로젝트에 필요한 資金의 約 1/3을 제공할 용의가 있는 것 같이 보였다. 1973년 8월 당시 추정된 總額數는 50억弗이었고 日本과 美國의 民間會社가 만족할만한 協助關係를 이룩할 수 있다면 17억Fr의 政府借款을 허가하겠다는 것이었다. <sup>(107)</sup>

이리하여 1973년 10월 10일 共同聲明에서 시베리아 開發事業計劃에 대한

(104) *Ibid.*

(105) *Asahi Shimbun*, March 4, 1972.

(106) *Ibid.*, June 22, 1973.

(107) *Ibid.*, Aug. 3, 1973.

日本政府의 支持를 確約하였다. 具體的으로 말하면 튜멘과 其他프리젝트에 대한 協定이 日本의 民間會社와 소련측 사이에 체결되면 日本政府는 民間協定을 政府間協定으로 格上시키기 위한 交渉을 시작할 것이라는 것에 田中은 合意하였다.<sup>(108)</sup>

日本政府의 시베리아開發 協力에 대한 태도의 결정에는 日本經濟界의 적극적 자세가 작용한다. 政界와 經濟人 사이에 밀접한 相互依存關係가 있고 政治人은 經濟人の 意向에 민감하다. 日本經濟人 永野氏가 大平外相에게 政經分離의 原則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여 시베리아問題를 北方領土問題에 대한 지렛대로 使用하지 말도록 촉구하였으며 開發問題의 조속한 解決을 희망하는 經濟界, 業界의 입장은 政治指導者들로서 無視할 수 없는 一要素이다.

그렇다고 시베리아開發 事業計劃에 관한 民間레벨에 의한 交渉過程에서 日本政府가 業界에게 行政的 指導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兩者가 밀접하게 協同하여 문제에 對處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대체로 신중하고 냉철하게 다루도록 業界가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이다.

1973년의 頂上會談이 終了한 후 業界가 이제는 經濟協力問題를 다룰 수가 없게 되지 않았느냐고 今里氏가 말했다고 한다. 즉 經濟問題가 政治問題化되어 北方領土問題와 不可分하게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認識을 다른 經濟人도 갖게 되었을 때 外務省 高官과 田中首相이 業者들에게 領土問題의 進展如否에 不拘하고 事業計劃에 대한 協定을 체결하도록 추진하라고 한 일도 있다.

#### D. 시베리아開發 協定에 있어서의 最近의 趨勢<sup>(109)</sup>

시베리아 開發協力에 대한 소련의 태도는 여전히 적극적이다. 소련측은 1976년 8월 土光會長등 經濟團體聯合會의 訪蘇代表團과 알타에서 面談, 앞으로는 10~15년에 걸친 長期의 經濟協力프리젝트를 추진하고 싶다고 제안하였고 1977년 6월 朝日新聞社 質問에 대한 回答에서도 그러한 제안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러나 近來 日本經濟界에는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에 있었던 시베리아

(108) *Nihon Keizai Shimbun*, Oct. 11, 1973.

(109) 本項에 관하여는 다음 文獻을 참조하였음. Ogawa Kazuo, *Nisso Boeki Jitsujo to Kadai*, 1979 및 Takayama Satoshi, *Nisso Kansei*, 1978.

開發에 대한 의욕이 減退된 것 같다. 1977년 9월 東京에서 제 7회 日蘇經濟合同委員會가 개최되었으나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의 제안은 없었고 日蘇의 시베리아開發에 있어서의 協力이 일단락되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大量의 原燃料購入을 最終目標로 한 1970년 前半期의 프로젝트는 日本側으로서는 高度經濟成長時代의 構想을 반영한 것이었다. 近來와 같이 深刻한 不況과 低成長時代에 접어들었다는 인식에서 日本 產業界는 시베리아開發協力에 消極的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976년 9월의 MIG 25 사건과 1977년 漁業協定을 囲繞한 日蘇關係의 惡化도 日蘇協力의 分위기 조성에 기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9月의 會談에서 몇 가지 小規模의 프로젝트에 대한 合意를 보았다. 예를 들면 南야쿠츠크 石炭開發에 9千萬弗의 추가융자를 한다는 것, 極東森林資源開發을 제 3차까지 延長하고 사하린에 있는 렐프工場의 設備를 改善하며 부랑겔灣의 워스도—치니港과 소련極東諸港에 콘테이너荷役施設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제 1회 日蘇 및 蘇日經濟委員會 合同會議가 1966년에 개최된 후 10여년이 된 오늘날 日蘇經濟協力은 質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第二段階 프로젝트의 檢討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제 2 단계에 있어서도 石炭, 石油, 木材, 天然gas 등 資源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 같다.

소련측은 前述한 바와 같이 15~20년간의 長期的 經濟協力を 제안하고 있으며 제네랄·론(general loan)의 提供, turn-key 방식의 採用, 工業製品(附加價值가 붙은 상품)의 對日輸出을 요청하고 있다. 소련의 그러한 요청의 배경에는 시베리아와 極東開發이 점차 地域統合開發化하고 大規模화하고 있다는 점, 심각한 勞動力不足 및 輸出商品構造의 변화등 소련의 사정이 있다고 한다. Turn-key 方式은 필요한 機械, 資材만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土地의 造成, 道路整備, 플랜트建設 그리고 試運轉까지 일체를 發注, 受注하는 것이다. 日本으로서는 시베리아나 소련極東의 自然條件 및 氣象條件을 고려하여 慎重論이 많다고 한다. 제네랄·론은 借入資金에 대해 使用途를 지정한다거나 運用의 감독을 받지 않는 借款을 말한다(그 반대의 타이드·론—tied loan은 借入資金으로 貸付國家로부터 특정한 機械나 資材를 수입해야 한다). General loan의 제공이나 金利의 문제는 先進國 七個國紳士協定

도 있고 日本政府의 對外經濟政策의 一環으로 결정되며 특별히 소련에게 혜택을 줄 수는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日本政府가 general loan과 같은 형식의 借款에 소극적인 것은 그것이 소련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경계심으로부터 비롯되는 점도 있다고 한다. 특히 不況期에 소련이 借款을 이용하여 소련에게 友好的인企業과 우선적으로 거래하겠다는 등 政治的으로 이용하는데 대한 의심도 있다고 한다. 그러한 경계심의 배경에는 日本과의 經濟關係를 강화하면서 北方領土問題를 매장하려는 속셈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다고 한다.

1977년 石田勞動大臣이 소련측에 제안하여 소련의 同意를 얻은 日蘇閣僚會議設置問題도 領土問題에 대한 外務省의 우려 때문에 실천을 보지 못하고 있다. 소련측과의 領土問題交涉에 있어서 아무런 進展이 없이 經濟協力의 推進, 善隣協力條約의 締結등을 촉구하고 있는데 經濟閣僚會議를 설치하면 平和條約(즉 領土問題)의 交涉場所인 外相定期協議의 비중이 低下한다는 경계심이 있다.

外國과 經濟, 貿易關係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소련은 近來에 이르러 長期經濟協力協定의 체결을 강력히 추구하고 있다. 현재 소련은 다수의 西方側先進國家와 長期(10~15년)의 經濟協力協定을 체결하고 그것을 기초로 大規模의 compensation deal(一名 P.S 方式)을 체결하고 있다.(日蘇間의 시베리아 開發協力프로젝트의 원칙도 P.S(生產分與) 方式이다. 즉 日本이 개발에 필요한 設備, 機械, 資材를 長期低利의 延拂로 공급하고 개발된 자원의一定量을 長期로 받는다.)

日本은 先進國中에서도 가장 활발한 對蘇 長期的 經濟協力を 실천하고 있다. 그 반면 소련과 政府레벨의 長期經濟協力協定은 체결하지 않고 있다.

소련은 기회있을 때마다 日蘇長期經濟協定의 締結을 제안하고 있다. 日本政府의 입장은 세계적인 對外經濟政策 속에서 日本이 어떤 나라와도 그러한協定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데 소련과만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런 協定이 없어도 日蘇經濟協力은 현실적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으니 특별히 그런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강하다. 소련측은 日本企業이 소련市場에서 競爭力이 低下되어 있는 것은 長期協定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東西經濟關係의 진전과정에서 東西諸國間의 長期經濟協力協定이 점차 중요성을 띠는 것이 趨勢인 만큼 그 내용이 不利하지 않는한 언제까지

나 그 체결을 日本이 거부하는 것은 再考慮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소련측의 要望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日本으로서도 앞으로의 프로젝트 進展을 위해서 소련의 요청에 對應하여 종래의 品目外에도 프로젝트 대상을 넓혀야 할 입장에 있다. 原燃料의 안정된 공급은 여전히 일본에게 중대한 과제이며 檢討中인 새로운 여러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日本의 原燃料 輸入에 있어서 소련이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자 한다. 前述한 바와 같이 日本은 南아쿠츠크 原料炭開發協力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原料炭이 日本에 공급되는 것은 1983년 이후로 되어 있다. 1960년 이후 소련으로부터 長期協定에 의하여 구즈넥炭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는 연간 약 320萬ton으로 안정된 공급이다. 近日에 구즈넥炭은 日本의 原料炭 輸入總額의 4~5% (第三~四位)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日本의 原油 및 石油輸入은 1977년에 2억 7천 8백만kl에 달하고 있는데 主要輸入對象國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인도네시아, 아랍土侯國, 쿠웨이트이다. 1977년 소련으로부터의 수입량은 8萬 2千kl에 불과하다. 앞으로 사하린大陸棚石油, 개스探鑛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며는 세계 제1위의 原油生產國인 소련에의 依存度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日本은 소련으로부터 비교적 많은 重油를 수입하는데 1977년에는 全體輸入量의 6.8% (제 6 위)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現段階에서는 日本 최대의 輸入品目인 原油 및 石油에 있어서 소련에의 依存度가 극히 작으며 天然개스 수입도 全無한 상태이다. 石炭의 경우에도 1980年代는 높아지겠으나 현재는 소련에 의존하는 바가 비교적 낮다. 그러나 장차 에너르기資源 供給源의 分散과 多角化를 推進해 나가는데 있어서 長期的으로는 안정된 原燃料의 供給國으로 소련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原資材 면에서 보면 소련으로부터의 최대의 輸入品目은 木材이다. 1977년 소련으로부터의 輸入量은 輸入總額의 38%에 달하고 있다. 日本은 木材供給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65%) 소련은 美國과 더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日本의 非鐵金屬輸入은 總輸入額의 2.3%이고 主要品目은 구리와 알미늄이다. 近年 소련으로부터의 알미늄 輸入이 증대하고 있고 1976년에는 알미늄 輸入總額의 12.4% (第三位)를 차지하고 있다. 파라듐은 소련이 압도적인 輸

入對象國이며 1976년에는 輸入額의 62.5%에 달하고 있다.

1979年 2月 東京에서 日蘇・蘇日 兩經濟委員會 第四回 合同幹部會議가 개최되어 소련측은 懸案프리젝트의에 다음 세개의 新規프리젝트에 관하여 日本의 協力を 要請하였다. 첫째 極東에서의 大規模 一貫製鐵所의 建設, 둘째 우도간 銅礦山開發, 세째 말라제주노에 地區의 아스베스토(Asbestos) 鐵床開發이다.

소련이 第11次五個年計劃(1981~1985)을 세우는데 있어서 시베리아開發에 대한 日本의 協力과 參與의 程度가 커다란 문제로 되어 있다. 소련의 經濟難關打開에 시베리아 開發이 갖는 意義를 생각해 보면 소련측이 日蘇經濟協力에 보이는 의욕은 설명할 수 있겠으나 최근 日本經濟界가 보인 中國傾斜傾向도 또 하나의 要因일 수 있다. 소련이 一貫製鐵所(Ironworks Kombinat)를 提案한 것은 日中協力에 의한 上海 寶山製鐵所建設에 대항한 것이 아닌가 하는 日本側의 見解도 있다. 上記한 프리젝트중에서 日本은 아스베스토開發에 특히 관심을 표시하였으나 세개의 프리젝트 모두가 문제를 지닌다. 이 중에서도 특히 日本에게 소련製品의 購入을 요구하고 있는 一貫製鐵所建設에 難問題가 있다. 操業率이 低下된 日本 鐵鋼業界에 製品購入이란 매력 있는 提案이 아닌 것이다.

#### E. 日蘇貿易의 商品構造<sup>(110)</sup>

여기서 日蘇貿易의 商品構造에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日蘇貿易의 商品構造는 极히 相互補完의이다. 日本은 機械와 鐵鋼 등을 주로 하여 工業完成品 輸出을 하며 소련은 工業用 原燃料를 수출하는 것이 基本的 形態이다.

輸入面을 보면 1960年代 中葉까지는 石油, 石炭, 鐵礦石, 銑鐵, 木材가 소련으로부터 日本이 수입하는 五大品目이었고 輸入全體의 70~80%를 차지하고 있었다. 近來 이 構造가 크게 변하고 있다. 1977년을 보면 五大品目이 수입 전체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율은 55%로 低下되어 있다. 木材의 輸入은 그 量에 있어서나 比率에 있어서 모두 증가하고 있으나 他品目의 重要度는 명백히 低下하고 있다. 그리고 非鐵金屬, 纖維原料의 重要性이 높아지고 특히 非鐵金屬의 수입이 매년 大幅의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련으로부터의 輸入商品構造는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나 工業用 原料 中心의 輸入이란 基本的 形態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開發프라

(110) Ibid.

제트를 고려할 때 1980년대에는 프리제트關聯商品, 특히 에너르기資源이 수입 전체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輸出面에서 보면 機械, 鐵鋼, 纖維製品 및 化學製品이 對蘇輸出 全體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1977년의 上記 四個品目의 比率은 약 92%이다. 과거 10년간 統計로 보면 纖維製品과 化學製品의 比率은 低下하였고 反面 鐵鋼은 1966년의 16.1%에서 1976년의 47.2%로 증가하였다. 1977년 鐵鋼輸出은 현저히 감소하여 28.5%로 低下하였으나 絶對額은 여전히 크다. 機械 類의 比率은 1966년의 43.2%로부터 1976년의 31%로 低下하였고 機械, 機器品目的 內容이 變化, 高度化하였다. 1970년대 開發協力프리제트의 성립으로 開發用機器의 輸出이 증대하여 對蘇 輸出商品構造에 質的 變化와 高度化를 가져왔다. 1977년에는 機械機器輸出이 대폭적으로 늘어 鐵鋼이 감소된 결과 機械機器의 비율이 41%로 올라갔다. 對蘇鐵鋼輸出이 急速度로 증가한 것은 소련의 에너르기資源開發의 進展에 수반하는 需要의 증대를 배경으로 1976년 日本으로부터 銀行借款이 제공되어 大口徑鐵管의 輸出이 대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7년과 1978년 2년 계속하여 對蘇鐵鋼輸出이 감소하였고 그 비율도 低下하였다.

日蘇通商條約(1958년 發效) 이후 日蘇貿易은 급속도로 증가하여 協定發效 첫해인 1958년에는 4千萬弗, 1972년에는 10億대가 되며 1976년 總額은 34億 1千 9百萬弗이 되었다(日本의 수출은 22億 5千 2百萬弗, 수입은 11億 6千 7百萬弗). 그리고 1977년에는 33億 5千 6百萬弗에 이르렀다(日本의 輸出은 19億 3千 4百萬弗, 輸入은 14億 2千 2百萬弗). 貿易收支는 長期間 소련의 出超를 이루었으나 1975년에 日本의 出超로 변하였으며 1976년에 이 出超額이 약 10億弗에 달하였고 1977년에는 약 5億弗이 되었다.

日本의 貿易全體에 차지하는 對蘇貿易의 비중은 최고의 貿易額을 기록한 1976년에도 2.6%정도이고 1977년에는 2.2%였다. 소련의 對外貿易全體에 있어서 對日貿易이 차지하는 비중은 3~4%이며 국가별로 보면 제 8위 내지 9위 정도이다. 그러나 소련의 西方諸國과의 貿易만을 보면 對日貿易의 順位는 높다. 이 순위는 1967, 1970, 1971년에는 第一位, 1976年에는 西獨, 美國 다음으로 제 3위이었고 1977년에는 西獨 다음의 제 2위에 위치하고 있다.

日本의 對外輸出總額에 있어서 對蘇輸出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은 것으로 보아 日蘇貿易이 日本經濟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日本의 輸出對象國으로서 소련은 1976년에 제 6 위, 1977년에는 제 11위였고 특히 鐵鋼, 플랜트, 纖維製品 등 對蘇輸出商品構造上의 特징으로 보아 日本이 무시할 수 없는 有力한 輸出市場이다. 최근 西歐 先進諸國의 保護貿易的政策이나 日本 國內의 纖維產業등을 고려하면 소련市場은 그 중요성을 더욱 갖게 된다.

## V. 結論：日蘇關係의 將來

將來의 日本外交安保政策이 지닐 수 있는 選擇의 幅을 理論的으로 考慮하면 日蘇間의 多角的 協力關係를 想定할 수가 있으며 日蘇同盟 形成의 可能性까지도 완전히 排除할 수는 없다. 실제로 70年代의 國際情勢의 變遷등을 回顧해 볼 때 日蘇關係의 緊密化를 促進시키는 客觀的인 要因을 엿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日蘇關係가 70年代에 비하여 大幅的으로 好轉되어 日蘇同盟과 같은 安保面에서의 協力關係의 構築까지 이루어질 可能性은 稀薄하다. 그러한 特殊한 狀況을 理論的으로는 想定할 수 있다고 해도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條件이 充足되어야만 하는데 이것들이 實現化다고는 보기 힘들다.

① 國內政治 權力構造에 획기적인 變화가 일어나는 경우, 즉 執權黨인 自民黨의 力量이 低下하여 國會兩院에서 多數를喪失할 뿐 아니라 國會內部에서 별로 影響力を 행사하지 못하는 無力한 一少數團體로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80年代 前半을 바라볼 때 自民黨이 그와 같이 급속도로 衰退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만약 聯立政權이樹立된다고 하더라도—그 主導權을 自民黨이 차지하던 社會黨이 차지하든— 소련과의 軍事的인 유대를 追求할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소련 以外의 나라로부터 日本側이 重大한 軍事的威脅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러한 路線을 택한다고는 想定하기 힘들다. 그런데 그러한 軍事的威脅을 想定하기 어렵고 현재는 물론 가까운 將來에 소련과의 軍事的 協力を 주장하는 政治勢力이 대두하리라고는 보기 힘든 것이다.

② 現存하는 日本의 國際通商經濟關係構造에 根本的인 變化가 있을 경우를 들 수 있다. 現存하는 日本의 國際經濟關係의 性格은 日本의 戰略的, 政治的 選擇의 幅을 어느 정도 規定한다. 各者間의 政治理念의 差를 막론하

고 日本政治人們은 國際經濟構造의 엄연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고 經濟에 끼치는 政治的 選擇의 영향을 완전히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③ 日本人의 對蘇不信이 급속히 大幅의으로 감소되는 경우. 日本人의 對蘇不信感은 輿論調查에 명백히 나타나는 사실이다. 그와 같은 不信感은 社會에 널리 蔓延되어 있고 오늘날까지 長期間 커다란 高低 없이 계속되어 왔다. 80年代를 고려할 때 對蘇日本輿論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日本이 美國과의 協力關係에서 離脫하는 등 소련 以外의 國家로부터 중대한 威脅을 日本이 느끼게 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그러한 狀況이 앞으로 數年內에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기 힘들다.

④ 日本의 美國 및 中國과의 關係가 극도로 惡化되는 경우. 日美安保條約이 破棄되고 美國이나 中國으로부터 중대한 威脅을 느끼는 경우가 아니면 日蘇關係가 軍事協力까지 進展되지 않을 것이다. 日美安保條約에 대한 信賴가 더욱 低下하며 經濟摩擦등으로 日美關係가 여러가지 試練을 겪을 것은豫想할 수 있다. 日美關係의 惡化를 招來할 여러가지 要因을 想定할 수도 있다. 그러나 80年代를 통하여 一적어도 向後 數年間에 日美關係가 敵對關係로 변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힘들다.

上記한 安保政策 以外의 側面에서 日蘇關係가 앞으로 數年內에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가를 展望해 보고자 한다.

① 北方領土問題의 解決은 여전히 至難한 과제로서 남을 것이다. 이 문제는 日蘇兩國의 政治關係에 있어서 基本的이고 劃期的인 改善을 저해하는 要因으로서 계속 작용할 것이다. 日本側으로서는 平和條約이나 不可侵條約같이 北方領土에 대한 領土權主張을 放棄하는 效力を 갖는 條約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소련이 提案하고 있는 善隣協力條約에 있어서도 領土問題의 未解決과 그 문제에 관한 繼續協商에 대하여 소련이 用意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적당한 형식으로 確認하지 않는 한 日本의 否定的인 태도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② 소련이 提案한 바 있는 아시아에서의 集團安保體制의 構想에 대해서도 日本은 계속 反對의立場을 취할 것이다. 그러한 集團安保體制에 日本이 參與하는 것이 現存하는 兩國間의 國境線을 受諾하는 것과 같은 結果를 가져온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것 외에 그러한 集團安保體制에 대한 美, 中의 否定的인 態度도 日本의 立場을 規定하는 要因으로서 계속 작용할 것이다.

③ 시베리아開發 프로젝트에 日本은 계속 참여할 것이다. 튜멘事業과 같은 것은 別問題이다. 日本側은 소련과 密接한 經濟關係를 갖는 데서 오는 政治的 含蓄性을 의식하고 있고 또한 原資材, 燃料등의 供給을 소련에게 依存함으로써 비롯되는 政治的, 戰略的 問題등도 의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考慮가 日本의 對蘇經濟協力의 性格, 範圍에 영향을 주며 日本側은 신중한 태도로 임할 것이다.

美·蘇 軍事力밸런스의 趨勢에 대한 評價와 日美安保體制의 效率性에 대한 懐疑心의 增大가 日蘇關係의 緊密化一蹴어도 經濟面에서一를 가져올 可能性도 있다.

④ 日本은 中蘇兩國에 대하여 적어도 表面적으로는 等距離政策을 계속 지향할 것이다. 美國에 대하여도 一定한 간격을 두어 美·中·蘇 三國에 대한 等距離, 밸런스政策을 모색할 것이다. 그리고 美國의 壓力, 影響力を排除하여 獨自의인 政策을 추구해 나가려는 자세가 점차로 현저해 질 것이다. 그러나 日美 兩國間 關係가 경제적 마찰로 인하여 때로는 繁張될 수도 있으나, 基本的으로 兩國間의 政治, 經濟, 安保協力面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곧 日蘇關係의 改善과 調整의 幅에 一定한 限界性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sup>(111)</sup>

(111) 이 研究는 筆者が 產學協同財團의 후원으로 서울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의 研究教授로歴任하는 동안에 이루어졌다. 日蘇關係가 韓國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社會科學과 政策研究」第三卷 第一號의 소련外交政策 특집에 수록될 論文을 참조하기 바란다.